

공군

항공정기행운
25090-33246-44-97017

AIR FORCE QUARTERLY
1997년 겨울호(통권 제241호)



공군본부

공군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
무인년 새해에도
철벽영공방위 임무 완수에 매진합시다.



글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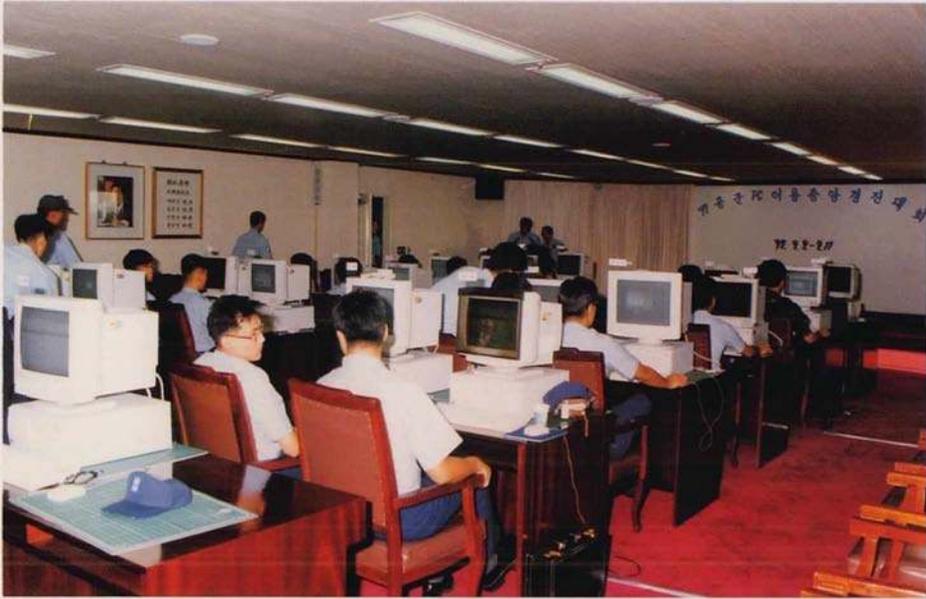
- 권 두 화 보 _____ 4
- 권 두 언 지휘관 중심의 정신교육 확립/정훈공보실장 대령 서홍교 — 10
- 보 라 매 칼 럼 첨단 과학군일수록 중요한 정신전력
/공군참모차장 중장 이억수 — 12
- 특 집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대령 고경운 — 14
- '97년 새해에는 새해를 시작하며/중위 김정균 — 17
- '97년 한 해를 보내며/원사 최영학 — 19
- 역사속으로 사라져 가는 1997년을 뒤돌아 보며
 /병장 방수영 — 22
- 짧은 여행/7급 김미연 — 26
- 특 별 기 고 사관학교 생도용 의자 이야기/공군예비역소장 이태식 — 28
- 공 군 논 단 전쟁 양상의 혁신/중령 권영근 — 32
- 항공기의 운항과 환경문제Ⅱ/중령 이기영 — 48
- 제3차 중동전쟁(6일전쟁)/대위 이재연 — 58
- 국 제 안 보 미국 해외군사력 현시 변화추세
 /한국군사학회 부회장 이선호 — 64
- 안 보 놀라운 사실, 그리고 새로운 다짐/병장 박상빈 — 70
- 중 간 화 보 _____ 73
- 호국문예작품 어렸을 제, 어렸을 제/광주초교 이수빈 — 82
- 보라매 용사/강원한솔초교 최예원 — 83

글 차례

	파란 저 하늘을 가르며/진주중앙초교 윤송이	84
	아빠의 사진첩/서울 교대부속초교 김정원	85
	하늘을 날으는 우리공군 아저씨/대구매호초교 황혜림	87
● 직 무 지 식	예산의 이해/소령 김태욱	89
● 취 미 생 활	스키 한 번 타봅시다/중사 김도석	99
	컴퓨터로 그림을 그려 봅시다/병장 김석한	106
● 독 후 감	전쟁과 반전쟁(反戰爭)/대위 김영일	110
● 만 화	꿀맛을 아시나요/고석현	113
● 영 화 감 상	참된 시란 무엇인가/일병 김기홍	121
	"옛 먹어라"고 하는 아이들로부터 옛 먹는 영화 /상병 배형우	124
● 공 군 문 단		128
- 시 -	전우여/병장 이진욱	130
	철매가 날아 오를 때/상병 황해동	131
- 소 설 -	또래의 사랑/상병 김정근	132
- 수 필 -	와무지탄(蛙無之嘆)/3급 김용욱	138
	백미를 탄 단종/한국수필가협회 이사 최중호	141
	예비사위의 선물/대위 김종건	144
	빠빠옹이 남긴 말/6급 김미애	149
	십원의 가치/일병 김지훈	150
● 글을기다립니다.		152

공 · 군 · 동 · 정

♣ 제1회 PC이용 중앙경진대회 개최



▲ 공군본부에는 본부 및 예하부대에서 선발된 장병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제1회 PC이용 중앙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치뤄진 이번 경연대회는 전공군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9.9~11)

♣ 방공관제대대 순시



▲ 방공관제대대 제8352부대를 순시한 참모총장은 부대현황, 대비태세 등을 보고 받은 뒤, 월동대책에 안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부대장을 비롯한 관계관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10.28)

공 · 군 · 동 · 정

✿ 군사운영 분석 학술대회 개최



▲ 공군본부는 한국 군사운영 분석학회와 공동으로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군사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보화시대의 군사혁신'을 주제로 추계 군사운영분석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군사정책·전략, 자원관리, 정보체계 및 OR/SA의 4개 분야에서 모두 19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군 운용의 현대화와 과학화에 기여하였다.(10.31)

✿ 이광수 귀순연사 초청 안보강연회



▲ 공군본부는 작년 강릉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시 생포된 이광수씨를 초청, 특별안보강연회를 실시하였다. 이광수씨는 15여년 간의 군생활, 강릉 침투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 뒤, 대한민국 모든 장병들이 철저한 대비태세 유지로 북한의 침략 책동을 분쇄해야 할 것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11.11)

'97 방공포병 유도탄 사격대회

✚ 첨단 방공무기 실사격으로 즉각 대응력 향상



▲ 철벽 방공포병의 위용을 과시하는 호크 미사일

공군은 서해안 지역 방공포 사격장에서 나이키, 호크, 재브린, 그리고 휴대용 미사일인 미스트랄 등에 대한 사격 대회를 10월 28일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호크포대 동시 사격 및 연발 사격을 실효적기에 직접 실시하여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성과 동시다량 항적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력을 향상하였으며, 나이키 포대의 지대공, 지대지 임무 전환 소요시간을 단축하는 등, 전력의 극대화를 도모하였다.

'97 방공포병 유도탄 사격대회



◀ 발칸포 사격

휴대용 미사일인 미스트랄 사격 ▶



◀ 재브리브 사격 위한 목표물 탐지

'97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올해 최고의 전투비행대와 최우수 사격 조종사에 대한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시상식이 11월 28일, 제19전투비행단에서 참모총장이 임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TOP GUN으로 불리는 '개인 종합 최우수상'은 F-5E 제공호를 조종한 8전비 207대대의 윤상원 소령이 차지했으며, '종합 최우수상'은 컴퓨터 자동사격 부문의 제19전투비행단 162대대와 수동사격 부문의 제8전투비행단 207대대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애기 F-5E와 함께
포즈를 취한 윤상원 소령



▲ '97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시상식



▲ 윤상원 소령 가족

영 권

AIR FORCE QUARTERLY

1997년 겨울호(통권 제241호) AIR FORCE QUARTERLY



參謀總長 指揮方針

最高의 戰備態勢
科學的 教育訓練
總和的 安全管理
斬新한 空軍文化

공군본부

지휘관 중심의 정신교육 확립

얼마 전에 부부 남과 간첩이 잡히면서 밝혀진 고정 간첩 사건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30년 가까이 국립 서울대 교수로 재직해온 한국 사회학계의 태두(泰斗)이며 차관급 공직을 맡은 바 있는 고영복 교수의 검거는 뜻밖의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36년간이나 고첩 활동을 해왔지만 어느 누구도 그가 간첩임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사회 전체에 만연한 안보불감증의 한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대남 적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북한의 공작이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긴가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북한의 남침 위협에 대해 극심한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이 그럴 리가 없다며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렸으며, 또한 우리 군에서도 대북인식과 경계태세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북괴의 남침야욕을 근원적으로 분쇄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확고한 대적관과 경계태세로 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공군은 장병 정신무장강화를 위한 집중 정신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올해 9월부터 정신



徐弘教
대령/정훈공보실장

교육시범대대 발표를 전 부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는 장병들의 정신전력이 전쟁의 승패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인식 아래, 정신교육의 날을 지휘관 책임 하에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정착시켜 나가기 위함이다.

최첨단 무기체계를 구비했다라도 정신전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무기체계 운용의 주체는 바로 장병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휘관 중심의 정신교육 체계 확립을 통하여 정신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장병들이 재인식하고 정신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배전의 노력을 쏟아야 한다.

새해가 밝아 오고 있다.

새해에는 지휘관 중심의 정신교육의 날이 더욱 내실있게 운영되고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완벽한 영공방위 임무 완수와 21세기 세계일류 정예 공군력 건설의 소명을 위해 가일층 분발해 나가자.

장병들의 무운건승을 기원하면서…….

첨단 과학군일수록 중요한 정신전력

이 익 수
중장/공군참모차장



모름지기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는 병법과 전사(戰史)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강조되는 것은 승패를 나뉘가진 주체들의 정신력임은 누구에게나 주지의 사실이다.

겨레의 성웅(聖雄)이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은 그 대표적 상징이다. 당시 온갖 간계와 모함으로 인해 옥고를 치른 장군 앞에 남겨진 배는 불과 12척이었다. 조정에서는 해전을 피하고 육전을 하라고 지시하지만 장군께서는 “아직도 신(臣)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尙有十二隻)”는 필사(必死)와 필승(必勝)의 장계를 띄우고 울돌목을 택해 세계해전사에 찬연(燦然)한 완승을 거둔 것이다.

물론, 승리의 원인에는 장군의 탁월한 지략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것은 장군을 정점으로 한 장병들의 철석같은 단결력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적필살(對敵必殺)의 전투의지에 있었음은 불문가지이다.

결전(決戰)이 있기 하루 전날, 장군께서 부하들에게 훈시한 “必死生 必生死”(반드시 죽을 각오로 임하면 살(승리할) 수 있다.)의 말은 군인이 갖춰야 할 최우선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한다.

이밖에 중동전쟁이 터질 때마다 조국을 사수하기 위해 앞다투어 귀국한 이스라엘 청년들과 변명과 도망에 바빴던 이집트 청년의 대조적 사례는 이미 전쟁의 결말을 예고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정신력은 개인과 군대, 국가의 존망과 성쇠를 좌우하는 핵심인 것이다.

서양의 노블레스 오블리(NOBLESSE OBLIGE)라는 말의 근원도 한 조직과 집단을 이끄는 지도부의 정신력, 즉, 책임감, 희생정신, 숭선수범을 강조한 것에서 연유한 것 아니겠는가?

최근, 국민들의 안보관이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해이해지고 이를 증거하는 병리(病理)현상이

확산되고 있어 뜻있는 이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몇가지 예를 든다면, 우선 변함없는 우리의 주적 북한의 엄존(嚴存)하는 군사적 위협을 애써 외면하면서 그들의 위기상황이 우리에게도 위기임을 망각하고 연민과 동정의 시각으로만 보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북한은 굶주리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킬 수 없으며, 설사 전쟁이 난다 해도 미군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망언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는 사실이다.

어디 이 뿐인가. 이유야 어떻든 사회 핵심 지도층의 현역 복무율이 일반 국민의 그것보다 낮으며, 병역 면제자를 신의 아들로, 현역 입영 대상을 어둠의 자식들로 칭하는가 하면, 아직은 일부이지만 병역 문제를 위해 엉뚱하게 죽기를 각오(?)하고 굶고, 먹고, 수술까지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비정상적 상황 속에서 우리 군은 냉철한 자성을 기초로, 군에 입대하는 젊은이들이 강한 군인정신을 갖춘 용사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군 정신전력 활성화에 총력을 경주해야 하겠다.

먼저, 전기(前記)한 부정적 현상들이 범국민적으로 규탄받아 사라져야 하며 군에 유입되지 않도록 단속되고 또한 장병들의 군인다운 언행을 통해 반듯하게 고쳐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소위 외아들, 마마보이로 자란 신세대 장병의 긍정적 특성과 정보화 시대에 고루 부합하는 참신한 정신 교육기법 및 내용이 꾸준히 계발, 확충되어야 하겠으며, 현장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지휘관이 술선수범하고 교관요

원들의 정신교육 능력구비에도 가일층 노력해야겠다.

한편, 우리 공군의 입장에서 정신전력은 어떠한 타집단보다 중요한 가치가 된다.

공군만큼 현대전에서 결정적이고 사활적(死活的)인 힘을 가진 전력이 없음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기에 전투력의 주체이며 근원인 구성원들의 정신전력은 공군력 그 자체라 해도 무리가 없다.

유사시 조종사, 방공포병, 방공무기 통제사, 정비사, 무장사 등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의 일거수 일투족과 빈틈없는 협동에 의해 전쟁의 명암이 엇갈린다고 생각할 때, “첨단 과학군인 공군은 기계를 다루므로 정신력은 별로 중요치 않다.”는 생각은 위험하기 그지 없는 것이며, 아무리 가공할 위력이 있는 무기체계도 최종적으로는 사람에 의해 사용 대상이 정해지고, 성능이 발휘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미국이 전시에 대통령 다음으로 막중한 무력 사용권한을 공군의 전략 폭격기 조종사와 핵잠수함 함장에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절로 수궁이 가는 얘기이다.

다사다난했던 '97년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다.

국가 안보에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면서, 내년에는 우리 공군의 정신전력이 부전승(不戰勝: 싸우지 않고 이긴다)의 경지까지 배양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기원하면서, 必死即生(必勝)의 정신을 전장병에게 체득시키는 공군 정신교육이 정착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자. **등문**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고 경 윤

대령/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인간은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자기의 목표를 성취하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며, 자신이 몸담고 있는 크고 작은 조직을 위해 만족스럽게 일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것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기법은 없는 것일까?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얘기는 아니지만 본인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몇가지 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상상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자.

나폴레옹은 "상상력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말했고, 글렌클라크는 "인간이 지닌 모든 재능 중에서 신의 능력에 가장 가까운 것은 상상력"이라고 말했다. 어째서 상상력이 이처럼 중요한 것일까? 그 이유는 이러하다.

사람에게 어떤 목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삶의 웅대한 목표이건 요구되는 동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든, 인간은 인간 내부에 있는

자동 통제 시스템에 의해 뇌 속에 저장된 자료(Data Base)를 바탕으로 목표를 성취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뇌 속에 성공적인 경험을 많이 축적시킨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런데 임상 심리학자들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인간의 신경조직은 사실상의 경험과 상상 속의 경험을 식별해내지 못하고 상상 속의 경험도 실제 경험과 똑같이 뇌 속에 저장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물론 상상 속의 경험은 생생하고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몇가지 예를 들어 보자. 어느 대학교에서 농구공을 바스켓에 집어넣는 기술을 향상시킨 실험을 실시하였다. 임의의 피시험자를 세 무리로 나누어 첫번째 무리는 매일 연습을 시키고, 두번째 무리는 첫번째 날과 마지막 날에만 공을 넣게 하여 그 득점을 기록하였다. 세번째 집단은 실제 연습은 하지 않고 단지 상상만으로 공을 던지는 훈련을 하였다. 20일 동안 훈련 결과 첫번째 무리는 24%의 향상을 보였고 두번째 집단은 발전

이 전혀 없었으며 상상만으로 연습을 시킨 세번째 무리는 놀랍게도 향상율이 23%나 되었다고 한다. 알렉스 모리슨이라는 골프 코치는 골프라고는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제 연습을 전혀 시키지 않고 매일 안락의자에 앉아 정확하게 연습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게 하였다. 그 결과 처음 골프장에 나가 90의 장벽을 깨었다. 핵심은 바로 "어떤 것을 성공적으로 해 내려면 무엇보다 먼저 그것을 정확하게 하는 데 대한 뚜렷하고 정신적 영상이 필요불가결한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U-2 조종사들은 비행하러 나가기 전에 30분 동안 비행 중 해야 할 임무와 비상시 처리방법 등에 대해 상상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한다. 공군 Top Gun 들도 사격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는 것을 고백하였다.

우리가 원하는 일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것처럼 생생한 정신적 영상을 그려나갈 때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 일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 것이다. 우리 장병들도 하루 중 최소 20~30분 동안 상상하는 시간을 갖기 바란다. 헤리 에미라는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승리자로서의 자신을 생생하고 실감나게 그려보라. 그러면 그것은 엄청난 기세로 자신을 성공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위대한 삶은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그려내는 상상 속의 영상에서 시작된다".

다음으로는 현실에 충실하자.

다음과 같은 옛날 이야기가 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어떤 부유한 사람이 있었다. 어느날 그의 친구가 멋진 집을 지어 놓고 구경하러 오라고 하였다. 그는 친구집을 보고 감탄하였다. 친구는 너무나 멋진 3층집을 지어 살고 있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당장 하인들에게 명령하였다. "애들아 3층집을 지어라" 며칠뒤 가보니 하인들이 열심히 집을 짓는데 3층집을 짓지 않고 1층을 만들고 있었다. 그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3층집을 지으라니까 왜 1층 집을 짓고 있는 것이냐" 그러자 하인 한명이 이렇게 대답했다. "3층집을 지으려면 1층부터 지어야 합니다. 1층이 부실하면 2층조차도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쌓인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하거나 원하는 것은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영화 "쥬라기 공원"에서도 이것을 극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화석에 있는 모기의 피에서 공룡의 유전자를 뽑아 공룡시대를 재현시켜보고자 하지만 결국엔 파멸한다. 이것은 과정을 무시하고 수십만년을 뛰어넘어 보려는 인간의 욕심에 대한 경종인 것이다.

이렇듯 우리들이 태어나 지금까지 한 모든 생각이나 행동들, 어쩌면 전생에서까지 갖고온 업보까지도 쌓여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 행동을 보면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것은 오늘 얼마나 충실하게 살았느냐가 우리의 내일을 결정한다는 평범한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강조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도록 노력하자. 최근 경영분야에서는 고객 만족의 시대에서 고객 감동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 공군에서도 상·하간 감동의 시대로 돌입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업무를 통해서 그리고 정이 있는 인간관계

'98년 새해에는

를 통해서 서로 감동을 줄 수 있을 때, 조직은 살아나게 되고 조직의 목표 성취도도 높아질 것이다. 상·하간의 관계는 상관관계이다. 상관이 부하를 감동시키지 못하면 부하가 상관을 감동시킬 수 없고 부하가 상관을 감동시키지 못하면 상관이 부하를 감동시킬 수 없다.

그렇지만 상관이 부하를 먼저 감동시켜야 된다. 부하들에 대한 질책, 비난, 처벌 등으로는 부하들이 절대 감동하지 못한다. 보다 따뜻하게 대해줘야 된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 적은 아니지 않는가! 부하들이 상관을 위해서 일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상관이 책임지고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 부하는 매우 고맙고 소중한 존재이다. 부하들은 상관보다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관이 생각하는 만큼 못 좇아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런 부하들에게 인간적 애정을 갖고 대해 주며 사소한 것까지도 보살펴주고, 그가 하고 있는 일을 전적으로 신임하고 그들의 얘기를 잘들어 줄 때 부하들은 감동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부하로서 어떻게 하면 상관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무조건 일한다고 상관이 감동할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의 부하는 지식을 바탕으로 한 열성 없이는 상관을 감동시킬 수 없다. 전문가가 아니고는 상관을 감동시킬 수 없는 것이다. 지금 말고 있는 일

을 잘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지금보다 더 잘하고자 하는 노력과 결심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된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무슨 공부를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자. 그리고 그것을 크게 써서 책상 앞에 붙여 놓고 정진하자.

또한 즐겁게 일하는 자세를 가져야 상관이 감동한다. 나는 얼마전 과원 전체와 같이 밤을 꼬박 새워 일한 적이 있다. 과원들이 불평 한마디 없이 서로 협력하며 열성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다. 그때 저런 후배들에게 무엇인들 못해 주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기술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목표가 달성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상상하는 시간을 많이 갖자. 그리고 현실에 충실하여 상하상호간 감동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보다 발전될 수 있고 개인의 발전이 우리 공군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무인년 새해에는 공군 장병 모두가 새로운 결의를 가지고서 정진했으면 한다. 보다 나은 각자의 삶은 우리 공군의 발전에도 큰 밑거름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끝을 맺고자 한다. **승관**

새해를 시작하며

김 정 균

중위/제8988부대 정훈실



서른 세번 은은한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97년 정축년을 끝나고 98년 무인년 새해가 곧 밝아온다. 하늘 끝 구석구석까지 긴 여운을 남기며 울려 퍼진 종소리는 지난해의 질곡과 어둠을 모두 밀어 내고 새로운 출발의 힘찬 신호음으로 우리 모두 가슴에 와닿으며 새로운 한해의 시작을 알려줄 것이다.

한해가 가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 즈음, 우리는 항상 새해를 맞이하는 부푼 마음과 새로운 결심으로 다짐을 하곤 한다. 그러나 막상 한해가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은 아쉬움뿐이었던 기억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 나름대로의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서로에게 주어진 어떤 시간을 자기의 것으로 채워나가는데, 주어진 한계 속에서 또 한 번의 발버둥을 치는 듯한 몸짓으로 벗어나 보려고 해 보기도 한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이러한 말로써 시간을 나누어 본다면, 언제나 '나'라는 존재가 존립할 수 있는 곳은 이 셋 가운데 하나인 '오늘'이라는 곳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들의 머리 속에는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뒤엉켜져 맴돌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나 자신을 얽매어 놓기에는 뭔가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에서일지도 모른다. 어제의 나를 바라다 볼 때는 자연 관대해지는 나를 보게 된다. 특히 어떤 제약이나 한계상황으로부터 스스로의 위치를 격상시키거나 이탈시켜 놓고 나서는 더욱 그러하다.

아스라히 힘들게만 기억되는 기본군사훈련을 마치고, 임관 후 특기교육을 받고 처음 발령받은 곳이 이 곳 방공포병부대…….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새로운 생활에 대한 도전과 일말의 두려움으로 나의 군대생활은 시작되었다.

대대 정훈장교로서 각 예하 포대 및 지원대의 정훈업무 총괄·지휘·조정하는 임무를 띠고 부임하여 정신없이 지냈던 나날들……. 이제 나는

'98년 새해에는

반환점을 돈 마라톤 선수와 같다. 이곳에서 1년 반 동안의 생활이 지금 내 머리 속에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맴돌고 있다. 군대생활을 오랫동안 한 분들에게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시간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나의 젊은 시절의 일부였기에 나에게서는 소중한 기억들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자신의 일을 생각할 때, 거기에는 반성과 계획이 따른다. 그러나 새로운 계획은 반성 다음에 오는 것이고, 반성의 바탕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다. 반성이란 지난 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발전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를 다지는 것이다.

반성이 있으면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이 있으면 지혜가 생기게 되고, 지혜가 생기면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된다. 새해에 세운 계획을 잘 진행시켜 또다시 올해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을 때에는 반성할 일들이 지난해보다는 적어졌으면 하고 바라는 것은 나만의 소망은 아닐 것이다.

국정원에서 특기교육을 받을 때, 한 전우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우리 인생을 커다란 그림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군생활은 그 그림의 가장자리가 아닌 중앙을 차지하는 큰 무늬가 될거라는……”

정말 옳고 좋은 말이라 생각한다.

인생이라는 커다란 화폭에 시간의 붓을 가지

고 생활이라는 물감으로 부분부분을 채워갈 때, 군생활 36개월은 어쩌면 그 화폭을 가장 멋있고 아름답게 빛내주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다른 아름다운 무늬들마저 흐리게 하는 추하고 더러운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까지 난 정말 불품없는 무늬를 꾸며온 것 같다. 어느 정도의 스케치만 이루어졌을 뿐 아직까지 채색이 전혀 되지 않은, 정말이지 남에게 보이기 부끄러운 미완성의 무늬인 것 같다. 새로운 무인년에는 이제까지의 부족한 스케치를 완전하게 끝내고, 더욱 성실한 생활이라는 좋은 물감을 써서 멋지게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다.

무인년을 밝혀주는 붉은 태양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시작'이라는 이름으로 보다 나은 한해를 기약하고 또 계획할 것이다. 언제나 태양은 다시 뜨고 날은 밝아 오겠지만 나 또한 '시작'의 이름을 빌어 어제와는 다른 마음으로 한해를 엮어갈 것이다.

시작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다.”라는 말을 깊이 새기며 항상 새롭게 시작한다는 자세와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영위하리라 다짐해 보며,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본다. **등리**

97년 한 해를 보내며

최영학

원사/군수사령부 81수리창



울긋불긋 황홀하던 높은 산들의 낙엽들이 하나둘씩 떨어지고, 겨울을 알리듯 찬 바람이 코끝을 찡하게 한다. 벌써 97년이 어느 해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또 훌쩍 흘러가려는가 보다. 비록 나의 20년간 지내온 군생활에 비하면 이번 한해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올해는 나에게 있어 아주 특별한 해였다. 군생활을 하면서 좋은 일, 기쁜 일, 보람찬 일 등 나의 기억에서 지우기 싫은 좋은 인상들이 많이 남아 있다. 반면에 항상 좋은 일만이 함께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괴롭고 힘들고 지쳐 쓰러져 포기하고 싶은 그런 나날들이 올해도 나와 함께 했다.

특히 올해에는 주임원사라는 자리가 나에게 주어졌다. 이런 직책으로 인해 나의 97년은 특별한 각오를 가지게 했고, 성실과 필승의 신념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 특별한 각오 중에는 주임원사의 직책에 대한 책임과 임무완수에 대한 부분이 가장 컸었다. 어떻게 하면 영내 병들의 명랑한 병영생활 그리고 화합하는 모습

들로 이끌 수 있을까 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자 목표였다.

나의 군생활의 처음으로 돌아가 본다면 그저 말보다는 행동이 우선이었고, 그런 가운데 나의 몸은 남아나질 않았다. 누구나 그렇듯이 그 땀 하루라도 고분고분 넘어가는 날이 없었다. 물론 군대가 명령과 복종이 요구되는 곳이긴 하지만, 하급자에 대한 상급자의 무분별한 명령과 질책 등으로 상하 관계가 끈끈한 유대감을 맺기가 다소 어려울 때가 많았다. 그래서 '상급자와 하급자 간에 허울없이 명랑한 가운데서 군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의지가 나의 가슴 깊이 남아 있었다. 그런 의지가 지금의 나의 목표에 강한 힘을 자극하였다.

이런 목표와 고민을 하던 중 군수사령부에 O·R·I라는 검열이 있었다. 예전엔 O·R·I검열이 내려오기 전 몇달 전에 검열통보를 했었지만, 단순히 검열만을 받기 위해 당분간 준비하고 치우는 비효율성을 버리기 위해 단 몇주 전에 검열

'98년 새해에는

통보를 해 왔었다. O·R·I 검열을 받기 위해 군 수사는 예전보다 바쁜 일과를 보내야만 했고, 힘든 가운데 검열 연습을 받았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모두가 일치 단결하여 검열 준비를 하였으며, 검열을 받는 전날까지 연습에 연습과 준비를 거듭하였다. 물론 검열은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고, 모두의 노력과 협력으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검열을 받기 위해 영내병들이 단결하여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았고, 준비에 준비를 거듭하는 강한 의지도 볼 수 있었다.

물론 전우관 전쟁에서 느끼는 우정을 말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휴전상태. 각 사병들이 몸소 이런 전우애를 가지기가 힘들 것이다. 또한 영내 하사관과 사병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서로 뒹굴고 넘어지고 서로 호흡을 맞추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그건 바로 수리창 영내사병 체육대회. 축구, 소프트볼, 씨름 등의 경기를 가지는 동안 서로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단지 상급자와 하급자로서만 대할 수밖에 없었던 딱딱한 생활에서 탈피해 서로 허울을 벗고 함께 뒹굴 수 있는 시간이었다. 경기 후 뜨끈뜨끈한 오뎅국을 통해 따뜻한 전우애를 한번 더 느낄 수 있는 계기를 조성했다. 국을 서로 나누어 먹으며 정을 나누는 동안 서로 서로가 더욱 친숙하고 다시 근무에 들어가더라도 예전과는 달리 보다 가까운 상하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랐다. 다행히 예전보다는 달리 서로 친숙히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번 영내사병 체육대회는 성공적이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

올해의 나의 목표였던 구타근절을 주제로 한 연극대회가 열렸다. 근무를 서고 내무반에 들어가 피곤한 가운데도 대본을 만들고 날마다 연습

에 연습을 거듭하였다. 연극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소품.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해 연극에 필요한 소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다. 물론 사병들이 직접 구하지 못하는 소품에 대해선 기지 밖에서 구해다 주었다. 연기, 소품, 장치 등 하나하나가 완성이 되어갔다. 드디어 발표날, 우리 수리창은 2등과 1점차로 저 3등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번 연극은 몇등을 하느냐, 우리가 우승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았다. 옛날의 구타중심주의에서 탈피해 원만한 병영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일 것이다. 연극을 연습하면서 구타가 얼마나 나쁜 것인가에 대해 직접 피부로 느꼈을 것이다. 이번 연극을 계기로 수리창 병영생활에 구타라는 단어가 완전 뿌리가 뽑혀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절실했다.

‘그래 하급자는 상급자를 존중하고, 반면 상급자는 하급자를 이해하고 잘 이끌어 주는 명랑한 병영생활을 이룩하여라.’

수리창 영내사병 체육대회와 구타근절 연극을 한 수리창 영내사병들에게 굳은 신념을 확인하게 하는 또 한번의 행사가 치뤄졌다. 그것은 바로 환경심사대회. 영내병들이 병영생활을 하는 가운데 보다 깨끗하고 아담한 분위기에서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시설을 갖추는 것이 목표였던 환경심사대회는 나에게 있어 힘든 관문이었다. 내무반 구석구석을 깨끗이 하고 보다 아담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커튼제작, 그리고 테이블 제작 등 준비해야 할 여러가지가 쏟아져 나왔다. 심사준비를 하는 동안 영내사병 체육대회와 연극이 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주말을 이용해 천장과 벽, 문마다에 페인트 작업, 그리고 바닥 미사리와 정리정돈 등 모두가

하나 되어 심사준비에 정성을 쏟은 모습은 나의 가슴을 흐뭇하게 했다. 항상 생활하는 내무반을 보다 깨끗하고 아담한 내무반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평상시보다 더욱더 열심히 청소를 했음 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나에게 더욱 커다란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었다. 여러가지 제작물품이 뜻대로 쉽게 되지 않았으나 다행히 하나하나 완성되어 심사전에 모든 일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드디어 심사의 날이 찾아왔고 우리는 2등을 차지했다. 누구나 1등을 하고 싶은 욕망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서로서로 협력과 위로로 준비하는 우리 영내사병에게 1등을 안겨주며 위로를 해주고 싶었던만 안타깝게도 2등에 머물렀다. 그렇다. 분명히 사령관님 또한 모두에게 1등을 주고 싶으셨을 것이다. 사령관님께서 내무반 페인트 작업을 하다 페인트가 묻어 지지분해 버린 동체런복을 보시고는 새 체런복을 지급해 주셨다. 과연 노력에 대한 격려와 찬사를 이 동체런복으로 치하하셨던 것이다. 우리는 비록 1등을 하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사실은 준비를 하는 동안 수리창은 하나였다는 것이다. 연초에 세웠던 나의 목표는 환경심사를 통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심사후 사령부 주체로 사병의 날 행사가 열렸고, 사령부 이하 5개부창은 두개의 팀으로 나뉘어 여러 경기와 게임에 그동안 피롭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지우고 하루를 맘껏 즐겼다. 오후 모든 경기와 게임을 마치고 통전장에서 벌인 불고기 파티에서 사령관님을 비롯한 참모들은 모든 영내사병들과 한자리에서 건배를 함께 했고, 군수 사령부가 하나가 되어 필승의 신념으로 근무에 열중할 것을 다짐했다. 사병의 날 행사로 그 동안 환경심사를 준비하면서 쌓였던 피로를 모두 해소해 버린 날이 되었다.

아직 12월을 앞두고 있는 시간이지만 벌써 올해를 성공적으로 보냈음을 그동안의 일어났던 일들로 알 수 있다. 영내자들의 서로 협동단결하는 모습은 나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었고 서로 위로하며 노력하는 모습은 피곤함에 굳었던 나의 얼굴을 흐뭇하게 만들었다. 환경심사를 통해 수리창 내무반은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모두가 하나가 되어 협력과 단결을 이루었을 때 완벽한 임무완수에 충실할 수 있고, 혹 영내자들이 제대를 하여 사회에 진출하더라도 모든 일을 함에 있어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될 것이다. 과연 수리창이 이런 모습을 유지하고 더욱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이 찾아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나의 남은 임기동안 더욱 발전하는 수리창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항상 노력할 것을 굳게 결심해 본다. **중**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1997년을 뒤돌아보며

방 수 영

병장/방공포병학교 정훈실



“따르릉”... “따르릉”

“정훈실 방병장입니다. 통신보안. 앗! 실수...”

외박이나 휴가때 집에서 전화받을 때에 간혹 이런 실수를 할 정도로 어느새 군생활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커져버렸다. 밖에서 친구들을 만나도 대화 중에 나도 모르게 군대언어가 들어가곤 한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한 행동이나 말에 대해 친구로부터 군인은 어디가도 표가 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제는 군대 밖의 생활이 낯설게 느껴진다. 다시 말하자면 그만큼 군생활에 익숙해졌다고 생각된다. 나보다 군생활을 더 한 고참들 역시 제대후에 사회생활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한마디씩 하곤 한다. 이처럼 군대가 나도 모르게 내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다.

내가 전입오던 날, 5일후 제대하는 고참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이 기억난다.

“98년?! 그날이 오냐. 끔찍하다 끔찍해.”

나 역시 98년은 오지 않을 것 같았다. 생각할수록 막막하기만 했던 그때, 제대하는 고참이 이 세상 누구보다 부러웠다. 하지만 몇일 있으면 그렇게 기다리던 98년도가 시작된다. 제대하면 특별하게 할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 외에는 특별히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 역시 아무런 생각 없이 제대날짜가 기다려진다.

군대에서 보내게 된 1997년, 작년에도 군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올해와는 분명 다른 느낌이다. 작년에는 군생활에 적응도 잘 안되었고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를 때 보내어진 시간들이라 정신 없이 시간이 지나갔지만 올해는 군생활에 어느정도 적응도 되고 제대 후에 내 인생의 진로에 대해 생각할 기회도 많았다.

1997년, 상병과 병장이라는 계급장을 달고 보

냈고, 또 보내고 있는 이 시간. 돌아보면 너무나 허무하게 보였던 시간인 것 같다. 사람들은 연말이 되면 항상 그해에 대한 반성과 내년에 대한 목표를 세우곤 한다. 나 역시 올해에 대한 반성과 다가오는 98년에 대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

난 특별하게 잘 다루는 악기가 없었다. 그래서 올해에는 뭐가 한가지 악기만이라도 잘하고 싶었다.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기타였고 기타 잘치는 사람의 손놀림이 너무 멋져 보였다. 그래서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 꾸준하게 배우질 못했다.

마음은 에릭크랩튼인데, 몸은 마음처럼 되지 않으니 의욕이 떨어졌다. 그래도 군대에서 기타 하나 배워나가도 성공이라는 생각에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이 이제는 어느 정도의 노래는 소화해 낼 수 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한 것이 지금의 뿌듯함을 주는구나 싶어, 다음에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정진할 수 있을꺼라 나 스스로 다짐해 본다.

예전부터 TV에 자주 나오던 프로 중에 하나가 '동작그만' 과 '신고합니다.'이다. 이 프로들은 내가 입대하기 전 군대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게 했던 프로들이다. 군대는 참 재미있는 곳이구나. 그리고 나도 군대 가면 저렇게 하겠지라고 말이다.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군인이 된 지금 그 프로들을 보면 비웃음이 나온다. 말도 안돼, 저런게 어딴어? 라고 말이다. 군대란 가보지 않으면 군대에 대해 모른다. TV에서 비쳐지는 그런 군대

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군대생활은 하늘과 땅 차이이다. 분명 재미있고 즐거운 부분도 있지만, 속상하고 힘들 때도 참 많았다. 그렇기에 제대로 하면 뭐든지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는 것 같다.

공군 병장은 참으로 길다고 생각된다. 부대의 크형을 11개월이나 맡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즐거움과 후임병에게 병장으로서의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이 부담스럽기도 하다. 외박 때 동네어른들께서 내가 병장 계급장을 달고 집에 온 걸 보시고는 "아이고 수영이 군생활 다했네. 병장인걸 보니, 제대날짜가 언제냐? 라고 물어볼 때가 난 가장 당황스럽다. 공군병장은 11개월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이 잘 멎쳐지지 않아 매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하지만 올해 있었던 여러가지 일중에 국가의 어려움으로 국민의 마음이 참 무거웠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그리고 삶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었던 일이 있었다.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을 위해 우리의 마음은 하나이다라는 것을 알게된 계기가 바로 98프랑스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일 것이다. 아직도 한·일전을 생각하면 온몸에 전율이 올 정도로 가슴이 벅차다. 일본 원정경기에서 선취골을 내렸을 때 우리는 모두 아쉬움에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역사의 후반전. 경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동점골, 그리고 내무실 벽이 무너질 정도로 함성을 지르게 만들었던 역전골. 모두들 골을 넣은 선수의 이름을 외치며 내무실을 뛰어다녔다.

'98년 새해에는

난 그때 너무 기뻐 눈물이 날정도였다. 내무실원 전부가 그날밤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축구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느라 모두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 국적이 일본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자부심, 뿌듯함. 이 모든 것이 모두의 마음속 깊숙히 자리잡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국가를 위해 뭉쳐진 하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한민국 만세!!!!

올해도 작년처럼 설과 추석을 부대에서 보냈다. 난 장남이라 부모님께서 많이 서운해 하셨고 그러기에 죄송했지만 부대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차례도 지내고 연휴라 운동이나 쉴 수 있는 시간도 많아 참 좋았던 것 같다. 하지만 운동 좋아하는 고참이 너무 많아 연휴내내 축구하러 간다고 몸살이 날 정도였으니…….

97년도는 나 개인적으로는 역사적인 날이다. 드디어 성년이 된 해이기 때문이다. 올해 연말에 대선에도 최연소 투표권자로 나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나는 지금도 군대 안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 걸 보면 참 일찍 군대에 왔구나 싶다. 군에서 성년식하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았다. 내가 어리다는 것을 아는 후임병들은 내가 아쉬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나중에 제대하면 두고보자고 농담삼아 얘기하곤 한다.

하지만 정말 제대하고 나면 호칭에 많은 애로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그 예로 내무실 후임병 하나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거기다 아랫집 윗집 사이인데 나중에 제대하고 얼굴 볼 일이 참 많을 것이다. 문제는 그 후임병이 나보다 3살이 많다는 것이…….

사람들은 흔히 군인이라는 직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농담삼아 인기순위 2위하고 한다.

나도 처음 들었을 때 군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나 싶어 이상하게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답을 들었을때는 참으로 쓸쓸하기 그지없었다. 1위가 민간인?! 이라나, 그리고 가끔 3위로 밀리기도 한다고, 2위로 외계인?! 이라면서……. 올해 내가 들었던 말중에 대군 신뢰도를 높이자는 말을 많이 들었다. 사람들이 군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고 있기에 이런 말이 생긴 거라 생각된다. 애인이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고 나약한 마음에 탈영을 한다든지 느슨한 경계망을 뚫고 무장간첩이 침투한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뢰도를 떨어지게 만드는 일이 아닌가 싶다. 사나이 대장부. 군복무 하면서 화끈하게 국가와 민족을 지키다 제대하면 그게 멋진 사나이가 아닐는지…….

다사다난 했던 97년. 그렇게 빨리 지나갔으면 했던 97년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너무 빨리 지나가버려 두렵기도 하다. 처음 입대할 때 군대는 도피처처럼 느껴졌다. 공부도 안되고 머리 복잡할 일도 너무 많고……. 이런저런 이유로 남들보다 군입대를 빨리 했다. 군대가서 마음잡고 다시 시작해야지 하면서 말이다. 이제 정말 내 미래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될 시기가 된 것 같다.

98년을 바라보며 세워야 할 목표는 내 인생에 중요한 시기인 만큼 멀리 바라보며 목표를 세워야겠다.

한해를 가만히 돌아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머릿속을 스쳐지나가는 수많은 일들로 인해 즐

겹기도 가슴 아프기도 또는 아쉽기도 한 순간 순간들이 한편의 영화를 보듯 머릿속에 맴돌고 있다. 지금 나의 위치에서는 군생활의 마무리와 사회생활의 위밍업을 같이 해야할 시기라고 생각된다. 지금 현재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궁극적인 생각으로 군생활에 임한다면 아마 먼 훗날 아름다운 추억이 되리라 믿는다.

1997년에는 이런이런 일들을 해야지 하며 다짐했던 일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제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96년의 이맘 때처럼 98년의 목표로 다시 정해야 할 것 같다. 모든 일들이나 스스로와의 약속이고 다짐이었던 것들인데 만족스러운 결과가 되지 못한 것은 내 의지와 의 싸움에서 진 것이다. 내년 이맘 때면 난 군복을 벗고 사회라는 단체의 일원으로 내 위치가 바뀐다.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정신무장을 새로이 해야할 것 같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라는 말이있다. 내가 조금 더 높이 날아야만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인식하고 보다 더 높은 곳을 향해 조금씩 정진한다면 98년 아니 그후에도 내 인생에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믿는다. 내가 발전하지 않고 정지해 있는 것은 곧 후퇴함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들이 보다 나은 자신의 인생을 위해 전진하고 있으니 결국 후퇴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군대가 어떤 곳이냐고 간혹 묻는 친구들이 있

다. 그런 질문에 뭐라 딱 꼬집어 이리이러한 곳이라 설명하기 어렵지만 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군대란 비록 다른 성격, 다른 말씨와 다른 장소에서 살던 사람이 한곳에 뭉쳐진 공동체로 자신의 개성보다는 우리라는 공통점이 더 중요시 된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 군대는 나 혼자 열걸음 나가는 특별함보다는 열 명이 한걸음씩 나아가는 공동체 의식이 더 강조되는 집단이다. 여러 명이 하는 축구나 농구, 배구 등은 한사람이 잘 해서 그 경기를 이기는 경우는 없다. 팀웍이 바탕이 되어야 승리할 수 있다.

전쟁도 마찬가지라 생각된다. 나 혼자 스나이퍼처럼 아무리 총을 잘 쏜다 해도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그러기에 군대는 그 어떤 것보다 팀웍이 바탕이 된다고 생각한다. 군대란 이런 팀웍을 키워주는 곳이다. 올해 우리 부대는 여러 가지 행사로 팀웍을 다졌다.

훈련은 기본이고 각종 체육대회나 교육으로 말이다. 우리 부대는 규모면에서는 작다. 하지만 분명 다른 부대를 능가하는 최고의 팀웍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최강 부대! 이것이 우리 부대의 처음이자 마지막 목표인 것처럼 나 역시 최강부대의 일원으로 군 복무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저물어가는 1997년에 대한 반성과 다가올 1998년의 목표를 확고히 다져서 군인이라는 동급의 최강자가 될 것이다. **등문**

짧은 여행

김 미 연

7급/공군교재창



모처럼만의 짧은 여행이 있었다. 남들처럼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선뜻 떠나게 되는 여행이 아니라 2박 3일간의 외박제도에 힘입어 작지만 소중한 날들을 장식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다. 새삼스레 무슨 여행이냐고 하겠지만 혼자가 아닌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엮어가며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하듯이 그게 만만치가 않다. 특히 나의 경우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사회생활이라는 거대한 조직체 안에서는 누구나 초라해진 채 살아가지만 가끔은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또한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여행을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나니 괜한 흥분으로 몇주일 전부터 기차표 예매를 하고 부산스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기다리다 보니 초등학교 시절 소풍을 기다리는 마음 같다.

아침 일찍부터 나선 여행길.

가방 하나 메고서 기차에 오르니 흥가분해진 느낌이 든다. 모든 것으로부터의 탈출인가. 일상

에서의 탈출. 너무나 거창한 표현인가.

냄새다. 가을 냄새다. 푸른빛을 간직하려는 들 풀조차도 정겹고, 높아진 하늘 밑에서 추수의 뒤 처리를 야무지게 하는 농부의 모습도 좋다. 그래서 가을은 시적인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풍부함이 있다고들 하던가. 떠들썩한 기차 안에서의 재잘거림에 진한 삶의 체취를 맡는다.

언제던가. 일상의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싶은 때가 있었다. 밤기차에 몸을 싣고 내린 곳이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겨울바람에 어디 몸들 곳 하나 없었지만 옷을 추스려 찌꺼기를 토해낼 수 있는 공간은 충분했었다. 나만의 다짐이 오늘까지 오고 있으니, 여행이란 참 별란 의미를 가져다 준다. 옆자리의 할머니가 인절미를 선뜻 내민다. 세상이 정에 메말라 더 이상 갈 곳 없는 곳으로 간다고들 하더니만 그런 것만도 아니다. 아직은 잔잔한 정들이 남아 있는 듯 싶어 흐뭇한 웃음을 머금어 본다. 이런 저런 얘기에 벌써 도착지를 알리는 역무원 아저씨의 방송에 기다린

듯 가방을 둘러 메고 뛰어 넘듯 내린다.

여행의 목적지는 내가 살던 고향. 기억의 파문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그 곳. 유년의 추억이 집 마당에 시작하여 추수가 시작된 논가로 지나 동구밖까지 아련히 배어 있는 곳. 고향길을 향하는 마음은 언제나 설렌다. 역사와 전통을 지닌 학교를 다니느라 한시간 이상을 걸어다녔던 초등학교 시절. 왜 그렇게 멀어야 했는지……

학교 뒷마을에 사는 친구들을 그렇게 부럽게 생각하면서도 우리 부모님이 학교와 가까운 동네로 이사를 왜 안하는 건지 어린 마음에 원망도 했었다. 아마도 우리 동네가 가장 멀었을거다. 그런 탓에 운동회가 있는 날이면 달리기를 맡아 놓고 일등을 차지했는데 난 달리기를 잘 못해 달리기를 잘하는 친구를 보면 굉장히 부러웠었다.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난다.

늘 고향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져움은 아직도 평생의 농부임을 자처하시는 부모님이 따스한 웃음을 전하며 살고 계시기 때문이리라.

지리한 장마끝의
햇살처럼
환한 미소를 지어낸
구리빛의 얼굴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내 농토 앞에
선뜻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아온 어언 육십여년 세월

호미끝에서조차도 땀이 배어
눈물조차 말라버려야 했던
그 때에도

녀석들 키워

내 고생 물려주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인고의 나날들이었다.

꼬깃꼬깃 숨겨두었던
지폐 몇 장
집어줄 것 없는 인생살이
그 끝에서도
패어버린 주름이건만……

아비, 어미란 이름으로
오늘도 그렇게들
산단다.

〈부모〉

유난히 크게 느껴지던 마을 앞 당산나무, 내 그리움의 언저리에 자리해버린 제일 높은 대룡산. 아직도 그곳은 제자리에 그대로인데 변한 건 나뿐이다. 일상에 젖어가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 기에는 영 자신이 없다. 그런 나를 불러 세워 속삭인다. 힘을 내라고. 그래, 힘을 얻는다.

새로운 다짐으로 시작했던 97년도. 일년이라는 긴 시간을 내 것으로 소화해내고 싶었던 욕심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계절 앞에 서니 아쉬운 마음만 깊다. 계절은 깊어가고 다시금 반성의 기회를 갖는다. 새로운 다짐이 비록 최고는 못될지라도 그것을 향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다면 세상은 좀더 밝아질 수 있으리라 믿는다. 내 짧은 여행이 재충전을 위한 작은 몸짓이었듯이 며칠 남지 않은 시간들, 좀더 강한 체력을 가해야 할 때다. 마지막 발돋움이 최고의 승자가 될 수 있으리라 여기며 고향이라는 거대한 백을 뒤로 한 채 새해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을 것 같다. **등단**

사관학교 생도용 의자 이야기

이 태 식
공군 예비역 소장



1985년 12월 우리 공군사관학교가 서울 대방동 보라매 공원 자리에서 지금의 청주 성무대로 이전하고 나서 전국의 여러 학교와 타군 사관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왔었는데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부러워했던 것이 한 가지 있었다. 그것은 수십만평에 이르는 넓은 부지와 수립이 우거진 주변 경관도 아니고 초현대식으로 지은 건축물도 아니었다. 대부분의 견학자들은 학과장과 내무반에 있는 생도용 책상과 의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공부하는 젊은 학생들의 취향에 맞추어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한 책상과 의자는 당시의 대학수준으로 볼 때 최고의 교육환경이라고 호평을 받았다. 다른 한편에서는 군표준 가격수준을 넘는 고급품처럼 보이기도 하여 너무 호화롭다는 말도 있었다. 특히 생도용 의자는 성장기 학생들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서 만들었다고 선전하는 하이팩 의자인데, 당시에는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한 지 얼마 안되어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이었다. 실제로 지금까지

10여년 이상을 사용해 본 결과 학생용 의자로서는 가장 이상적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견고하여 훼손율이 매우 낮은 제품임이 증명되었다. 구입을 결정했던 당시의 자세한 가격은 잊어버렸으나 군표준 의자의 가격과 비교해서 거의 4배가 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오늘 새삼스럽게 사관생도용 의자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군의 고급간부로서 작은 정책이라도 계획을 수립할 때 틀에 박힌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넓고 크게 멀리보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옛날 얘기를 꺼내게 되었다.

85계획에 의해서 대방동 구사관학교 부지를 서울시에 매각하고 청주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공군으로서는 대단히 큰 사업이었다. 학교를 새로 건설하는 일은 건설회사에 맡긴다 하더라도 새로운 기지로 이전하는데 따른 준비는 실로 방대한 업무가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계획의 일부로서 생도용 책상과 의자를 신규

로 확보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었는데 그 당시에 처리했던 결과를 10년이 넘는 지금에 와서 보아도 참 잘했다고 생각되어 그 때 있었던 뒷이야기를 이제는 해도 괜찮을 것 같아 털어 놓는다.

요즈음도 마찬가지로겠지만 비품 확보를 위한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편성심의를 거쳐 국방부와 재경원이 확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단계를 넘어 예산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비품을 구매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었다. 하여간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비품을 선정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였다. 우선 학과장 책상에 대해서는 기존의 대학 강의실용을 모델로 하여 몇 가지 디자인을 가지고 사관학교의 개선요구를 받아 시제품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을 선정해서 최종 결정을 보았다. 이때 달라진 것이 모자를 책상내부에 걸수 있도록 디자인한 것이다. 전에는 책상 측면 밖으로 걸게되어 옆으로 지나가면서 건들이면 바닥에 자주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개선시킨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의자선정 작업에서 곤욕을 치루었다. 의자선정은 특별히 어려운 것이 기존의 시중제품에서 결정하면 쉬울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의외로 까다롭고 말도 많았다. 학교측에서는 20여가지의 샘플 제품을 갖다 놓고 교관과 생도들로부터 선호도를 조사하였는데 예산수준에 맞는 제품은 모두 다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호하는 것이 제각기 달라 결정을 못내리고 차일피일 날짜만 보내고 있었다. 사관학교 이전 시기에 맞추어 납품받기 위한 구매계약 최종시일은 다가오는데도 선정보고는 없고 조달계약부서로부터는 매일같이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총장께 직접 보고드려 결정하는 것이 신속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어느

날 퇴근 무렵에 샘플의자들을 모두 트럭에 싣고 공군본부(당시 공본은 대방동에 있었음)로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총장실 앞에 의자들을 죽 늘어놓고 총장님이 퇴근하려고 나오시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 자리에서 의자들의 특성과 가격을 설명드린 결과 “생도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오래도록 끌어왔던 문제를 일순간에 해결을 본 것이다.

당시에 생도들은 최신의 하이백 의자를 대부분 선호하였는데 가격이 워낙 고가이다보니 학교의 입장에서는 그 의자가 좋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확보된 예산만으로 구입한다면 총소요의 1/4수량밖에 확보할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견고하지 못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어쨌든 총장님 지시에 따라 하이백 의자로 쉽게 결정은 보았으나 그 다음의 당면문제는 늘어난 예산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봉착하였다. 이미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획득하는 대로 확보하면서 그동안 기존에 사용하던 의자들을 추려서 쓸 것인가? 아니면, 다른 비품구입을 뒤로 미루고 전용해서 쓸 것인가? 등등 담당 참모로서 여러 가지로 해결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던 차에 뜻밖에 시설계획 참모 한대령으로부터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일시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 아이디어는 학과장내의 책상과 의자를 고정 시설물로 볼 것인가 또는 유동 시설물로 볼 것인가에 따라 건물 건축비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었다.

비품비는 건축비에 비하면 극히 적다. 결국 신속하는 학교의 학생용 책상과 의자는 고정 시설

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가지고 시설비에 포함시켜 집행한 것이다. 만일 유동 시설물로 고집했다면 비품비 항목으로만 집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했더라면 학교이전 후 여러 해동안 교육운영에 많은 불편을 겪었으리라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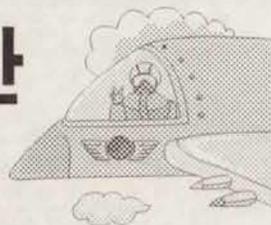
지금도 당시의 일을 생각하면 용기있고 과감했던 시설참모 한 대령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예산집행 절차나 여러 사례집을 모두 찾아보아도 고정 시설물로 해석한 예는 없었다고 하니 그의 용단이 참으로 훌륭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무릇 참모는 지휘관의 의도에 충실하면 되다고 하나 때로는 지휘관 못지 않은 결단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도 있다.

특히 우리 공군과 같이 전문화된 기술군에서는 지휘관과 참모 간의 역할구분이 선명치 않은 업무가 허다하다. 업무처리하는 규정과 절차에 있어서도 거기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적인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전한 상식과 경험,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의지력이 다분히 작용한다고 보아야 한다. 아마도 한 대령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예라고 본다. 그는 진정으로 훌륭한 참모였다.

중근

공/군/논/단



- 전쟁 양상의 혁신
- 항공기의 운항과 환경문제 2
- 제3차 중동전쟁

전쟁 양상의 혁신

권영근 역

중령/국방정보체계연구소



역자(譯者) 한마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는 군사혁신에 대한 열기가 드높다. 오늘날의 군사혁신은 정보기술이 주도하고 있다. 「군사혁신으로 전쟁 양상이 혁신적으로 변모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소개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첫째, 향후 얼마 동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군사혁신을 활용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뿐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오늘날의 군사혁신이 우리의 현실인 것인 양 착각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둘째, 우리의 주변국들도 오늘날의 군사혁신에 편승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향후에 우리 군도 진행되고 있는 군사혁신에 동참하고자 한다면, 군은 교육을 중시하고, 정보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군의 조직을 개편하며, 합리성과 이성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고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군사혁신은 컴퓨터와 데이터통신 기술 분야가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다. AWACS나 SSTAR와 같은 정밀감지체계를 통해 적의 표적을 감지하고, 감지된 표적을 첨단 지휘통제체계(C4I)를 이용하여 분석 및 판단하며, 판단된 결과를 항공기 또는 미사일과 같은 정밀 유도무기를 운반하는 체계에 실시간에 전달하여 「청천 하늘에서의 날벼락」과 같은 공격을 감행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의 군사혁신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첨단 C4I체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문제는 탱크나 비행기를 획득하는 경우와는 달리, C4I와 같은 정보 능력은 군 외부에서 구입할 수 없다는 점이다. C4I체계란 군의 「싸우는 법」을 자동화 한 것이고, 이들 싸우는 법은 해당 군에서 운용 중인 무기의 유형, 전술과 전략, 군 구조, 인력체계, 훈련 및 교육체계 등에 의해 달라지기 때문에 한국의 육, 해, 공군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C4I체계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군이 주도적으로 개념을 정립하고, 민간의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개발해야 한다. 상위 개념(전략, 전술 등)을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군의 능력, 그리고 이들 개념을 구현하는 한국의 소프트웨어 기술 능력이 어느 정도 인가에 따라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C4I체계의 정도가 결정된다. 오늘날 자국이 사용할 C4I체계를 건설할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 몇 나라 없다. 본문에서 저자가 「정보기술이 주도하는 오늘날의 군사혁신을 제대로 향유할 능력이 있는 나라는 미국 뿐이다.」라고 말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우리의 주변국도 정보기술에 의한 군사혁신을 이룰 것이다. 따라서, 우리군의 군사혁신은 국가의 생사에 관한 문제이다. 군은 이에 대비하여 교육을 중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민간의 소프트웨어 기술 능력이 함양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손쉬운 C4I체계부터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개발되는 체계의 정도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군의 상위 개념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

지난 십여년간, 미 국방 기획가들은 보통 「군

사 — 기술 혁신 (Military Technical Revolution)」이라 지칭되는 「군사혁신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²⁾이 곧 다가올 것이라고 예견해왔다. 이는 미 국방 조직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대 변혁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이들 혁신으로 군이 대폭 감축되고, 기존의 군 조직이 붕괴되며, 새로운 조직이 탄생될 뿐만 아니라, 현 군 구조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면서, 연구개발 분야의 예산이 크게 증편될 가능성도 있다.

이들 군사혁신으로 군의 모든 분야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크루즈 미사일과 무인 항공기들이 전투기와 탱크를 대신하여 군사력을 평가하는 핵심요소가 될 것이다. 사단, 함대, 비행단과 같은 오늘날의 군 조직은 사라지고 매우 색 다른 형태의 조직이 탄생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군의 형태가 바뀔에 따라 새로운 분야가 탄생하고,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군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사람의 유형도 바뀌게 될 것이다. 새로운 유형의 군사엘리트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전투조종사와 탱크 요원이 아닌 「정보전사 (Information Warrior)」³⁾ 집단에서 다수의 군 지도자들이 배출될 것이다.

1. 역자 : 공사 26기(電算學박사), 경력 : MCRC 전산실장, 공군사관학교 전산학과 교수, 공군 중앙전산소 통제실장, 공사 조종사 적성연구 실장, 연대대학원 강사, 1996년 이후 국방정보체계연구소 근무
Eliot A. Cohen, "A Revolution in Warfare", Foreign Affairs, Volume 75 No. 2, pp 37-54, March/April 1996. 저자 : 존스홉킨스 대학 전략학 교수
2. 역자주 : 군사혁신이란 새로운 기술을 혁신적으로 적용하고, 군사 교리, 작전 및 조직 개념을 갱신하여 군 작전의 성격과 행위를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전쟁의 본질에 일대 변화를 유발하는 행위, 오늘날의 군사혁신은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 데이터통신과 컴퓨터」이 주도하고 있음.
3. 지휘통제체계(C4I)와 같은 정보 능력을 건설하거나, 헤커와 같이 상대방의 정보능력을 공격하는 자 또한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아축 정보능력을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자

이와 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은 군에 혁신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자신들의 견해를 입증하기 위해 역사적 사례를 인용하고 있다. 따라서 역사적 사실이 이들 주장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가를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

「백년 전쟁(A Hundred Years of War) : 1850-1950」이란 1953년의 저서에서 아래와 같이 기술한 시릴 폴스(Cyril Falls)의 견해에 의견을 표명하는 군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군 현상을 분석하는 자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대의 전투 양상이 과거와는 획기적으로 다르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들 주장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전쟁 수행 방법이 불연속적⁴⁾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가정은 군 관련 기술 및 전술에 관한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이다.

변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신중한 군 역사가 또는 군인이라면 혁신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자들을 의구심을 갖고 바라보기 마련이다. 군 관련 기술이 담보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예를 들면, 18세기 포신과 이들 포를 운반하는 수단을 약간 개선하고 포의 구경을 표준화하면서 프랑스 혁명군과 혁명을 저지하고자 하였던 주변의 제국군대가 발사하는 포의 양이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반면에, 오늘날 전쟁에서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허

구적인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면, 1991년의 걸프전에서 사용된 「지능이 있는 포탄(Smart Bomb)⁵⁾에 대해 언론이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그러나 그 당시 사용된 포탄의 대부분은 1950년대의 기술로 생산된 비유도 무기이며 이들 무기를 운반한 전투기도 1960년 또는 70년대에 개발된 것들이다. 사실이 그러하건대, 미국이 군사혁신의 와중에 있다는 주장은 어디서 연유한 것일까?

오늘날의 군사혁신을 맨 처음 목격한 것은 러시아인이다.

컴퓨터와 데이터통신 분야의 혁신적인 발전이 오늘날의 군사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1980년대 초, 당시 소련의 총참모장(Chief of General Staff)이었던 니콜라이 오가로프(Nikolai Orgarkov) 원수를 중심으로 한 미래전 평론가들은 새로운 「기술혁신(Technical Revolution)」 개념을 발전시켰는데, 이들 개념을 활용하여 출현 가능한 재래식 무기의 성능은 규모가 작은 전술 핵무기에 결코 뒤지지 않았다. 수백 마일 떨어져 있는 곳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기갑부대를 최초 발견 후 30분 이내에 자체 유도되는 대전차용 미사일을 이용하여 공격이 가능하다는 개념이었다. 서 유럽 전쟁에 대비한 소련의 군사전략은 전진 배치되어 있어 대량

4. 역자주 : 군사혁신이 일어나는 시기에는 전쟁행위가 불연속적으로 점프한다. 즉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전쟁이 수행된다.
5. 역자주 : 센서와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 있어, 마치 인간이 두뇌를 이용하여 순간 순간 판단을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황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포탄.

의 탱크와 기갑부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의 입장에서 보면 미래가 암담해 보였다. 소련의 개인용 컴퓨터 제조능력은 뛰어난 편이 아니었다. 따라서,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⁶⁾이 주도하는 이와 같은 유형의 「무기 경쟁(Arms Race)」에서 앞서갈 수 없다』라고 소련인들은 생각하였다.

소련이 정립한 군사—기술혁신 개념은 미 국방부와 국방장관실의 「망 평가 부서(Net Assessment)」를 통해 서방으로 전파되었다. 소련인들이 구상한 군사혁신은 지나치게 협의의 개념이었다. 그들은 중부 유럽이라는 단일의 전구에서 벌어지는 단일의 전투 형태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무기와 기술에 역점을 두었다. 따라서 조직이 전쟁에 미치는 효과는 등한시하였다. 미 군사 기획가들로 하여금 『군사혁신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개념이다』라는 점을 절실히 깨닫게 한 것은 1991년에 수행된 걸프전이었다.

항공력을 옹호하는 자들은 「1,2차 세계대전 사이의 기간 중에 구체화된 항공작전이 추구하였던 이상」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기술이 걸프전에서 선보였다고 호언하였다. 『혁신적인 기술에 힘입어 지난 50여년간 기다려 왔던 그 순간, 다시 말해, 항공력이 전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된 순간이 도래하였다.』라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러나 전쟁 수행방식의 측면에서 보면, 걸프전은 초기 항공전 이론가들이 구

상하였던 작전 형태와는 거의 관계가 없는 듯 보인다.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한 통신체계를 파괴하고 광범위한 작전을 수행하면서도 인명에 전혀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군사 이론가는 1920년대에 없었다. 「현대전에서 항공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점을 걸프전이 입증한 것은 사실이지만, 걸프전은 미국에 매우 유리한 조건하에서 진행된 전쟁이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소련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준비한 훈련받은 군인들을 미국은 걸프 지역에 투입하였으며, 모든 군사 및 재정적 지원을 받은 상태에서 이상적인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여 항공작전을 수행하였다. 『항공력을 이용한 군사혁신이 걸프전에서 선을 보였는가』에 의구심을 표명하는 군사 평론가들도 있다.

세번째 유형의 군사혁신 개념은 미군에서 나왔다. 미 합참차장이었던 오웬 제독은 「복합체계로 구성된 체계(System of Systems)」를 구상하였는데, 이는 인공위성에서부터 탑재레이더, 무인 항공기에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음향 탐지장비에 이르는 다양한 유형의 센서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들 자료를 컴퓨터로 처리하여 생산된 정보(Information)를 사용자들에게 적시에 적합한 형태로 공급한다는 개념이었다. 따라서 항공탑재레이더 또는 인공위성에서 제공하는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수십 마일 떨어져 있는 탱크를 헬리콥터가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사혁신에 대한 세번째 시각은 전쟁 지역에 무관하게 방대한 양의 정보를 수

6. 역자주 : 컴퓨터와 통신관련 기술

7. 역자주 : 임의의 체계가 실시간에 반응한다 함은 미리 정해진 시간내에 반응함을 의미한다.

집, 처리하여 실시간⁸⁾에 활용할 능력을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개념이다(오웬 제독은 200mile * 200mile 지역 내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에 감지하여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복합체제로 구성된 체계라는 개념을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 본 것은 지상군이였다. 『크라우 제비치가 지칭한 「전쟁의 불투명성(Fog of War)」을 기술을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을 가졌으며, 『적이 자 군을 은폐하거나, 자신들을 관찰하는 「정보체계(Information System)」⁸⁾를 공격해 오면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하고 반문하였다. 복합체제로 구성된 체계란 개념이 처음 제기된 해상 전투에서조차,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의 특성으로 오웬이 제창한 200mile * 200mile 지역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항을 간파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오웬 제독이 제창한 세번째 유형의 군사혁신은 기술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의 이면을 경시하고 있다. 오웬이 제창한 개념은 아직까지는 이상에 불과하며, 「여타 국가들이 미국의 정보체계를 조직적으로 공격하여,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한다」라는 점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군사혁신을 소련인의 시각, 항공력 그리고 오웬이 제창한 개념이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바라 보았는데, 오늘날 벌어지는 변혁을 이들만으로

모두 설명 가능한 것은 아니다. 「군사혁신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전쟁 영역(Domain of Warfare)밖에서 작용하는 강력한 힘이 군사혁신의 성격을 좌우할 가능성도 있다. 군사혁신의 결정판은 조직의 변화를 통해 가능할 것인데, 조직의 변화 중 일부는 수십년 전에 시작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조직의 변화를 통해 군사혁신이 가능하다는 점을 역사를 통해 살펴보자.

군 외부요소에 의한 혁신

전쟁에 내재되어 있는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일으킨 결과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경우가 종종 있었다. 군 내부에서 추진한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핵 혁신(Nuclear Revolution)」이 일어났다. 우주탐사가 가능하게 된 이면에 민간 분야에서 진행된 요소들이 다수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나 초창기 우주탐사를 주도한 것은 군이었다. 「잠수함을 전쟁에 이용(Submarine Warfare)」하면 전반적으로는 열세한 해군력을 보유한 군도 막강한 해군력을 보유한 군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데, 이들 개념도 군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전쟁 행위를 변화시키는 주도적인 요인들이 정치 및 경제 분야에서 유발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정치 및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전쟁 수행 방식이 변화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8. 역자주 : 정보체계란 정보를 수집, 처리, 저장, 전송, 전시, 배분 및 활용하기 위한 기반체계, 조직, 인력 및 구성요소들로 정의된다. 정보체계에는 컴퓨터, 통신 기기 그리고 응용소프트웨어들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인간)조직을 지원한다.

19세기에 있었던 전쟁 양상의 대 변혁은 오늘날의 전략가들에게 암시하는 바가 적지 않다. 『프랑스혁명 초기 오스트리아와 프러시아는 프랑스와 적대 관계에 있었는데, 이들 두 국가는 18세기에 이미 유럽에서 보편화되어 있던 「제한전(Limited War)」을 전개할 생각이었다』라고 크라우제비치는 그의 저서 「전쟁론(On War)」에서 적고 있다.

이들 양국은 『제한전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점을 곧 깨닫게 되었다… 『프랑스 육군은 매우 형편없을 것이다』라고 양국은 생각했었다. 1793년 프랑스군은 상상을 불허 할 정도로 막강하였다. 국가의 모든 국민, 다시 말해 3000만 프랑스 시민들이 총동원되는 전쟁이 되었다… 동원 가능한 자원의 측면에서 상상을 불허하였다. 전쟁 양상이 격렬해 지면서 프랑스를 공격하던 이들 국가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전 국민이 동원 대상이 됨에 따라 병력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의 내구력도 크게 보장되었다. 프랑스혁명 군이 승리하게 된 비결은 새로운 기술을 전투장에 적용하였기 때문이 아니었다. 징집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장하여 지속적으로 전선에 추가 병력을 투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군이 대규모화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전쟁 양상을 혁신적으로 변모시키는데 민간 분야의 기술 발전이 일조하였다. 소총이 대량 생산되면서 19세기에 군 전술이 매우 복잡해졌다. 철도와 전신기가 출현하면서 전쟁 양상이 더욱 변화를 보였다. 수 주 이내에 대규모 군대를 한

전구에서 다른 전구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 사례는 남북전쟁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북군은 철도를 이용하여 25000여 병력과 다수의 야포 및 화물을 버지니아에서 출발하여 1100마일 떨어져 있는 테네시의 차타누가(Chattanooga)로 12일도 채 안되는 기간에 이송하였다. 다수의 군을 철도로 운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전초 군 동원을 어느정도 신속히 할 수 있는가가 군 조직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전신기의 출현으로 군과 정부뿐 아니라 신문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전신기로 인해, 상호 협조가 용이해지면서 군의 동원이 신속해졌을 뿐 아니라 대규모 군부대를 한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전선의 상황을 신속히 전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시에 민간간 갈등이 유발되었다. 예를 들면, 신문이 대량으로 유포되면서 전선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국민들이 곧 바로 인지할 수 있게 되어 국가의 정책 결정권자들이 곤혹스러워하는 경우가 생겼다. 전신기는 정치 지도자들이 야전의 장군과 대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으며, 정치가들은 이들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남북전쟁 당시, 북군은 15000마일에 이르는 전신선을 설치하여 군용 전신체계를 구축하였는데 이들 체계를 민간 조직이 관장토록 하였다. 당시의 「전쟁장관(Secretary of War)」 에드윈 스탠톤(Edwin M. Stanton)은 전신선이 휘하의 장군들에게는 연결되지 못하도록 막았다. 전선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정치가들이 아는 정도에 따라 간섭하는 횡수가 증가한다』라고 북군의 장군들은 생각하였다. 다수의 단위 국가로 분열되어 있던 독일을

통일하기 위한 전쟁을 지휘하면서, 야전군 원수인 몰트케(Helmuth Graf von Moltke)는 비스마르크가 자기 휘하의 부하들에게 전보를 이용하여 전쟁에 대해 조언하는 행위를 보면서 북군의 장군들이 생각했던 바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따라서 전신선을 타고 외부에서 군부대로 정보가 자유스럽게 흘러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오늘날 군사혁신은 19세기의 경우와 같이 민간 분야에서 유래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두 분야의 발전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 그 첫번째는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인데, 이들 기술에 의해 경제 및 사회가 대변혁을 겪고 있다. 군 조직에 정보기술이 미치는 효과는 지대하다. 적 표적을 향해 자체 유도되어 날아가는 「능력이 있는 무기」가 개발될 수 있었던 것도 정보기술 때문이다. 정보(Intelligence) 수집 수단이 다양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능 또한 크게 향상되고 있다. 한편 수집한 다량의 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용자들에게 신속히 분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들 또한 「정보혁신(Information Revolution)」이 없었다면 전혀 불가능했을 것이다. 금융시장에서 정보(Information)는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뉴욕의 증권거래소에는 다량의 정보를 수집, 처리 및 전파하는 체계가 있다. 이들 체계를 살펴보기 위해 다수의 해병대 장군들이 뉴욕 증권거래소를 방문한 적이 있다.

두번째 요소는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 자본주의가 극도로 번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서방 국가들조차 국방에 막대한 예

산을 투자하였으며, 군이 필요로 하는 사항과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방대한 조직을 만들었다. 「탈산업화시대(Postindustrial)」인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정부 소유의 방위산업을 민간에 매각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적 현상이다. 또한 군의 고유 기능을 민간에 이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아이티와 소말리아에서 미군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병참활동의 대부분을 민간 업체들이 담당하였는데, 이는 한 예에 불과하다. 오늘날에는 누구나 상용의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고화질의 영상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얼마 전만 해도 강대국들만이 누리는 특권이었다. 상황이 이처럼 급변함에 따라 군은 통신 및 정보 수집체계 관련 개발 투자는 줄이고, 상용의 체계를 보다 많이 이용하게 되었다. 한편, 냉전이 종식됨에 따라 군수 시장이 개방되었다. 따라서, 돈만 있으면 군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첨단 무기를 운영유지하는 전문 인력도 돈만 주면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다. 과거에는, 민간 분야에서는 자본주의를 고수하면서도, 군 관련 분야에서는 이들 능력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극도로 노력하여 왔다는 측면에서 사회주의적 색채가 농후하였는데, 오늘날에는 더 이상 이것이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오늘날 군사혁신의 진면목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점을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군사혁신으로 전투 양상이 변하게 될 것인가? 군 구조가 변하게 될 것인가? 새로운 형태의 군 엘리트들이 등장할 것인가? 국가간의 힘의 역학 관계가 변하게 될 것인가? 이들 하나 하

나를 면밀히 살펴보면 느끼는 감정은, 전쟁 양상에 대 변혁이 전개되는 문턱에 와 있다는 것이다. 변화의 양상이 어떠할 것인가는 확실치 않으나, 대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듯 하다.

전투의 형태

전투 형태의 측면에서 일대 혁신이 일어난다 함은 공격과 방어, 시간과 공간, 화력과 기동간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됨을 의미한다. 항공모함을 중심으로한 전투 형태가 출현한 것은 그 한 예이다. 전투함 중심의 시대에는 가시 거리 범주 내에서 전투가 수행되었다. 전투대형을 엄격히 유지하는 일련의 함정들이 거포를 이용하여 상대방 측을 공격하는 형국이었다. 항공모함이 등장함에 따라, 수백 마일 떨어진 위치에서 상대방 함대를 공격할 수 있게 되었는데, 공격수단은 항공기 군단이었다. 『전투 비행단이 출현하면서 짧은 순간에 어느 측이 보다 많은 화력을 퍼부을 수 있는가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가 되었다』라고 웨인 휴즈(Wayne Hughs)는 1986년에 출간한 「함대 전술(Fleet Tactics)」이란 책에서 밝히고 있다. 19세기 후반에는 「화력에 의한 혁신(Firepower Revolution)」이 일어났는데 라이플 총의 출현, 무연(無煙) 탄약, 후장식(Breechloading), 그리고 탄약통을 철제로 교체함에 따른 무기의 발전이 주 요인이었다. 요약해 말하면,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는 단위 면적당 병사들이 밀집되어 있는 정도가 매우 높았는데 오늘날에는 매우 희박해지고 있다. 따라서 거의 200여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전형적인 전술인 「대량의 무리들이 때를 지어 움직이는 형태」는 사라지고 소규모의

병사들이 짝을 지어 이동하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AWACS 또는 JSTARS와 같은 첨단 감지체계를 이용하여 적의 표적을 확인하고, 확인된 표적을 정밀유도무기로 공격하여, 100% 파괴할 수 있게 되었다.

전투 형태도 이와 못지 않게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다. 오늘날의 전투장에서는, 『확인된 물체는 공격 가능하며, 공격한 물체는 100% 파괴 가능하다』라는 것은 이미 진부한 표현이 되었다. 20세기초에는 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적 보병에 대해서만 이와 같은 표현을 적용 할 수 있었다. 오늘날에는 전선에 배치된 적 장비뿐 아니라 후방에 위치한 적 지원군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개념이 되었다. 항공기와 미사일을 이용하여 운반 가능한 장사정 정밀 무기와 원격 조정 가능한 「지능이 있는 지뢰(Intelligent Mines)」가 출현함에 따라, 현대화된 군은 이동 중에 있는 대규모로 중무장한 군에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동 중이 아닌 고정된 물체도 공격에 매우 취약해졌다.

1991년 쿠웨이트와 이라크의 사막에서 동맹군의 육군이 대규모로 짝을 지어 기동한 바가 있다. 이는 19세기에 기마 부대들이 생존을 위해 최후 몸부림을 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화력이 크게 보강되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미래전에서는 기동 또는 대형을 정비하는 것과 같은 장기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의 행위는 감소할 것이다. 반면에, 최첨단의 무기와 이들의 운반 수단인 항공기 또는 미사일 등을 이용하여 공격하는 형태가 증가할 것이다. 우주에 위치한 정찰체계, 그리고 무인항공기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항공력을 대부분의 국가들이 보유하게 되면,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무장한 대규모의 병사를 이동하거나, 후방 지역에 대규모 탄약 지원을 건설하는 행위는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다.

19세기 중반에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전투의 승패는 양측이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Platform) : 비행기, 탱크 또는 함정 등의 유형」이 무엇인가에 따라 좌우되었다. 상대방 보다 우수한 비행기, 탱크 또는 함정을 보유하게 되면 상대방을 쉽게 제압할 수 있었으며, 이 경우 상대방 장비들은 폐품 처리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만은 않았다. 예를 들면, 18세기 중엽부터 1830년대까지 해양과 관련된 기술은 거의 변함이 없었다. 넬슨 제독은 1805년 트라팔가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들 승리를 뒷받침 해준 함정은 1759년에 개발이 시작되어 1765년에 진수되었으며, 그 진가는 1835년에 발휘되었다. 다시 말해 처음 진수되어 그 진가를 제대로 발휘하기까지, 70여 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스팀 엔진과 금속을 활용한 함정이 등장하면서 상황은 급변하였다. 어느 측이 최신의 전투함을 건조하는가에 따라 「해양 우세(Naval Superiority)」가 뒤바뀌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기술을 적용하는 즉시 그 효과가 나타나는 시대가 되었다.

오늘날은 상황이 급변하는 시대이다. 전쟁의

결과에 플랫폼이 미치는 효과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플랫폼 내에 내장되어 있는 센서, 탄약 그리고 전자장비 등의 품질 정도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출현한지 30년이 경과된 노후한 기종이라 할지라도 최신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공중 조기경보기로부터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으면 출현 한지 10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무장과 유도의 측면에서 뒤쳐진 비행기를 격파할 수 있게 되었다. 지능이 있는 장거리 정밀 유도무기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는 처음 일격이 매우 중요하다. 1991년의 걸프전에서는 첨단 항공기를 이용한 공격으로 개전초 몇 시간도 안되어 이라크의 방공체계가 붕괴되었는데, 이는 처음 일격이 전쟁 승패에 결정적 영향력을 발휘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누가 먼저 공격할 수 있는가가 전쟁의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칼로 무장한 기사들이 수십 야드 떨어진 위치에서 근접해 오는 경우에는 누가 먼저 칼집에서 칼을 빼는가는 격투의 결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이들이 총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더욱이, 선제 공격의 성격도 변할 가능성이 있다. 컴퓨터체계들에 대한 사보타지와 같은 정보전(Information Warfare)이 새로운 전투 유형으로 부상함에 따라, 은밀한 유형의 선제 공격이 대두할 것이다. 미국과 같이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사회는 이와 같은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 정

9. 역자주 : Alvin Toffler은 「전쟁과 반전쟁」이란 그의 저서에서 전쟁 양상은 그 시대의 생산 수단을 반영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쟁 양상을 제1물결(농경시대), 제2물결(산업화시대), 및 제3물결(정보화시대) 형태로 분류.

보전은 탱크, 비행기, 함정에 의한 제2물결⁹⁾ 형태의 공격과는 달리 미 국민과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으며, 미사일이나 폭격기와 같은 장거리 공격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국가의 전력을 크게 보완해 주는 수단이 될 것이다. 「정보체계 공격을 시점으로 시작되는 정보전이 어떻게 전개 될 것인가」가 현재로서는 매우 불확실하다.

군의 조직 구조

전쟁에 혁신적인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에는 비행기, 탱크와 같이 전투에 직접 사용되는 도구 외에 조직이란 요소가 있다. 기갑전에 의한 군사 혁신이 탱크가 발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발된 것은 아니며, 탱크를 가장 많이 확보한 국가가 그 능력을 가장 잘 활용한 것도 아니었다. 전격전(電擊戰)의 개념은 풀러(J.F.C. Fuller)가 독일에 대한 최후 공격을 계획하면서 영국 육군을 위한 「기획 1919(Plan 1919)」를 구상한 1918년 초에 이미 나와 있었다. 그러나 군이 전격전 개념을 실행에 옮기는 데는 2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1940년 당시 독일이 영국과 프랑스보다 탱크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보유하고 있는 탱크의 성능 또한 어떤 면에서는 열세였다. 독일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물적 자원이 상대방 보다 우세하였기 때문이 아니었다. 탱크 내부에 라디오를 비치하는 발상, 조직, 운영 개념 그리고 독일군의 지휘 문화 또는 분위기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올바로 정립하였기 때문이다.

군에 대규모의 병사를 유지하였던 지난 200여년간의 관행이 종말을 고하고 있다.

독일은 「판저사단(Panzer Division)」을 구성하였는데 이는 근대전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해 만든 것이었다. 프랑스와 영국이 탱크만으로 구성된 기갑 사단을 조직한 반면 독일은 탱크를 중심으로 여러 무기들을 통합시켰다. 독일은 단위 탱크당 일련의 기술자와 보병 전투 요원들을 배당하여 탱크 전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판저사단과 같은 새로운 조직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독일은 독특한 지휘 분위기를 고안해 내었다. 1930년대 미국의 한 연락 장교는 독일군이 미군 보다 의사 결정을 매우 쉽게 내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지휘관은 문제가 아무리 중요한 사안이라 할 지라도 수분 정도 심사숙고 한 후에는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며, 적 공격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최선은 아닐지라도 적시에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의 완벽한 의사결정보다 훨씬 바람직하다」라고 독일인들은 생각하였다. 근대 전투에서는 상황이 급변한다는 점을 인지하여 그들은 지휘 구조와 참모조직을 적절히 변형하였다.

판저사단은 그 당시 독일이 처한 상황에 매우 부합되는 개념이었다. 오늘날 군사혁신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독일이 창안한 판저사단과 비슷한 형태의 조직이 나와야 할 것이지만, 그 과정은 보다 고통스러울 것이다. 「미래에 요구되는 형태의 판저사단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들 조직을 어떻게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현재로서는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러나, 「21세기의 군이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될 것인가」를 시험 삼아 구상해 볼 수는 있

을 것이다. 우선, 향후의 군은 장기 복무자가 주축이 될 것이다. 질이 떨어지는 다수의 병력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소수 정예를 활용하여 질로 보충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시대가 되었다. 과거, 군은 징집되어 온 집단(예 : 사병 집단)과 군을 자원하여 들어온 「전문가 집단(Professional)」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오늘날에는 군의 비중이 전문가 집단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난 200여 년 간 군은 징집되어 군에 들어온 다수의 단기 복무자들을 대량 생산된 무기로 무장하여 전쟁을 수행하였다. 오늘날 이런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있다.

미래의 군은 보다 「합동군(Joint Force)」 형태가 될 것이다. 아마도,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육, 해, 공군과 같은 단위 군 위주의 작전은 희석될 것이다. 예전에는 군을 육, 해, 공군 등으로 확실히 구분할 수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이같은 구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오늘날에는 항공 작전과 지상 작전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해군력을 이용하여 지상에서 위치한 적 표적을 공격하기도 한다. 「각 군에 준하는 군(Quasi Services)」이 등장하고 있다. 최첨단의 군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영국의 「특수 공군(Special Air Services)」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 및 이스라엘의 경우를 모방한 특수군들이 등장하고 있다. 정규 보병부대도 또한 특수군의 전술을 받아들여 소규모 단위로 부대를 분산시키고, 항공력과 후방지역에서 발사되는 광범위한 화력의 지원을 받으면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기타 「각군에 준하는 군」 조직에는 우주 및 정보전을 수행하는 조직, 「항공기를 정비하고, 비행장을 건설하며, 작전 결과를 분석

해주는 민간 조직」등이 있다.

군 구조에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가 또 있다. 1950년대 육군의 군단 구조와 그 당시 미국의 선두 기업인 제너럴모터를 도표로 비교하면 매우 유사한 점이 있다. 이들 조직들은 전통적으로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서, 아래에서 위로 피라미드 조직을 따라 보고가 올라갔다. 육군의 군단 구조는 그 후 변함이 없다. 오늘날 미국의 첨단 기업은 제너럴모터가 아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모토롤라가 미국의 선두 기업이 되었는데, 이들 조직의 유형은 오늘날 육군의 군단 조직과는 매우 다르다. 오늘날 기업은 중간 관리 계층을 제거하였다. 산업화시대의 대표적 특징인 사무직과 관리직의 구분을 줄이거나 없애버렸으며, 연금제도 등도 폐지하였다. 군 조직은 과거와 거의 다를 바가 없다. 아직도 군은 장교와 준사관으로 구분된 두 집단이 관리하고 있는데, 준사관의 경우 2차세계대전 당시와는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기능은 크게 변함이 없다. 군사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들 구조를 근본적으로 갱신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지휘의 성격

전쟁의 형태가 혁신적으로 변환되는 시대에는 군에서 총수(總帥)가 되는 사람의 출신성분도 달라진다. 예를 들면, 항공력이 부상하면서 해군 및 육군과는 전혀 색다른 형태의 조직이 탄생하였다. 공군에서 전투원은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인 장교 출신의 조종사인데, 이들을 다수의 준사관 및 사병으로 구성된 기술자들이 지원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를 19세기 후반에서 찾아볼 수 있

다. 그 당시는 예비군을 징집, 철도를 이용하여 배치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따라서, 전문 기술자들이 다수 요구되었다. 미국의 남북 전쟁과 보불전쟁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기차 운행시간을 계획하고 고장난 부품을 고치는 문제가 용기와 집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병참관리자는 일반참모부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었으며, 잘 훈련된 일반 참모는 군 조직에 필수적 요소가 되었다.

이와 비슷한 형태의 변화가 오늘날 진행되고 있다. 미 공군은 조종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집단인데,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폭격기 조종사가 그 이후에는 전투기 조종사들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오늘날에는 전투조종사가 아닌 장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장군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신 기술의 출현으로 미사일 운영, 우주 관련 전문가 또는 전자전 분야 등의 전문가들이 부상하고 있는데 전통적 의미에서 이들은 전투원이 아니다. 이들 중 많은 부분에서 여자들이 감당하게 될 날이 곧 도래할 것이다. 군에는 현재도 그러하지만 미래에도 전투에 직접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다수 필요할 것이다. 사실, 전투기 한 대가 가할 수 있는 치명성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전투기를 운영하는 조종사에게 요구되는 육체 및 지적 능력 또한 크게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공군 조직에서 전투조종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 및 상대적 측면 모두에서 감소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향후에는 조종사 출신이 아닌 일반 장교가 공군의 지휘관이 되는 경우가 다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종사들이 전투 정신

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문제는 공군 조직이 극복해야 할 문화적 도전이 될 것이다.

전쟁 양상이 바뀌면 군을 지휘하는 형태도 바뀌게 된다. 산업화 시대의 전쟁 양상은 종료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일종의 「최고 사령부(Supreme Command)」도 사라지고 있다. 1866년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 대비하여 모병을 지시한 직 후, 프러시아의 총참모장 몰트케는 소파에 누워 소설을 읽고 있었다.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수행하기 바로 전날 연합군 최고 사령관인 아이젠하워 장군도 소파에 누워 소설을 읽었다. 이들 두 사건간에는 80여 년의 시간적 공백이 있었지만, 최고사령부의 형태는 거의 변함이 없었다. 총참모장과 참모들이 군사를 동원하고, 이들 군사를 활용하기 위한 기획문서를 작성하면, 실제 작전이 수행되기 하루 또는 이틀 전에는 특별 조치 없이 사전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었다. 오늘날의 야전 지휘관은 전자체계를 구비한 지휘소를 왕래하면서 TV화면을 살펴보고, 전선에 배치된 조종사 또는 탱크 부대 지휘관과 라디오로 교신하면서 분주히 활동할 것이다.

오늘날의 군사혁신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국가는 미국 뿐이다.

야전지휘관들이 조종사 또는 탱크 지휘관들에게 일일이 지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권한의 집중(Centralization of Authority)」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권한은 가능한 한 최하위 사령부에 이관되어야 한다』라고 모든 군사조직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지만, 하급 부대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파악하게 되면, 간섭하고자 하는 충동이 생길 것인데, 이를 자제하기

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급부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기가 용이할수록, 하급부대의 활동에 지휘관들이 간섭하려 할 것이다. 정치지도자들도 이와 비슷한 충동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있다. 오늘날 군 작전에 간섭하려는 정치 지도자는 거의 없으나, 이와 같은 상황이 반전될 수도 있다.

국가의 권력

16세기와 17세기초에 있었던 군사혁신은 근대 유럽 초창기에 역사가들이 가장 관심을 보였던 분야였다. 당시 일련의 획기적인 변화로 힘의 균형이 유럽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전문 장교의 지휘하에, 엄격한 규율을 준수하면서 훈련받는 근대화된 군」이 창설되고, 병력과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정부가 탄생함에 따라 국제 질서가 대 변환을 겪게 되었다. 그 당시 군사혁신의 결과로 홀란드가 부상하고 오토만 제국이 몰락하였다.

고가의 현대 무기를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재원과 이들 무기를 적절히 활용할 능력을 겸비한 국가에서 오늘날의 군사혁신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예를 들면, 1973년 당시와 비교하면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이웃 아랍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증강되었다. 타이완, 싱가포르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국가들의 군사력도 주변국과 비교해보면, 지난 3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되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날의 군사혁신이 소련에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소련의 군 지휘부는 생각하였다.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군사혁신을 최대한 활용할

능력을 갖고 있는 국가는 미국뿐이다. 미국의 매년 군사비는 두번째 강대국 군사비의 4배에 달한다. 또한 대규모 복잡한 체계를 통합하는 측면에서 미국의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이다.

특정 군사분야에 변혁이 일어난다고 해서 여타 분야의 것들이 모두 무의미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핵무기가 출현한 후에도 재래식 무기의 의미는 반감되지 않았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진행되는 군사혁신에 관계없이 제럴라 전술, 테러 또는 대량파괴무기는 지속적으로 그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혁신적인 변화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구시대의 전술적 체계들 또한 계속해서 그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해상 전투에 항공모함이 등장한 후에도 전투함은 바다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함포 사격과 바다에 떠 있는 상태에서 방공을 수행하는 등과 같은 두가지 새로운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자신의 전성기가 50여 년 지난 최근의 페르시아만 전쟁에서도 전투함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군사혁신을 유발하는 힘이 민간에서 나올수록 새로운 형태의 군사력이 신속히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본 또는 향후 몇 년 후의 중국은 민간분야의 기술력을 군사분야에 적용하여 민간 기술 능력에 상응하는 군사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1930년대에, 독일은 10년도 채 안되는 기간 내에 근대적 능력을 구비한 항공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민간과 군 관련 항공기술이 크게 다를 바 없었던 당시, 독일은 민간 항공 기술을 활용하여 막강한 군사능력을 쉽게 건설할 수 있었다. 냉전시대에는 군수산업과 민간산업이 상호

독립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시세의 추는 다시 반전되고 있으며, 그 결과 경제력이 있는 국가는 그에 상응하는 군사력을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전환기의 질서

오늘날에는 「전쟁술(Art of War)」이 혁신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기술에서 단순히 찾고자 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전쟁을 수행하는 궁극적 목적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군사적 수단을 적용해가는 과정에서 전쟁술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1,2차 세계대전 사이의 기간 중, 기갑전 개념은 영국과 프랑스에서 꽃도 피우지 못하고 시들어버렸다. 그 이유는 『유럽 대륙에서의 전쟁에는 기갑전과 같은 공세적 형태의 작전이 필요 없다』라고 이들 정부가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소련과 독일은 과거에 빼앗겼던 영토를 되찾거나, 새로운 영토를 점유하고자 하는 공세적 목표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어느 국가보다도 기갑전 개념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오늘날의 군사혁신을 미국이 주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혁신을 통해 확보 가능한 군사력을 어떤 목적에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한 개념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날의 미국은 이와 같은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 1993년 클린턴 행정부는 국방정책을 구상하면서 「바텀업 리뷰(Bottom-Up Review)」를 제안하였는데, 이는 1991년 당시의 걸프전과 유사한 두 개의 지역 분쟁에서 동시에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미국이 갖추어야 한다는 발상이었다. 1991년의 이라

크와 유사한 적(방대한 기갑 전력과 3등급 수준의 방대한 공군력 보유)을 목표로 구상하였기 때문에 클린턴 행정부가 집권 초에 약속한 바와 같은 군사력을 보유하고자 한다면, 완벽한 재평가가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의 군사혁신이 절정에 이르는 순간은 소련이 1980년대에 예상한 것보다는 지연될 전망이다. 미국을 위협할 능력이 있는 국가를 자극하여 지나친 군사 경쟁을 유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이유로, 미국이 가용한 기술을 군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평화시의 군 조직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진화를 택하려 하는 경향이 있다.

국제정치도 군사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향후에는 제한된 성격의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는 제레식 전쟁이 주가 될 것이다. 20세기 전반 50여년과 냉전시대에, 미군과 소련군의 기획가들은 전쟁을 「총력전(Total War)」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나, 향후의 전쟁은 제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쟁이 될 것이다.

미래에 대두할 군사 질서를 예견해줄 매우 적절한 비유를 중세에서 찾을 수 있다. 중세 시대에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주권이 국가에 전적으로 부여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치, 시민 그리고 종교 단체에 분산되어 있었다. 그 당시에는 전쟁 수행의 주체가 국가만은 아니었다. 종교 집단 또는 여타 조직과 같은 개인 단체들이 전쟁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지난 200여 년의 경우와는 달리, 당시에는 전투를 수행하는 조직에 따라 군사기술 형태가 매우 달랐다. 영국의 화살병과

기사가 싸우는 방식은 아랍의 전사 또는 정기스칸의 기병이 사용하는 방식과는 달랐다. 따라서 군사력을 서로 비교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대적하는 상대와 대적 장소가 어딘가에 따라 전투 능력이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전투력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 군사혁신의 와중에서 가장 괴로운 사항 중 하나는, 각 군의 전투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겔프전에서 발생할 사상자가 어느 정도일 것인가』에 대해 다수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예견하였지만 이들 모두는 실제 결과와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이는 그들이 무능하거나 사상자의 수를 충분히 늘려 잡아 예측하였기 때문에 생긴 결과가 아니다. 산업화 군의 전투력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평가 방법을 겔프전 당시의 미군, 즉 정보화 군에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생긴 결과이었다. 『탱크와 항공기의 대수, 병력의 수 또는 이 보다 정확한 판단 기준인 화력에 근거한 전투력 평가 방법의 의미가 있는가』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과거에도 다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수치는 전투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항공기, 탱크, 비행기 등과 같은 플랫폼의 의미가 퇴색되고, 이들에 내장되어 있는 탄환의 종류와 정보(Information)처리 능력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오늘날, 각국의 전력을 비교 평가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오웬 제독의 견해가 틀림없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군사혁신으로 「전장의 불투명성」이 제거되어

전술적으로는 투명해질 것이다. 그러나, 「각국의 전력을 비교 평가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라는 측면에서 전략적으로는 암영이 짙어질 수가 있다.

19세기 및 20세기초에는, 군사력을 보다 많이 유지하고 있는 측이 전쟁에서 대부분 승리하였다. 16~17세기, 스위스의 창병(槍兵)들은 산의 통로를 가로막아 상대방이 이들 통로를 지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스위스를 방어할 수 있었다. 또한 『견고하게 구축된 성 하나가 대군을 오랜 기간 곤궁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 기술을 활용하면 약간의 군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도 방대한 군사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군은 제한적 성격의 정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력 투사(Power Projection)¹⁰⁾」를 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미국의 시도를 별 어려움 없이 방해할 수 있는 국가가 출현할 수도 있다. 치명적이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심각한 공격을 가하여 분쟁 지역에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집단도 있을 것이다. 오늘날 미국은 획득 및 운영 유지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항공모함 또는 인공위성 등과 같은 대규모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들 능력에 있어 절대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우위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크루즈 미사일과 같은 기술이 매우 효율적일 것이다.

향후에는 제한된 정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쟁이 주를 이룰 것이며, 중앙으로 다량의 정보

10. 역자주 : 미 본토에 위치한 군사력을 분쟁 지역에 투사, 미군의 병력과 해외에 위치한 미군 기지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군사력 투사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Information)가 집중되고, 군 전력을 올바르게 평가 분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민군 관계가 보다 난처해질 소지가 있다. 정치가들은 제대로 이해도 못하는 내용을 화면을 통해 보고는 지시하고자 할 것이다. 장군들 또한 올바르게 이해도 못하는 군사력을 지휘해야 할 것이다. 기능에 따라 군이 여러 형태로 분할될 것이며, 이들을 다루는 장군들의 유형도 서로 다르게 될 것이다.

전쟁 수행 방식에 혁신적인 변화가 있었던 시절에는 군 지도자들이 대 실수를 범하곤 하였다. 일차세계대전 당시 근대화된 화력체계에 대항하여 전투를 수행하였던 유럽 전장에서는 막대한 인명 손실이 있었다. 이는 당시의 장군들이 무능력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양상의 전쟁을 맞이하여 대처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2차세계대전 중 일본 해군을 태평양에서 몰아내는 과정에서 항공모함의 역할은 지대하였다. 그러나 미해군이 이들 항공모함을 건설하는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1942년 미드웨이 해전을 통해 얻은 교훈은 「항공모함을 집중시키면 장점도 있지만, 항공기에 탄약

과 연료를 재 공급하는 시간대에 항공모함이 적의 공격에 취약해진다」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2차세계대전 초기의 경우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항공모함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었던 경우이거나 또는 다수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어 그 중 몇대가 손상을 입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항공모함 중심의 전쟁은 용이치 않다. 미 해군은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나서야 항공모함 중심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항공모함을 보유할 수 있었다.

오늘날 군사혁신이 진행되고 있다. 군사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인뿐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대 변혁이 요구될 수도 있다. 군사혁신으로, 미국은 지구상 어느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정도의 군사력을 21세기에도 유지할 수 있을 듯 보인다. 군사혁신을 최대한 활용,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론을 군사 이론가들이 정립하고 있는데 이는 당연한 일이다. 혁신에는 신속하고, 격렬한,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화가 동반되게 마련이다. 전쟁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많이 있지만, 아마도 이는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이다. **등문**

항공기의 운항과 환경문제 II

— 항공기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과 저감 방법 —



이 기 영

중령/공군사관학교 기계공학과

1. 머리말

지난 호에서는 항공기 운항에 따른 환경문제 중 소음으로 인한 제반 문제점과 소음 저감 기술, 소음 피해로부터의 방지대책 등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항공기 엔진 연소에 따른 유해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 문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항공기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는 다른 대기오염 발생원들 즉, 산업용 각종기기들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자동차 배출가스 등에 비하여 그 양 자체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관심 밖의 일이 되기 쉽다. 그러나 항공수송의 급격한 발달로 전세계적으로 운항되고 있는 항공기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항공기 엔진 자체의 크기와 동력이 지상수송용 엔진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감안하면 결코 간과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아울러 항공기의 배출가스는 고고도에서 배출되기 때문

에 지상의 산업 기기들에 의한 오염물질들과는 환경오염의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아직은 지상용 수송기기에 비하여 대기오염의 영향이 미미한 수준일지라도 이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의 종류와 저감기술 그리고 이에 관련된 국·내외 관련 법령과 법규들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2. 대기오염 사례

현대와 같은 고도의 산업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대기오염의 심각성에 눈뜨기 시작하였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공업화와 더불어 자동차와 같은 수송기기의 천문학적 증가는 이들 수송기기들로부터 발생하는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은 전지구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부각시킨 사건들은 산업

혁명이 일어났던 영국에서 1873년, 1952년, 1956년, 1962년의 대기오염 사건이며, 1930년에 벨기에에서 발생한 Meuse Valley 사건, 그리고 1948년 미국의 펜실베이니아의 Donora시 사건이 그 예이다. 이들 사건들의 공통점은 주로 계곡형의 지형에 위치한 고도로 공업화된 지역에서 이산화황 배출물에 의한 대기역전현상에 의해 발생하였다. 대기오염에 대한 사례를 언급할 때마다 예시되는 대형사건으로는 런던 스모그 사건과 LA 스모그 사건으로 이들의 대기오염 형태를 각각 런던형 스모그, LA형 스모그라 한다.

런던시는 지형상의 이유로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도시로 유명하다. 1952년 12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바람이 거의 없는 스모그가 발생하여 4,000여명의 사망자가 생겼는데, 주로 노인들을 비롯한 병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들이었다고 한다. 이를 1차 런던 스모그라 하며, 1962년에 또 한차례의 악성 스모그가 발생 700명이 사망하였는데, 이를 2차 런던 스모그라 한다.

런던형 스모그는 Smoke와 Fog의 합성어로 산업화에 따라 공장, 화력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중유의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이산화황 SO₂와 분진이 주원인이다.

SO₂ 자체는 투명하나 안개와 같은 수증기에 응축하면 뿌옇게 보인다. 1차 런던 스모그때의 농도는 1.1~1.4ppm이었다고 한다.

LA형 스모그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전형적인 스모그로 공업형 런던 스모그와는 구별된다. LA시는 태평양에 연해 있는 한 면을 제외하고는 3면이 산으로 둘러 싸여 있는 분지형의 도시로, 따뜻한 기간 중에는 강한 열대성 기후로

인하여 역전층이 발생하여 오염원이 수직운동을 방해한다. 이 기간 중 역전층이 강할 때에는 구름이 없고, 강우가 없으며, 풍속도 대단히 낮아 강하게 내려 쬐는 태양열에 의하여 자동차 배기가스 중의 탄화수소(HC)와 이산화질소(NO₂) 등이 눈이나 호흡기에 자극을 주는 2차 생성물로 변화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발생한 오염물이 직접 스모그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배출된 탄화수소와 이산화질소 등이 대기 중의 태양광에 의해 눈이나 호흡기에 자극을 주는 오염물질이 2차적으로 생성되는 것을 LA형 스모그 혹은 광화학 스모그(Photochemical Smog)라고 한다.

항공기 운항에 따른 대기오염 사례는 구체적으로 수집된 바는 많지 않으나, 미국의 그랜드 캐년과 같은 유명한 국립공원의 경우, 연 수 만대에 이르는 경항공기를 이용한 공중 관광으로 인하여 대기오염 및 소음으로 국립 공원 내의 생태계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997년 3월 20일 조선일보). 이러한 사실은 항공기의 운항 횟수가 기하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 결코 간과할 수 없음을 나타내 주는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선진 항공기술국들이 21세기의 차세대 항공기로 개발 중인 초음속여객기(SST : Supersonic Transpot)의 경우 200,000m 가량의 고고도를 비행하기 때문에 항공기의 배기가스에 의한 지구 오존층의 생성 및 소멸에 NO_x가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의 저감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3. 대기오염 관계법

앞에서 예로든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부각시킨 사건들은 각 나라들로 하여금 대기오염방지법을 제정하여 그 심각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에 비하여 상당히 늦은 1990년 8월 1일에 법률 제4262호인 '대기환경보존법'을 제정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절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률은 6차에 걸쳐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렀는데, 주로 지상작동장비 및 시설물에 국한되어 있고, 항공기 엔진의 연소 배출물에 의한 대기오염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항공기 배출가스에 대한 법령은 미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1955년에 연방법으로 대기오염 방지법(Air Pollution Act, Public Law 84-107)이 처음 제정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적용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자동차가 급격하게 증가되면서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가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국회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에 이르렀다. 이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대기오염방지 개정법(Air Pollution Control Act Amendment)인 Public Law 86-473을 1960년에 제정 공표하였고, Public Law 87-761을 1962년에 개정하였다.

1963년에 발효된 청정공기법(The Clean Air Act, Public Law 88-206)은 공기의 질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공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연구와 기술적 발전을 위해 주별, 지방 정부별 프로그램 마련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

하게 되었다. 1967년에 제정된 공기의 질에 관한 법(The Air Quality Act, Public Law 90-148)은 배출기준에 대한 개념정립 연구의 시발점이 되었다. 여기에서는 일산화탄소(CO), 이산화황(SO₂), 이산화질소(NO₂), 탄화수소(HC) 등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이러한 유해물질에 대한 방지기술 정보도 요약해 놓았다.

1970년에 개정된 공기청정법(Public Law 91-604)은 항공기 엔진연소에 의한 배출가스의 대기오염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하였고, 대기공기의 질에 대한 요구조건을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 의해 규정되었다.

4. 항공기 배출가스 기준

항공기 배출가스 기준에 대한 법률은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구체적으로 법제화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970년에 개정된 미국의 청정 공기법은 환경보호국(EPA)에 의해 확립된 대기공기의 질에 관한 기준조건이 명시되었다. 연방정부에 의해 공표된 기준은 대기 중의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분진 및 기타 산화물들의 최대 허용농도를 규정하고 있다. 1970년의 개정 공기청정법에서는 이와 아울러 항공기 배기가스 기준도 확립하였다. 이 법에서 제시된 배기가스 기준은 1972년에 공표되었고, 1973년에는 배기가스 측정절차에 대한 규정도 공표하였다. 1973년에 공표된 기준은 약간의 개정을 거치면서 오

늘에 이르고 있다. 항공기 엔진에서 연소과정 중에 생성되는 공해물질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산화질소(NOx)와 스모크이다.

항공기 엔진의 발달과 더불어 항공기 엔진 배출가스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의 선결과제는 엔진 형태를 어떻게 분류하는가에 있었다. 항공기 엔진은 설계, 성능 및 구조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의 엔진 형태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과 저감 능력들을 부과하였다. 표1은 초기에 정의된 8등급의 엔진 분류 방법이다. 표에서 터보프롭 엔진을 따로 분리한 것은 이착륙 사이클에서 제트추력과 축동력과의 제시된 동등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Pratt & Whitney 사의 JT3D & JT8D 엔진을 별도로 등급지은 것은 스모크 저감 스케줄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밖의 초음속 제트 엔진들도 독립된 등급으로 구분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착륙과 가속시 후기연소기를 사용하면 연소압력과 혼합방법에 따

라 달라지긴 하지만 HC와 CO의 배출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며, 초음속 항공기에 사용되는 엔진의 사이클 압력비는 대체적으로 아음속 비행에 알맞도록 설계된 엔진의 압력비에 비해 낮고, 저속, 저고도 비행시 이들 엔진은 고속 비행시에 얻을 수 있는 램효과에 의한 이점이 없어진다. 또한 그 당시에는 대체적으로 고우회율이 터보팬 엔진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엔진 분류 방법은 표 2와 같이 표 1의 초기 분류 방법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초기의 등급 분류보다 단순한 분류 체계를 알 수 있다.

항공기용 가스터빈 엔진의 배기가스 기준을 정하기 위한 다음 단계는 공기오염 배기가스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엔진 작동 조건들을 결정하는 일이다. 현재의 배기가스 측정은 주요 공항에서 고도의 운행 기간 동안에 각 방식에 대한 모의 항공기 배기가스 측정은 주요 공항에서 고도의 운행 기간 동안에 각 방식에 대한 모의 항공

표 1 초기의 EPA 엔진 분류 체계

EPA등급	내	역
T1	T5급 엔진을 제외한 추력 8,000lb 미만의 모든 터보팬 및 터보제트 엔진	
T2	T3, T4, 혹은 T5급을 제외한 추력 8,000 lb 이상의 모든 터보팬 및 터보제트 엔진	
T3	모든 JT3D 모델 계열 엔진	
T4	모든 JT8D 모델 계열 엔진	
T5	초음속으로 작동되도록 설계된 모든 엔진	
P1	방사형 엔진을 제외한 모든 왕복동 엔진	
P2	모든 터보프롭 엔진	
APU	추진용 엔진을 제외한 항공기 내·외에 장착되거나 엔진 작동에 사용되는 모든 보조 엔진	

표 2 EPA 엔진 분류 체계

EPA등급	내역
TP	모든 터보프롭 엔진
TF	T3, T8, 혹은 TSS급을 제외한 모든 터보팬 및 터보제트 엔진
T3	모든 JT3D 모델 계열 엔진
T8	모든 JT8D 모델 계열 엔진
TSS	초음속 비행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모든 엔진

표 3 항공기 배기가스 측정을 위한 엔진 동력 세팅

항공기 작동 방식	엔진 등급		
	TP	TF, T3, T8	TSS
지상활주/무부하	7%	7%	7%
이륙	100%	100%	100%
상승	90%	85%	65%
하강	NA	NA	15%
착륙접근	30%	30%	34%

기 이착륙에 대한 시험시 HC, CO, CO₂의 배출량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제트 엔진에서의 각 작동 방식에 대한 기준은 표 3과 같다. 표에서 주어진 값들은 표준해면고도에서 15℃, 101.3Kpa, 비습이 0.00kg H₂O/kg dry air인 조건에서의 동력 퍼센트 세팅이다.

배기가스 시험은 엔진을 예열한 상태에서 시작하여 정상상태 온도에서 실시한다. 표4에는 각 작동 모드에서의 작동시간을 나타내었다. 1979년의 배기가스 기준에는 HC, CO, NO_x와 스모크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며, 1994년에는 여

기에 연료배출가스 기준을 첨가하였다. 1994년의 연료배출가스 기준은 T3, T8, TF와 1994년 1월 이후에 제작된 엔진 혹은 사용 중인 36kN 이상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 TSS 급의 모든 항공기에 적용된다. 또한 이들 엔진 연료배출가스 기준은 모든 신형 항공기의 엔진 출력이 36kN 이하인 TF급, 1975년 1월 이후에 제작된 모든 TP급 터보프롭 엔진 혹은 사용 중인 엔진, 그리고 출력이 36kN 이하의 모든 TF급 항공기용 가스터빈 및 1975년 이후 제작된 모든 TP급 터보프롭 엔진에 적용된다. 이 기준의 목적은 엔진

표 4 항공기 이착륙 사이클에서의 배기가스 측정을 위한 작동모드 및 작동시간

항공기 작동 방식	엔진 등급		
	TP(min)	TF, T3, T8(min)	TSS(min)
지상활주/무부하	26.0	26.0	26.0
이륙	0.5	0.7	1.2
상승	2.5	2.2	2.0
하강	NA	NA	1.2
착륙접근	4.5	4.0	2.3

작동 중지 후에 엔진 연료노즐 다기관으로부터 대기중에 연료를 배출하여 직접 확산시키는 것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현재의 스모크 배출배기 기준은 표 5와 같으며 HC, CO, NOx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은 표 6과 같다. 표에서 T등급은 lb pollutant/1,000 lb-thrust hr/cycle을, P등급은 lb

pollutant/1,000 hp-hr/cycle이다.

그 외에 배기가스 배출정도를 표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오염농도 : 이 방법은 사용하기는 쉬우나, 제트 엔진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양을 나타내 주지는 못한다.
- (2) 단위질량의 연료소비량에 대한 배출오염

표 5 스모크 배출기준

엔진등급	출력등급	제작시기	최대 스모크 지수
T8	all	1974. 2. 1	30
TF	≥129 kN	1976. 1. 1	83.6 (rO*) ^{-0.274}
T3	all	1978. 1. 1	25
T3, T8, TSS, TF	≥26.7 kN	1984. 1. 1	83.6 (rO*) ^{-0.274} with max. of 50
TF	≥26.7 kN	1985. 8. 9	83.6 (rO*) ^{-0.274} with max. of 50
TP	≥1 MW	1984. 1. 1	187 (rO**) ^{-0.168}

* rO은 kN으로 표시한 출력 등급

** rO은 kW로 표시한 출력 등급

표 6 제트 항공기 배기가스 배출 기준

엔진등급	HC	CO	NOx
T1	1.6	9.4	3.7
T2, T3, T4	0.8	4.3	3.0
P2	4.9	26.8	12.9
P5	3.9	30.1	9.0

질량비 : 이 방법은 연소 시스템이 얼마나 깨끗하게 연소되었는가를 잘 나타내 줄 수 있지만 엔진마다 서로 다른 연료소비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엔진의 공기오염을 효과적으로 나타내 주지 못한다.

(3) LTO(Landing-Take-Off) 사이클에서의 전체 오염물질 배출량 : 이 방법은 공항 전체에서 배출되는 항공기의 배기가스 양에 관심이 있을 경우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EPA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법은 (3)과 같이 LTO 사이클 동안에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을 표준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5. 항공기용 가스터빈 엔진 배기가스 저감기술

미항공우주국(The National Aeronautics & Space Administration : NASA)은 1971년에 항공기용 가스터빈 엔진에서 배출되는 유해 배기가스의 저감 기술개발에 착수하였다. 그들의 연구 결과는 NASA Conference Publication 2021에 요약되어 있는데, 이 NASA 계획의 목적은, 우선 유해 배기가스의

배출 정도를 충분히 저감할 수 있는 새로운 연소 개념을 개발하고, 개발된 신 개념의 연소기 개발 완료시 실험 엔진에서의 배기가스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NASA는 이러한 목적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3단계에 걸쳐 연구를 수행하였다. 즉, 첫 단계는 저유해 배기가스 배기능력을 갖는 연소기 개념을 각 항공기 엔진 제작사들로부터 제안토록 하여 그 중 몇 개의 엔진을 채택한다. 2단계에서는 채택된 신개념의 연소개념을 사용하여 연소성능과 배기가스 저감을 만족시키는 고효율의 연소기 개념의 개발하고, 제3단계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과 배기가스 저감 성능을 갖는 연소기를 실험 엔진에 장착하고자 하였다.

표 7은 각 항공기 엔진 제작회사들로부터 제안된 신개념의 엔진들 중 NASA에 의해 채택된 엔진들로 EPA 각 등급별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각각의 엔진에 대해서 1979년의 EPA 기준과 비교하여 배기가스의 레벨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였는데, 표 4에 나열한 1983년의 배기가스 기준과 동일하게 결정되었다.

이외에 NASA의 배기가스 저감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제한 사항들은, 엔진 작동 모드동안에 연소기의 효율은 99%이상이어야 하며, 순항시

표 7 NASA의 배기가스 저감 프로그램에 채택된 항공기용 가스터빈

EPA 엔진등급	엔진모델	제작사
T1	TFE-731-2	Garrett AiResearch
T2	CF6-50	General Electric
	JT9D-7	Pratt & Whitney
T4	JT8D-17	Pratt & Whitney
P2	501-D22A	Detroit Diesel Allison Div.

의 연소기 압력 손실은 6%를 넘지 않아야 하고, 새로운 연소기 설계 내구성이 모든 엔진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연소기의 설계는 기존 엔진 연소기 케이스에 알맞는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소기의 배기가스 특성은 HC와 CO는 저출력, 무부하 작동시 발생되며, NOx는 무부하 작동시 최저가 되고, 출력이 증가함에 따라 배출량이 증가한다. NOx 배출량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최고 연소 온도를 낮추거나, 혹은 최고온도에서 연소가스의 체류시간을 줄여야 한다.

NASA의 배기가스 저감 프로그램에 채택된 5종의 엔진에 대하여 배기가스 시험 결과를 요약한 것이 표 8이다. 여기서 제시된 값들은 1979년의 EPA 기준에 대해 퍼센트로 나타낸 것이다. 이들 5종의 엔진들 중에서 최종적으로는 JT9D와 CF6 엔진이 채택되었다.

그림 1은 Pratt & Whitney 사에 의해 시험 중인 여러 형태의 엔진 연소기 개념을 보인 것이고, 그림 2는 General Electric 사에 의해 시험 중인 여러 가지 엔진 연소기 개념을 보인 것이다. Pratt & Whitney에서는 2단계 시험을 위해 Vorbix 연소기를 채택하였고, GE에서는 이

표 8 NASA의 배기가스 저감 프로그램에 채택된 가스터빈 엔진의 시험 결과

EPA 엔진등급	엔진 모델	THC		CO		NOx		Smoke	
		기준	배출	기준	배출	기준	배출	기준	배출
P2	501-D22A	4.9	306	26.8	118	12.9	48	29	189
T1	TFE-731	1.6	331	9.4	180	3.7	162	40	118
T4	JT8D-17	0.8	500	4.3	356	3.0	260	25	120
T2	JT9D-7	0.8	488	4.3	198	3.0	197	20	50
T2	CF6-50	0.8	538	4.3	251	3.0	257	19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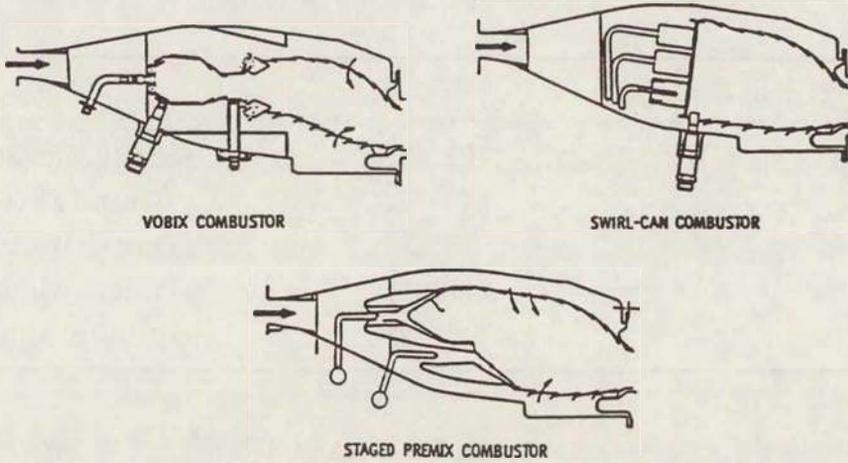


그림 1 JT9D 엔진의 1단계 연소기 개념

중—환상 (Double-Annual) 개념의 연소기를 채택하였다.

그림 3과 그림 4는 2단계 연소기인 JT9D와 CF6 엔진을 각각 보인 것이며, 표 9는 JT9D와 CF6-50 엔진의 배기가스 시험 결과를 보인 것이다. 표에서의 수치들 역시 1979년의 EPA 기준에 대한 퍼센트 값이다.

6. 맺음말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의 기준도 선진 제국에 비하여 좀 더 관대한 상태인데, 항공기 배출가스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시기 상조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자체의 기술로 설계한 국산 항공기를 제작하려는 단계에 와 있다. 비록 아직은 항공기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에까지 눈을 돌

표 9 JT9D-9와 CF6-50 엔진의 배기가스 시험 결과

	THC	CO	NOx
Pratt & Whitney JT9D-7			
Conventional combustor	488	198	197
Vorbix combustor	38	151	73
General Electric CF6-50			
Conventional combustor	538	251	257
Double-annual combustor	38	70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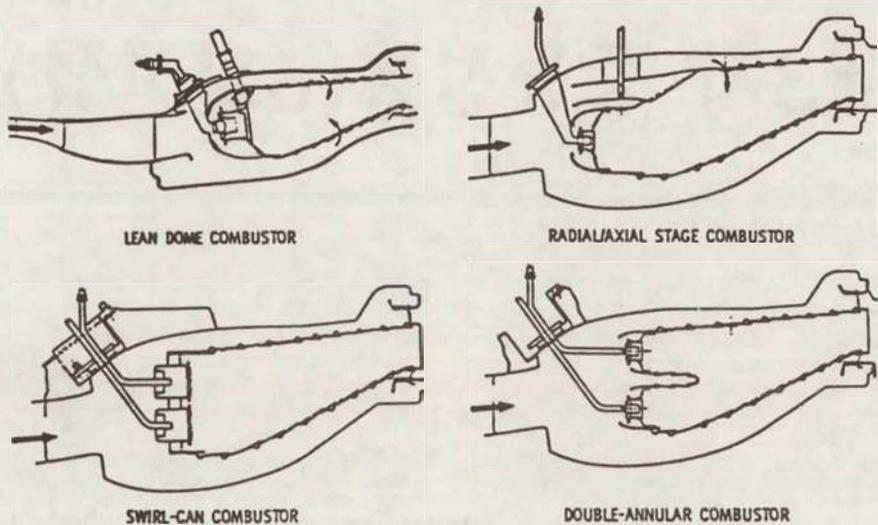


그림 2 CF6 엔진의 1단계 연소기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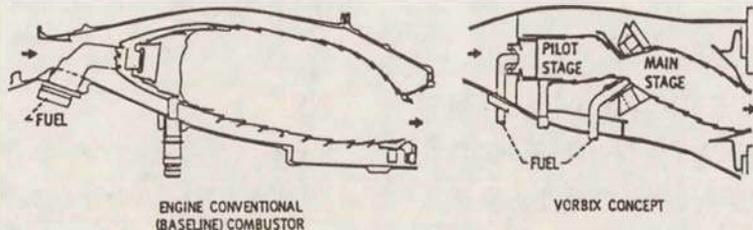


그림 3 JT9D-7 엔진의 2단계 연소기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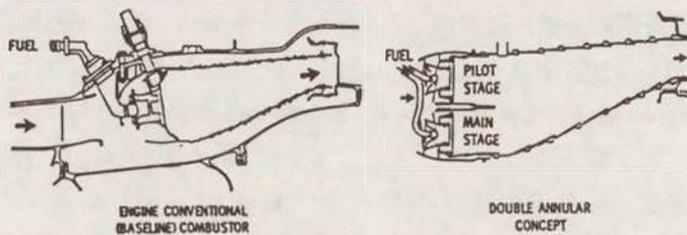


그림 4 CF6-50 엔진의 2단계 연소기 개념

릴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처지이긴 하지만 엔진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좀 더 배출가스를 저감시킬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엔진의 개발에 조금이라도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또한 항공산업의 발달에 따라 이에 대한 법령 범위도 제정, 정비해 나가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기초적 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등판**

제3차 중동전쟁(6일전쟁)

이 재 연

대위/제18전투비행단 방공포대장



1. 서론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중동지역에서의 전쟁은 아직도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팔레스타인 전쟁(제1차 중동전)에서 걸프 전쟁까지 또 앞으로 계속될 수많은 전쟁과 분쟁 등……. 중동의 전쟁은 더 이상 중동 지역인들만의 것이 아니다. 세계의 이목이 중동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첨단 무기의 시험무대였던 걸프 전쟁 당시의 중동은 새로운 개념의 첨단전쟁을 예고하기도 하였다.

중동 전쟁에서의 두드러진 특징은 공군력의 우세와 지휘력의 우세가 전쟁 승리의 직접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6일전쟁으로 불리는 3차 중동전은 이러한 특징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전쟁이었다.

2. 6일전쟁

원인

민족과 종교대립, 이스라엘 건국과 아랍의 말살 정책 등으로 팔레스타인 전쟁(제1차 중동전쟁), 수에즈 전쟁(제2차 중동전쟁)이 일어났으며, 수에즈 전쟁이 종식되고 난 후에도 아랍과 이스라엘 적대상태는 해소되지 않고 있었다. 이는 국경이나 난민 문제, 그리고 팔레스타인 게릴라 활동과 요르단장을 둘러싼 신경전 등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엄밀히 따져보면 아랍과 이스라엘 양 진영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과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한 강대국들의 중동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깊은 개입이 빚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가장 직접적인 전쟁 원인은 소련의 이스라엘에 대한 모략이었다고 볼 수 있다. 소련은 거짓 선전 즉, 시리아의 극좌정부를 쓰러뜨리기 위하

여 이스라엘의 10개여단이란 대병력을 집결시키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시리아와 이집트 정부에 통고하였다. 이러한 정보를 받은 이집트는 시리아를 원조하기 위하여 이집트군에게 전쟁명령을 하달하였다.

소련의 이와 같은 거짓 정보는 시리아 테러단의 잦은 테러가 이스라엘의 공격을 유도하여 결국 스스로 극좌의 붕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리라는 상황을 예견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함에서였다.

6일 전쟁의 의미

당시 이스라엘 군의 제1목표는 티란 해협 타개였으며, 제2목표는 이스라엘 위협국인 이집트군을 격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쟁이 개시되면 국제연합에서 안보리가 소집되어 정전을 요구하게 되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었으며, 이스라엘이 계산한 6일간이라는 것은 6일 내에 전쟁 목적을 달성한다는 절대적 시간이었다. 전쟁이 시작되고 최초의 2일간 이집트는 상황 판단도 못하는 상태로 보낼 것이며 2일이 지나면 겨우 정신을 차리면서 미국과 소련이 국제연합 안보리의 소집을 요구, 정전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다. 이에 2일이 필요하며 이를 무시하고 전쟁을 계속하면 국제연합은 다시 한 번 보다 강력한 결의안을 제출하고 이를 심의, 통과시키는데 또 2일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결의안을 이행하기까지 6일간이 소요되며 그 시간 내에 전쟁목적을 달성하려는 생각이었다.

병력비교

당시 이집트는 정규군 19만명에 국가 방위 및 예비역이 12만여명 있었기에 전체적으로 총 31

만명의 대군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규군 이외에는 대부분 장비나 훈련이 극히 빈약한데다 그 주임무 자체도 대내적 방위일 뿐이기 때문에 수에즈 및 그 이동에 있었던 2만여명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이집트 공군은 SU-7 초음속 전투기 55대, MIG-21 초음속 요격기 40대, MIG-15 및 17 등의 전폭기 100대, 그리고 TU-16 중형 폭격기 30대와 IL-28정폭기 43대 등을 포함한 총 650여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이스라엘 항공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57MM 및 58MM 대공포가 배치되었고, 여기에 SA-2 지대공 미사일이 제공되어 삼각주 일대와 나일 계곡 그리고 시나이 등지의 27개의 기지가 건설 배치되어 있었다. 해군은 6척의 구축함과 9척의 잠수함을 포함하여 114척의 함정이 16,000여명의 해군에 의해 운용되고 있었다.

시리아군 및 요르단군의 전력은 이집트군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아직 크게 뒤떨어지고 공군 역시 요르단은 쓸만한 비행기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시리아도 역시 별로 경계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비행기는 시리아에 MIG-21 40대, MIG-17 40대와 약간의 폭격기가 있었다. 요르단에는 1965년이래 영국이 제작한 20여대의 호커헌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다. 미국이 F-104 전투기 36대를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있었지만 전쟁이 발발할 당시 요르단의 조종사는 스카이호크를 받으러 온 이스라엘 조종사들과 미국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으며 F-104는 전쟁이 끝나고 난 후인 1967년 7월에야 최초로 인도하기 시작했다.

이란은 약 80,000명의 병력이 300대의 전차와 200여대의 비행기로 무장되어 있고 사우디아

라비아는 14,000여명의 병력이 60여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11,000명의 레바논군은 150대의 전차와 50여대의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이스라엘은 71,000여명의 정규군을 포함 275,000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예비병은 성격상 아랍의 예비병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공군은 주로 3개 전대로 구성된 92대의 미라지 초음속 요격 전투기를 비롯하여 24대의 초음속 슈퍼미스테르 전폭기, 50여대의 미스테르 전폭기와 40대의 우라간 전폭기, 그리고 바투르 II-A 경폭기 24대와 훈

가 보아도 장비나 병력면에서 이스라엘이 현격히 열세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더구나 아랍의 장비들은 최신의 신형무기로써 당시 낫세르는 그들이 실패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고 있었다.

3. 이스라엘 공군의 활약

기습공격은 공군으로부터

이스라엘 공군의 선제 기습공격 3시간만에 이

구 분	이스라엘	아				랍	
		아랍군계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병 력	275,000	438,000	210,000	65,000	70,000	82,000	11,000
부 대	27개 여단	53개 여단	25개 여단	11개 여단	9개 여단	5개 사단	10개 대대
전 차	1,501	2,542	1,200	250	400	650	42
항 공 기	500	1,100	650	50	160	200	40
합 정	55	136	83	5	24	20	4

련용이면서 지상 공격기인 푸가케지스터 연습기 60대를 포함하여 총 500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미 2년전 미국에 주문한 48대의 A-4(스카이 호크)기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앞에서 기술한 대로 요르단의 F-104 전투기를 수령하러 간 조종사들과 같이 미국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다. 또한 해군은 구축함 3척, 잠수함 4척을 비롯하여 쾌속정 중심으로 구성된 19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었다. 개전 초의 아랍군과 이스라엘군은 누

집트 공군력은 소멸되었고 아랍 전지역의 공대공, 지대공 저지망은 완전무력화 되었다. 그만큼 이스라엘 공군의 기습은 완벽한 성공을 거두었다. 전쟁 개시 불과 수시간만에 제공권을 완전 장악했으며 이는 사막위의 기갑전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였던 것이다.

면밀주도한 기습공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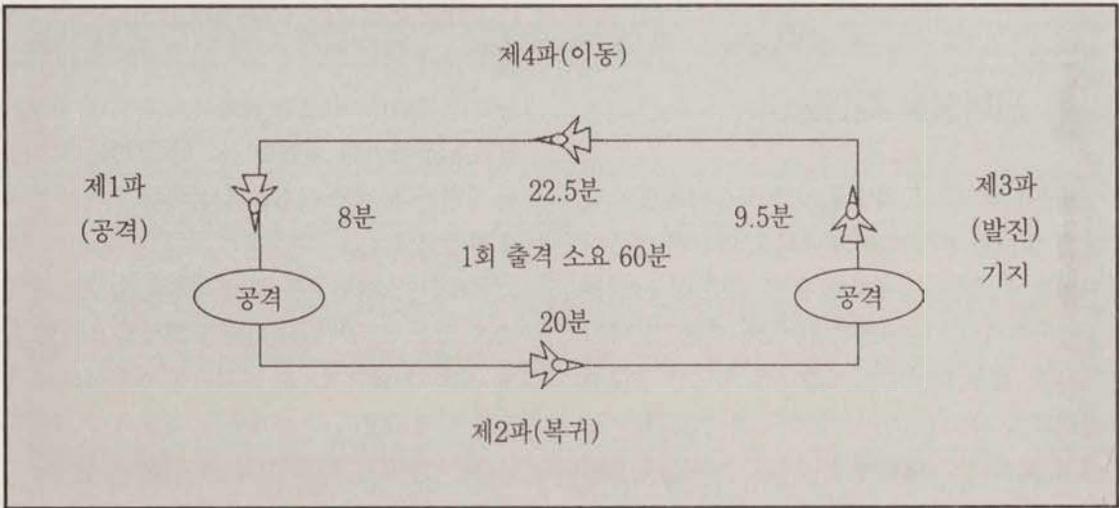
이스라엘 공군은 이집트의 11개 위협도 우선

순위 높은 비행장을 최초로 이후에 여타 비행장과 SAM기지 등 방공시설을 공격하기로 계획하였는데 최초의 공격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완벽한 기습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지만 한번 공격하기 시작한 적의 비행장들은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공격이 중단되어서는 안되었다.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달성하여야 했으므로 각종 정보가 다시 한번 재검토되어 면밀히 분석되었고 이스라엘 자신의 능력과 한계가 컴퓨터와 같이 계산되었다. 또한 시간의 선정 역시 중

도 거의 없거나 최소한으로 줄어들며 기지에 대기하는 공군 조종사들까지도 가장 많이 자리를 뜨는 시간이라는 것이다.

이집트에는 16개소의 전자 탐지기가 시나이 반도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지중해에는 제6함대와 소련의 함선들이 감시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스라엘 공군은 이를 피하여 공격해야만 했다. 때문에 제트기들은 저공으로(100m이하)비행을 해야 했다. 이스라엘 공군은 오랜 시간 동안 이집트 공군의 비행시간대를 연구하였는데



요한 요소로 공격 개시 시간은 07시 45분이었는데, 이 시간은 통상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시간이었고 카이로 일대와 운하 지역에서는 끼어 있던 아침안개가 서서히 개이는 시간이었으며 아랍의 고위 지휘관과 정부요인들의 출근 시간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레이더기지의 근무요원도 통상 그 긴장이 해이해지기 시작하는 시간인 동시에 공중 대기하는 이집트의 항공기들

그들은 언제나 8시 15분전에 이스라엘 공군의 레이더망에서 미그 21기가 비행을 마치고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냈다. 당시 이스라엘 공군기는 숫적인 열세로 인해 아랍 연합보다 출격 횟수를 배로 증가시켜야 했기에 1일 평균 출격횟수를 7회, 심지어 10회까지 증가시켰는데 이는 조종사 뿐만 아니라 지상 정비요원들을 포함한 모두의 혼연일체와 단결 및 헌신적인 노력, 끊임없는 연구의 결과로 이루어진 기적이었다.

이렇게 지속적인 공격을 소수의 비행기로 감당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1대의 비행기가 가능한 여러번 재 출격하는 것뿐이었는데 다행히 이것은 매우 성공리에 수행되었다.

예를 들어 수에즈 운하지역의 비행장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계획에 의하면 목표도달까지 22.5분, 공격시간 8분, 기지로 복귀하는데 20분, 그리고 재급유와 재무장 및 새로운 명령을 수령하는데 7.5분 마지막으로 기지에서의 안전출발을 위해 2분, 총 60분이면 재출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4. 전쟁영웅 다안장군

결프전에서 다국적군 사령관인 슈워츠코프 장군이 탁월한 지도력과 결단력으로 전쟁 영웅이 되었듯이 중동전쟁에서는 모세 다안 장군이 전쟁영웅이었다. 수에즈전쟁(제2차 중동전) 당시 30대의 젊은 나이로 참모총장을 지냈던 유능한 실력자인 다안장군은 수에즈 전쟁이 끝나자 군에서 퇴역하고 대학에서 학업을 계속하였으며 한때 정계에서 농림장관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다안장군은 외눈 장군으로도 유명한데 이스라엘 최초 직업군인 집단인 자위단에 가담하여 시리아에서 독일군에 협공하는 프랑스군과 싸울 당시 눈 하나를 잃었다. 1948년 이스라엘 독립전쟁에서는 현 텔아비브 국제공항이며 이스라엘 교통의 중요기점인 룩도공항을 공격점령하여 용맹을 떨쳤다. 처음 룩도공항을 공격한 지휘관은 다른 사람이었으나 며칠간의 격전에도 함락되지 않았다. 이때 외눈장군 다안이 등장하여 치열한 공격전을 전개한 결과 40분 이내에 공항을 점령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능력을 인정받아 당시의 수상인 벤 구리온으로부터 6일내에 티란 해협을 격파, 점령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으며 전쟁 3일전에 국방장관으로 취임하여 전쟁을 지휘하기에 이르렀다.

다안 장군은 아랍인들에게 포위되어 있는 상태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적시 적절한 기회를 포착하여 이집트에 선제공격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그 기회는 빠르거나 늦어서 안되며 정확하게 시기를 판단하여 당시의 이스라엘 생사 문제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매우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티란 해협은 시나이 반도의 남쪽 끝에 있는 수에즈 운하의 출입구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다. 이곳을 제압하지 못하면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으므로 다안 장군은 이러한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가지 전제를 주장하였다.

첫째, 이스라엘군은 각기 특정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집단군을 편성해야 하며 둘째, 부대가 전격적으로 목적지를 향하여 돌진함으로써 이집트군의 추가개입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쉬지 않고 강행군을 하도록 출발전에 모든 지급지원을 받도록 하였으며 완편된 전투단을 편성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지휘관의 탁월한 지휘력과 정확한 정보수집 및 전과를 바탕으로 치밀한 계획, 그리고 군인들의 깊은 사명감과 조국애의 결과 6일만에 시나이 반도를 완전 점령하게 된 것이다.

5. 전쟁교훈

중동전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 특히 지휘자라면 누구나 중동전쟁을 배우고 연구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나폴레옹 시대의 군사 전문가 조미니는 누구나 상급 지휘자가 되려면 필수적으로 전사에 관한 연구를 해야 하며 그에 대한 비평을 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클라우제비츠도 그의 저서 "전쟁론"에서 전사의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 6일전쟁에서는 병력규모나 무기의 우세가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지 못하였으며 고등 전술과 훈련, 그리고 편성상의 이점이나 뛰어난 지휘능력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또한 외눈장군 모세다안의 탁월한 지휘력은 또하나의 전쟁 영웅을 탄생시켰다. 객관적 전력우세에도 불구하고 아랍이 패한 원인은 정신전력과 교육

훈련의 부족, 외국교리의 무조건적 답습, 장교 및 사병의 낮은 질적수준, 전쟁의지의 부족 등에서였다.

이스라엘과 한반도는 지리적 조건이 비슷하고 상시 전운이 감도는 분위기,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전쟁가능 지역 등 유사점이 많다. 이스라엘이 거대한 아랍족과의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 한반도에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관점이다.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좀더 많은 전쟁연구와 그에 대한 분석 및 받아들이는 태도가 요구된다고 할수 있다. 그런 점에서 6일전쟁, 그리고 모세 다안장군의 지휘능력은 반드시 알고 배울 수 있도록 전 장병에게 권하는 바이다. **공군**

미국 해외군사력 현시(顯示) 변화추세



이 선 호
 한국군사학회 부회장

1. 문제의 제기

냉전기간 중 미국의 해외군사력 현시(顯示)·투재(投財)는 분쟁예방, 위기해소 및 전지구적 영향력 유지를 위한 대외정책의 초석이었다. 그러나 냉전종식과 더불어 다수의 미군부대, 함정 그리고 항공기가 본국으로 철수함으로써 그 임무는 끝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 미군의 해외활동 요청이 다시 대두되고 있는데, 종전과는 달리 현재 더욱 중요한 현시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상기지항공력의 역할이 돋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냉전시대가 끝나는 무렵부터 최근까지의 기간 중 분쟁직전사태에 대해 항공력을 사용한 군사작전이 행동범위, 융통성, 그리고 능력면에서 조용한 혁명을 초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변화추세는 군사기술혁신

과 더불어 다음 세기로 이어질 전망이다.

탈냉전시대 도래이후, 미국이 한정·보호해야 할 국제안보 환경은 극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소련에 의한 군사적 위협이 소멸되고, 적·우방 관계의 변화에 따라 미국은 새로운 형태의 불확실성과 불확정성의 도전에 대응할 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실제 전투 직전의 군사작전에 대한 연속성을 보장하려면, 군사력의 현시임무(military presence mission)가 해외 파병 세력의 영구 주둔, 일상적인 군대 간 접촉, 타국군과의 군사연습, 훈련, 다국적 평화 및 인도주의적 작전 참여, 타국 지도자에 대한 적시적인 정보, 첩보제공, 그리고 예상되는 전투에 대비한 필요 군사력 전개를 포함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의 국가, 군사 전략인 이른바 「참여 및 확대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에서 미국은 대외정책에 대한 군사력의 정치, 군사적 공헌을 강조하면서 군사력 현시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우방의 방위능력을 개선하고, 공통이익을 방호하기 위한 미국의 공약을 시범함으로써, 군사력의 현시는 억제력을 제고하며, 맹우방의 책임분담을 촉구하고, 분쟁야기시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줄이면서 미국의 개입이 불가피한 경우엔 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조성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군사력의 현시는 미국의 국가안보 목표달성을 위한 폭넓은 영역에 걸친 임무수행에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군의 전투작전 수행에 못지 않게 중요한 평화시 과업이라고 하겠다. 실제로 성공적인 군사력 현시는 위기의 확대 개연성을 축소할 뿐만 아니라, 위기대두시 이의 분쟁변환 가능성을 방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규모의 현시작전이 대규모의 전투작전을 예방할 수도 있는 것이다.

2. 현시의 신개념과 군사력 유형

고도로 복잡한 특성을 지닌 군사력의 현시작전을 심리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명확화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현시임무가 해외에 주둔하거나 함상에 있는 군사력의 운용이건, 국내외 기지에 잠정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부대의 활동이건 간에 미국의 방위전략을 뒷받침하는 구성요소의 하나임은 틀림없다.

일상적인 현시작전을 통하여 미국은 맹·우방 관계를 강화하고, 주요 지역에 대한 안보공약의

신뢰성을 증진하며, 협조적인 정치 관계를 윤곽하게 하고 있다. 실제로 현시작전 참가부대는 적 대국의 침략 의도를 좌절시키고, 지역위기를 예방하지만, 최악의 경우엔 우발적으로 분쟁이 야기되면 지체없이 전쟁으로 이행할 하부구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다면적인 특성 때문에 현시작전에 대한 학술적인 또는 실무적인 개념의 정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미합동참모본부의 현행 정의는 다음과 같이 힘의 상징성을 강조하고 있다.

“군사력 현시는 소요 하부구조와 지속능력에 따라 영구적 또는 잠정적으로 해외에 전개될 국력의 총체적 도구이다.”

미국의 탈냉전 이후 안보타산(Security Calculation)과 여건 변화에 따른 군사력 현시작전의 중요성이 부각됨으로써 정책 당국자들은 전통적인 규범을 초월한 새로운 군사력의 유형과 결합된 새로운 전개방법을 모색함과 동시에 변화의 효과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현시작전의 중요성에 대한 폭넓은 의견 일치가 이뤄지고 있기는 하나,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수단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시 임무의 목적과 작전 실행 수단의 복잡성 때문에 어느 군종이 이 임무수행에 가장 적합한가에 대한 장점이 군종간의 경쟁적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국방예산 긴축 추세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논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해당군의 군사력 현시 작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은 곧 자군의 규모와 구조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해군력으로 뒷받침된 대규모 지상군의 해외주둔이 오랫동안 미국이 취해온 현시작전의 주형태였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해외영구 기지수가 감소됨에 따라 종래까지 주로 현시작전의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해군력에 그 지원을 의존하던 전통적인 방법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1990년대말 이후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잠정적인 현시작전은 합동군 조직에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해군력이 아니라 오히려 지상기지 공군력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3. 현시작전의 변화추세

군사력의 해외전개가 대외 정책의 도구로 사용되어 온것은 미국역사상 오랜 관행이었다. 일찍이 19세기에 미해군 함정의 정기적인 아시아, 카리브지역, 지중해 및 북유럽 방문은 미국의 최소 군사력 현시를 대표했으며, 미국과 여타 세계간의 조기 접촉 통로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미국은 쿠바, 푸에르토리코, 하와이, 괌, 필리핀, 그리고 사모아에다 20세기에 영구기지를 획득함으로써 미국의 경제, 정치적 해외이익의 이해를 도모하였으며, 이들 이익을 군사적으로 방호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그후 제2차 대전에 개입하게 된 미국의 결정이 미국의 안보가 유럽의 안보에 치명적인 의존성을 갖는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지만, 미국의 후속 조치는 해외공약을 제한하는 전쟁 이전의 국가전략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대적인 고립주의 지향기

간 중에도 미군사력의 근 25%가 태평양과 카리브해의 미국영토와 기지에 전개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해외 군사력 현시의 목적은 미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세계 각국 정부와의 관계를 설정하며, 미국의 통상을 지원·보호하려는데 초점이 모아졌었다. 이러한 미국의 국가이익에 대한 편협한 정의는 제2차 대전과 더불어 극적인 변화를 맞았으며, 현시작전의 규모와 범위도 바뀌게 되었다.

제2차 대전을 통하여 미국은 전지구적 국익과 책임을 수반한 초강대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리고 종전 후 냉전의 대두와 함께 미국의 해외개입은 계속되었으며, 특히 미지상군과 해군의 유럽, 일본 및 한국 주둔은 반영구적인 현시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들 군사력은 소련의 팽창주의를 방지하고 그 공격을 저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미군이 해외에 물리적으로 존재함으로써 유럽과 아시아에 있어서 만방에 대한 안보공약을 보장하고 지역재건에 필요한 안정성을 제공하였다.

이에 부각하여 미군사력의 해외전개는 역내에서 정기적으로 대규모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미국의 결의를 다짐하고 소련의 침공에 대항할 실질적인 태세강화에 이바지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냉전기간중 양 초강대국의 직접 대결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유럽과 아시아의 상대적인 평화유지에 일조하였다.

한편 중동과 북아프리카 같은 특수 지역에 대한 물리적인 현시가 불가능한 경우엔 해군력에 의한 윤번 현시(Rotational Presence)의 형태가 미국의 국가이익을 방호하기 위해 치명적인 도구의 역할을 했음을 입증하였다. 특히 막강한

항모전투단(Carrier Battle Group)의 투입은 미국의 이익과 공약을 지키려는 융통성 있고 강압적인 국력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맹우방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유엔 평화유지 작전 참여는 미국의 대외정책을 뒷받침하는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지난 반세기 동안 지·공군력의 영구적 해외 주둔과 해군력의 운반 전개란 2가지 형태의 현시활동이 미국의 해외군사력 현시작전의 개념을 형성해왔다. 그러나 이제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이러한 형태의 현시를 제도적으로 보완·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대두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소련의 붕괴로 말미암아 기존의 대규모 미군 해외 영구 주둔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이 그 논거를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이미 유럽과 아시아로부터 다수의 미군이 극적인 철수를 단행한바 있다. 이는 미국의 군사력 규모와 구조의 변화를 촉진하고 국방인력과 예산의 감축을 부채질함으로써 미군의 영구 해외주둔 지원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종래의 대규모 지상조 영구주둔 보다는 탈냉전시대 도래 이후엔 해군의 운반 현시에 대한 의존이 더욱 현실화됨으로써 특정군이 아닌 합동군사력의 전개는 물론, 지상기지 항공력의 개입이 점차 그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사태지역에 대한 대응조치가 군사력의 영구주둔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인도주의적 행동으로써 전쟁 이외 군사작전(Moutw)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1981년부터 1995년까지의 기간 중 미국은 1,100건에 달하는 해외 현시작전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232건이 인도주

의적 임무였고, 39건이 평화유지작전이었으며, 107건이 위기대응 임무였고, 570건이 미공군의 요원과 장비가 동원된 군사훈련이었다고 한다.

놀랍게도 미공군이 기간 중 연평균 70~120회의 현시작전에 참가한 결과가 나왔다.

근자에 와서 현시작전의 전반적인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평균 작전 지속 기간은 오히려 길어짐으로써 미공군의 현시작전 참가 빈도가 더 증가되는 현상 속에서 지상기지 항공력의 현시작전 참가와 역할이 증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난 이후 1995년까지의 미공군력의 요소 부대별 현시작전 참가 수적 일자는 4,600일로서 종전보다 약 2배의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공군의 해외군사력 현시작전에 대한 기여도가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전소요를 충족하기 위한 가용인원은 당국의 전력구조 감축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향조정되고 있는 모순을 빚고 있다. 공군력이 포함된 현시작전은 주로 항공정찰, 공중감시, 지휘, 통제, 항공수송, 공중재급유 등으로서 제한된 지원 환경하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조종사들이 그 주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투항공기들은 전례 없이 공세적인 장거리 비행을 무릅쓰고 있음이 특징이다.

4. 지상기지 항공력의 역할

가. 현시 능력 부여

공군의 자산은 타 군종의 현시작전에 가능력을 부여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1981년부터 1995년 사이의 현시 작전에서 타 군종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미공군이 참여한 경우가 30% 이상이나 된다.

이는 특히 항공수송 세력에 의해 수행된 긴급 수송 및 재보급 작전에 있어서 분명히 나타났다.

사실 미공군의 대형항공 수송기들은 인도주의적 및 정치적 위기에 대응하여 미국이 수행한 대부분의 현시작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재급유 항공기(Tanker aircraft)도 눈에 안보이게 평시 훈련으로부터 비행금지구역 이행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현시작전 활동에서 지원임무를 담당했던 것이다.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합동 현시작전 수행시 필수적인 공중경보 및 통제체계(AWACS)항공기와 기타 감시항공기이다. 이들 항공기는 특히 해군의 해상작전 활동에 팔목 할만한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 맹·우방에게 안도감

미 공군이 1940년대 말에 유럽에 B-29 폭격기를 배치함으로써 영국과 독일정치 지도자들에게 NATO 형성 이전의 소련의 위협에 대항하여 확고부동한 자세를 취하도록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영향을 미친 바 있다. 항공력의 신속 전개는 많은 위기 대응 상황 하에서 미국의 안보공약을 확실히 가시적으로 보장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예를 들면, 걸프전쟁시 이스라엘에 신속하게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공수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안심시키고, 대 이라크 보복공격을 자제케함으로써 회교권의 단합을 좌절시켜 중동 사태를 해결하는데 일조했던 것이다.

결국 저속 기동하는 해군력이나 대규모 주둔이 곤란한 지상군의 장기간 주둔이나 전개약속

보다도 신속한 항공력의 단기전개가 미국의 맹우방을 안도케하고 기쁨을 주는데 훨씬 효과적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와의 연합·합동훈련에 미공군부대가 참여함으로써 위기시에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공약의 신호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한국과의 팀스필리트 훈련은 한·미간의 안보관계를 공고히하고, 북한에게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국가이익을 수호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데 안성마춤이란 것이다.

다. 위기사태 해결에 영향력 행사

미공군력은 세계 도처의 즉각적이거나 장기적인 사태해결 결과에 가치있는 도움을 주고 당사국과의 관계증진에 이바지하게 된다. 특히 미공군의 AWACS 항공기의 위기시 운용은 그 효율성과 초능력 때문에 커다란 전쟁예방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예를 들면 이란-이라크 전쟁 기간 중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24시간 AWACS항공기에 의한 감시는 당사국에 결정적인 안보공약의 이행으로 받아들여져 결국 미군기지를 건설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걸프전쟁시 효과적인 전력투사를 위한 발판이 마련될 수 있었다. 이는 미공군력의 영향력 행사가 보여준 일석이조의 전략적 효과였다.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 작전 지원을 위해 전개되는 항공력도 미국의 해외 영향력 행사를 위한 기반이 된다.

이는 원방지역에 있어서 미국의 선의를 심어 주고, 국제적 협력을 위한 결집력을 제공하며, 고통받는 세계 도처의 주민들을 도와주려는 미국의 의지를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도주의적 작전은 구호장비나 보급품의 긴급공수만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보완적 군사력의 동반이 요구되지만, 정치·군사적 위협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허다하다.

라. 억제 및 위기대응

미공군력의 가장 극적인 시범은 세계도처의 침략위협과 위기 사태에 대처하는 능력이라고 하겠다.

예를 들면, 1981년에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에 다른 북한의 도발책동이 가시화됐을 당시 미 공군은 B-52 폭격기들을 휴전선 일대에 시위비행케함으로써 북한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항공전력은 잠재적 적대국의 지도자와 군인들에게 강력하고도 확고부동한 심리적 위협의 신호를 전달하게 됨으로 억제 및 위기대응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 해외기지의 가용성이 제한되고 있는 추세와 관련하여 미공군이 추구하는 바, 미국본토기지에서부터 전지구적 유효범위의 항공타격력을 갖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걸프전쟁 종결 직전에 미 본토로부터 출격한 다수의 B-52와 B-1 폭격기가 쿠웨이트로부터 퇴각하고 있는 이라크의 폐잔병이 남기고간 고철이나 다름없는 전차들을 표적으로 일시에 110발의 폭탄을 퍼붓는 연습폭격을 감행함으로써 가시적이고 상징적인 힘의 시위를 통해 간담이 서늘해진 이라크군의 조기항복을 이끌어 내었던 것을 좋은 사례라고 하겠다.

5. 결론 및 전망

신뢰성 있는 미국의 군사력 현시는 오늘날과 다름없이 미래에도 그 필요성이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국방자원의 유한성과 재정적 긴축 때문에 미국의 해외 군사력 현시는 더욱 비용과 효과 면에서 유리한 수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고려될 것이다.

지난 15년 간에 걸쳐 미국이 수행한 현시작전을 통해 볼 때, 지상기지 항공세력에 의한 작전이 비용, 효과 분석에서 혁신적인 이점이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들 지상군의 장기 주둔이나 항모타격부대 중심의 해군력 윤번 현시보다도 지상기지 항공력의 신속하고 단기임무수행 가능한 현시작전이 더욱 경제적이고 성과가 크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오늘날 전세계에 걸쳐 가장 중요한 미국의 현시작전은 지상기지 항공세력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이 사실이다. 미국의 항공력이 그 유효범위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신기술 도입과 더불어 미래의 해외 세력 현시를 위한 역할은 그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장거리 타격능력, 은밀침투비행능력 그리고 정밀 유도 능력은 미공군의 현시작전을 위한 능력 부여 맹우방 안도, 위기사태 해결 그리고 억제·위기대응 역할을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군사기술 혁신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의 공약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동원될 선진 항공전력은 다음 세기에도 계속하여 미국의 해외개입의 주력군으로서 공군이 그 진가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중문**



놀라운 사실, 그리고 새로운 다짐

— 강릉 잠수함 침투 생포간첩 이광수씨 초청강연회 소감 —

박 상 빈

병장/공군본부 본부사령실



지난 11월 11일, 계룡대 대강당에서는 1996년 9월에 강릉에서 잠수함 침투를 감행하다 야군에 의해 유일하게 생포된 이광수씨를 초청하여 안보강연회를 가졌다. 처음 참석했을 때는 그저 일정에 짜여있는 대로 행해지는 하나의 행사쯤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광수씨의 증언과 실제체험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더한 것은 그의 말 한마디가 안일하게 군생활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질책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시켰다는 것이다. 사실, 강연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줄곧 나의 마음은 자기반성의 순간을 맞이하느라 혼란스러웠다.

강연회에 처음 서는 자리라 그런지 다소 어눌한 말투였다. 하지만 그의 말은 진실로 가득했다. 내 자신의 나태함에 대한 반성도 반성이지만 보람되고 성실한 군복무를 해야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전해주는 유익한 시간임이 분명했다.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북괴 특수군 침투양상

및 전쟁준비 실태'라는 연제로 강연을 한 이광수씨가 장병들에게 전하던 말이 귓가에 맴돈다.

“장병 정신상태가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을 전하던 그 순간을 나는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한다. 비록 그의 어투는 세련되지는 못했지만 힘이 실려 있었다.

강연회에 임하는 그의 모습엔 자유에 대한 갈망과 행복을 위한 강한 집착이 엿보였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이 묵살되는 북괴에서의 생활에 대한 후회였다. 그의 인간적인 부분도 느낄 수 있었다.

현재 부모형제를 모두 북에 두고 있으며, 3남 3녀중 둘째라고 밝히는 과정에서는 아픈 감정을 애써 감추려 하는 모습이였다. 그런 그의 모습 속에서 혈육의 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게 했다.

그의 군 생활은 9년 동안의 학교생활을 마감한 후 바로 입대하여 한달 동안의 신병교육과 5달 동안의 잠수함 양성교육과정을 거쳤다고 했



다. 그후 9년 5개월 가량을 해군 병사로 복무하면서 제대 후에는 경찰국 조원 소위로 생활하다가 침투부대 3기지에서 침투훈련을 받는 등 15년여 동안 군생활을 했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의 대부분은 군생활로 채워졌다고 할 수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군생활 중에 집으로 휴가를 갈 수 있었던 기간은 거의 전무했다고 할 수 있는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북괴군의 생활상 자체가 모든 면에서 훈련의 반복과 전장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의 주임무는 남한의 해상을 이용해 대남 공작원을 남한으로 침투시키는 것이었다.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쳐 침투조에 합격을 받은 이광수씨는 침투사건이 있기 몇 일 전인 9월 13일에 경찰국장이 직접 주관한 회식자리에서 남한침투를 지시받았는데 강조사항 중에는 흔적을 남기지 마라, 남한군과 절대로 교전을 피하라, 조우시에는 자폭하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한다.

그 자리는 분명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목숨마저도 한낱 수단에 불과하다는 북괴식의 사고방식이 지배했으리라.

14일 새벽에 출발할 당시에는 침투조는 2년에 한계급 상승하는 관례와 함께 소장(소령)진급의 특별 대우를 받았으며, 이윽고 15일 CCTV로 강릉해안의 경비상태를 촬영하는 등의 과감한 도발을 자행했다고 한다.

강릉해안에서 잠수함이 발견되고 생포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 보면 17일 23시경에 공작원을 접선하기 위해 해안으로 향하던 중에 잠수정이 좌초되었으며, 18일에 산간 지형을 이용한 육상으로 탈출을 위해 북으로 도주 중에 주민신고로 체

포되었다고 한다.

그가 북괴군 시절에 남한군에 대해 들었던 얘기는 “남한군은 물”이라고 한다. 사실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광수씨의 그 말속에서 내 자신을 비롯한 모든 군인들은 보다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자성의 기회도 가져 보았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잠수함이나 잠수정을 이용한 침투는 90년도부터 시도되었으며, 그때마다 남한 경비상태가 다소 허술한 점을 이용해 담배를 피고 놀다가 남한고추를 따서 북으로 가지고가서 먹었다는 얘기는 실로 섬뜩함을 전해주기에 충분했다.

강연회를 모두 듣고 강당에서 나오는 순간에 난 “과연 이광수씨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무엇일까”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우선은 내 자신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겸허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군복을 입고 있음으로 인해서 가질 수 있는 사명감을 한낱 사치스런 감정으로 치부하지는 않았는지 하는 반성도 해보았다.

분명한 것은 북괴는 아직까지도 분단 이후 지금까지 대남 적화 야욕을 단 한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며,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바로 작년 가을의 강릉 무장공비 침투와 금년 7월에 있었던 DMZ 월경 및 총격도발 사건 등으로도 충분하다.

사실 나는 요즘 말하는 소위 신세대 장병이다. 무엇보다도 전쟁에 대한 경험이 없는 세대다. 그런 내 자신이 이 나라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전쟁의 경험도 중요하겠지만 그러한 아쉬움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투철한 군인정신과 굳은 전우애라는 사



실이다.

강한 국군의 위상을 떨친 장병들을 기억한다. 또한 소탕작전에 임해 공비들을 사살한 장병들의 자랑스런 얼굴을 기억한다. 그들에게 가장 커다란 무기는 강한 훈련이었다. 나 역시 대한의 아들로서 강한 국군의 일원으로서 당당한 주인공이 되리라 다짐해 본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권리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괴는 여전히 주체사상이니 영원한 지도자 김정일이니 하는 구호로 인간다운 삶 자체를 목살하고 있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가장 당연한 권리를 목살하는 잔인한 북체제의 모순성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그런 북괴의 횡포를 결코 묵인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자세인 것이다. 우리 군은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수호자이기 때문이다.

정의실현은 어찌 보면 하늘이 인간에게 내려준 가장 커다란 특혜일지도 모른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의 어린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식량지원을 총알로 반환하는 그들의 작태는 실로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어찌 그러고서도 영도자니 인민해방이니 하는 말을 쓸 수 있는지 북괴에게 묻고 싶은 심정이다.

이광수씨가 생포 이후 남한의 자유로운 생활과 관계기관의 배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은 바로 그 동안의 북괴군 생활이 얼마나 혹독했는지를 전해주기에 충분했다.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이후 외출 때에 친구들과로부터 힘들겠구나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당당

하게 그 어떤 말을 하지 못했던 내 자신을 기억한다. 분명한 것은 우리 군의 대비태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투철하다고 힘주어 말했어야 했다.

전역을 8개월 정도 앞둔 나에게 요즘 들어 수많은 생각이 찾아 든다. 나를 포함한 신세대 장병들은 과연 대북 경계태세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혹은 군인으로서의 당당한 모습을 가꿔나가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나에게서는 공군을 사랑하는 마음과 공군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이 있다. 그렇기에 대적우위의 자신감도 있다. 물론,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그 어떤 힘을 구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자 하는 열정도 있다. 난 내 자신을 믿는다. 또한, 내 후배장병들 역시 든든하다. 틈이 날 때마다 난 후배장병들에게 자유의 소중함과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을 전하고자 한다.

아무쪼록 내 자신의 임무에 대한 자부심과 내 분야만큼은 최고의 전문가가 되겠다는 기질이 필요하겠다. 무엇보다도 강한 훈련만이 승리를 보장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음을 이번 강연회를 통해 얻은 값진 결실이라 하겠다. **END**

최강의 초격 철매 공군 제8988부대

가장 가까이서, 가장 높이, 가장 넓게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철매용사들



올해로 창설 26주년을 맞는 공군 제8988부대는 유사시 적과 가장 먼저 전투를 벌이는 최전방 방공포병부대이다.

제8988부대는 조국 대공방어의 첨병이며 최강의 정예 철매용사라는 자긍심과 한순간의 방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오늘도 24시간 중단 없는 대공방어망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부 · 대 · 탐 · 방



▲ 지대공 유도탄 사격대회



▲ 미스트랄 추적훈련



▲ 야외종합전술훈련

제8988부대는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후방 지역과는 달리 항상 위기감이 피부에 와닿는다. 그래서 이 부대 장병들은 어느 부대 장병보다도 국가관이 투철하고 조국 대공방어 임무 완수에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사명감에 충실히 있다.

전시 북한이 대량의 항공기와 각종 유도무기에 의한 선제 기습 공격으로 제공권을 조기 장악하기 위해 단기 결전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사시 적기와 최초로 교전하게 되는 방공 전력의 비중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볼 때, 공군 방공포병부대 중 최일선 부대이며 예하에 최북단 포대와 동양 최고 고지에 위치한 포대를 거느리고 최전방 전개 임무를 수행하는 8988부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부대는 방공포병의 '혼'과 '기'가 확립된 기백 있는 방공포병인으로서 개전 초 최초 교전부대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오늘도 24시간 중단 없는 대공방어망 체제 구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 노력은 1991년과 1994년에 최우수 방공포병 부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로 이어졌다.

「초격 철매」, 이 구호는 부대 정문 입구의 기념석에 붉은 글씨로 쓰여져 있다. 이말에는 유사시 어떤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하여 적기를 초전에 격추시키겠다는 전장병들의 굳은 의지와 비장한 각오가 함축되어 있다.

8988부대는 연 1회 지대공 유도탄

부 · 대 · 탐 · 방

사격대회 및 대공포 실탄사격 훈련을 통해 실전에 기초한 전투력 배양에 힘쓰는 한편, 유사시 생존능력 배양 및 이동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분기마다 야외종합전술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항시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부대 내 핵심요원들에게 일정 기간씩 강도 높은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습·실기 위주의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전술조치 능력을 배양하고, 방공작전의 이론과 원칙, 방공훈련 사례 연구 교육도 병행함으로써 간접적 전술조치 경험을 터득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장병 직무교육에도 반영되어 '직무전문가' 육성을 위한 1:1 교육, 부대별·특기별 경연대회, 교관 연구강의 등을 통해 교육훈련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편, 8988부대는 "잘 뛰고, 잘 씻고, 잘 쉬게하라"는 구호 아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신바람 나는 병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93년에 현대식 통합내무반을 신축하여 독서실·오락실·BX 등을 갖추었으며, 다양한 취미생활을 통해 정서순화 및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문화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처럼 제8988부대는 '전문성'과 '아전성'을 겸비한 새로운 공군문화를 만들어가는 부대로 발전하고 있으며, 방공포병의 선두 주자로서 부대장과 전부대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철통같은 대공방어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신속한 근접정비지원



▲ 실전적 교육훈련



▲ 동아리 경연대회

♣ 제33회 공군지상사격대회 개최



▲ 실질적 교육훈련의 내실화와 전부대의 사격 기량 향상을 위한 제33회 공군지상 사격대회가 교육사령부 기본군사훈련단 사격장에서 개최되었다. 컴퓨터를 통해 무작위로 선발된 32개 부대 128명의 사수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종합적인 사격 능력 평가를 위해 사격 이론평가가 함께 실시되었다. (10.7~9)

♣ 10쌍의 선남선녀 진중합동결혼식 거행



▲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던 열쌍의 선남선녀들에 대한 진중합동결혼식이 제19전투비행단 연병장에서 거행되었다. 실질적이고 검소한 결혼식으로 새로운 결혼문화를 조성하자는 부대장의 제안으로 이뤄진 이날 결혼식에는 가족, 친지들과 부대동료들, 그리고 지역 유지 등, 많은 하객들이 참석하여 이들 부부의 앞길을 축복하였다. (10.10)

✦ 8만시간 무사고 비행 쾌거



▲ 제18전투비행단 205전투비행대대의 8만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에 대한 시상식이 참모총장이 임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번 기록은 전투기 단일 기종으로서는 공군 역사상 최초이자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기록으로 평가된다. (10.11)

✦ 국민행사 유공부대 대통령 표창



▲ 제15헌성비행단은 지난 93년부터 현재까지 총 5백여회 이상의 각종 국민 및 정부행사를 완벽하게 수행, 국가안보와 외교업무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부대표창을 수상하였다. (10.11)

제12회 공군참모총장배 행글라이딩 대회

항공사상 양양과 대국민 홍보를 위한 제12회 공군참모총장배 행글라이딩 대회가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공군사관학교에서 실시되었다. 이번 대회는 15개 단체 52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벌였으며, 다양한 시범 및 축하행사, 지상전시로 홍보성과를 제고하였다.



▲ 선수 선서



▲ 블랙이글 특수비행



▲ 성우봉(이륙장)



▲ 경기 장면

'97 전자전/모의훈련체계 세미나 및 전시회

전자전 및 모의훈련체계에 관한 기술이론 및 실제 응용기술을 소개하고 동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97 전자전/모의훈련체계 세미나 및 전시회가 한국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공동으로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개최되었다.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전문가 33명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전시회에서는 전세계 선진업체 17개사가 내놓은 24점이 선보여 전자전과 모의훈련 분야 기술을 조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전시회 개장식(기지체육관)



▲ 세미나(기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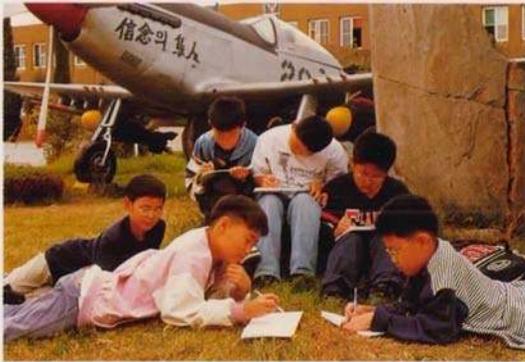
▲ 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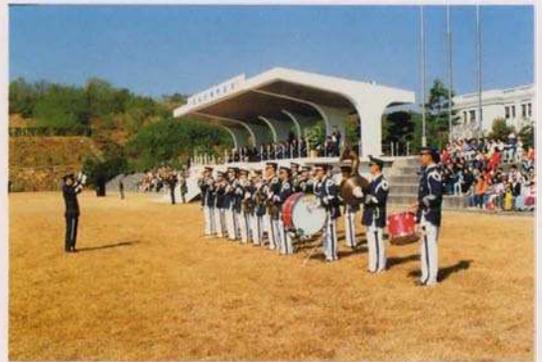
▲ 전시장

제14회 호국문예행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하늘에 대한 동경심을 심어주기 위한 제14회 호국문예행사가 전국 13개 지역에서 10월 1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되었다. 항공기 전시, 조종복 입고 사진찍기, 공군홍보영화 상영 등, 다양한 볼거리를 어린이들에게 제공하여 공군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입상작들은 호국문예작품집 “하늘행진곡”에 수록된다.



▲ 창작 활동(제18전투비행단)



▲ 군악 시범(교육사령부)



▲ 수송기 시승(제15훈련비행단)



▲ 군견 시범(제5전술공수비행단)

호/국/문/예/작/품

- ◎ 어렸을 제, 어렸을 제
- ◎ 보라매 용사
- ◎ 파란 저 하늘을 가르며
- ◎ 아버지의 사진첩
- ◎ 하늘을 날으는 우리 공군 아저씨

어렸을 제, 어렸을 제

이 수 빈

5년/광주백일초등학교



어렸을 제
어렸을 제
우리 삼촌 곤색 군복
경찰인 듯 생각되어
도둑 잡자 떼를 썼죠.

어렸을 제
어렸을 제
우리 삼촌 빨간마후라
인형치마 만든다고
나 달라고 떼를 썼죠

어렸을 제
어렸을 제
우리 삼촌 하늘 나니
나도 날고 싶어져서
태워달라 떼를 썼죠

떼를 써도
떼를 써도
웃기만 하는 우리 삼촌

나라 지키고
하늘 지키는
용감한 공군이래요.

보라매 용사

최예원

5년/강원한솔초등학교



높고 넓은 푸른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공군아저씨

높고 넓은 푸른하늘에
평화의 씨를
뿌려주는
공군아저씨

높고 넓은 푸른 하늘에서
멋있는 제트기를 타고
우리를 지켜주는
공군아저씨

빨간 머플러
바람에 날리며
오늘은
무슨 일 하실까

저 높은 우주의
통일의 별 따오실까?

통일의 별 따오시면
소원 한가지
부탁하고 싶어요

공군아저씨!
북한 아이들의
마음 속에도
통일의 빛을 심어주세요

파란 저 하늘을 가르며

윤 송 이

5년/진주 중앙초등학교



햇살을 듬뿍먹고 날개를 펴보인다.
주먹을 굳게 내민 창공의 빛나는 별
저푸른 하늘 가르며 용기먹고 날은다

빠알간 마후라를 걸치고 나가신다.
통일을 앞당기는 하늘의 주인공들
바람도 그 앞에서는 꿈쩍없이 물러나네

푸르게 물들어진 하늘을 치솟는다.
태양처럼 타오르는 정열의 은빛 날개
오늘도 희망 안고서 하늘 위를 날으네

파아란 저 하늘에 호국정신 가득시고
삼천리 방방곡곡 통일의 혼을 담아
오늘도 호국의 방패 하늘을 지키련다.

아빠의 사진첩

김 정 원

6년/서울교대부속초등학교



얼마전, 아빠께 공군에 대해 여쭙어 본 적이 있었다.

“아빠, 공군이 뭐예요?”

“공군하면 또 아빠아니냐? 공군이 무엇이나 하면...”

아빠께서는 잠시 생각에 젖어드신 듯 말이 없으셨다. 조금 뒤, 아빠께서는 말문을 여셨다.

“정원아, 저기 아빠 책장에서 앨범 좀 찾아올래?”

나는 영문도 모른채 아빠의 책장으로 갔다. 책을 뒤적거리다가 먼지가 수북히 쌓인 앨범을 찾을 수가 있었다.

“아빠, 이 앨범이요?”

“그래, 잘 찾았구나. 그럼, 이제 그 앨범 가지고 이리 와서 앉아라.”

나는 앨범의 먼지를 털고 아빠 곁에 가서 앉았다. 아빠는 앨범을 펼치시고 설명을 시작하셨다.

“정원아, 육군이 땅에서 나라를 지키고, 해군이 바다에서 나라를 지키듯이 공군은 하늘에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지. 아빠도 젊었을 때는 공군이었던단다. 그 땐 정말 힘들었지. 정원아, 이 사진을 보렴.”

나는 아빠가 가리키시는 사진을 보았다. 그 사진에는 아빠가 조종복을 입으시고 커다란 비행기 앞에서 계셨다.

“우와! 아빠 꼭 비행기 조종사 같아요.”

어느새 내 남동생이 내 뒤에서 사진을 보고 신기해 했다.

“이 사진은 아빠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조종하게 되어서 기념으로 친구가 찍어 준 사진이야. 이 사진은 아빠랑 같이 일하던 아저씨들이랑 함께 찍은 거고...”

“아빠, 그럼요, 공군이었을 때 재미있었던 일 하나만 들려주세요. 네?”

“그래, 그럼, 하나만 들려주지. 군에 입대하고 처음으로 무서움을 느낀 날이었어.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매고 뛰어내리는 훈련을 했는데, 왜 그리도 무서웠는지, 하늘이 높다든 것을 알게 되어

서였을거야... 땅을 쳐다보니까, 사람이 점같이 보이는 거야. 안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얼떨결에 뛰어내렸다. 뭐.”

“아빠, 공군하면 재미있는거야?”

“그럼, 명석이도 공군시킬 거야, 이 아빠가 꼭!”

나는 그날밤 꿈을 꾸었다. 먼 훗날 우리나라 공군아저씨들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공군으로 인정받는 모습을...

난 오늘도 다짐한다. 아빠의 사진첩 속에 담긴 멋진 사진들을 마음 깊이 새기며... **등단**

간첩신고 및 대공상담

전화 : 효)0113, 02)506-0113
042)551-2113, 태)0113

간 첩 선 : 1억5천만원

간 첩 : 1억원

좌익사범 : 3천만원

★ 자수 — 신고자 신분절대 보장

공군본부 기무부대

하늘을 날으는 우리공군 아저씨

황 혜 립

4년/대구매호초등학교



지난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그날은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포스터를 그리는 날입니다. 나는 하얀 도화지에 은빛 비행기를 타고 파아란 하늘을 날으는 공군 아저씨를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도화지에 빨간 마후라를 두른 공군 조종사가 공군 전투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쌩쌩' 날으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우리나라 태극기도 커다랗게 그리고 비둘기도 그려넣었습니다. 또 포스터 안에 커다란 글씨로 '하늘을 지키는 우리 공군 아저씨' 라고 적었습니다. 이때 선생님께서 내걸으러 오시더니

“아주 잘 그렸구나. 도화지 뒤에 포스터 내용을 보고 시를 한번 써 보겠니?”

하시며 싱긋 웃으셨습니다. 나는 포스터를 다 그린 다음 선생님 말씀대로 포스터 뒤에 시를 썼습니다.

하늘을 지키는 공군 전투기

파란 하늘에

은빛 우리 공군 전투기

씩씩한 우리 공군 아저씨들

빨간 마후라 두르고

한마리의 새가되어

한겨레 한민족

민족의 슬픔을 아는지 푸른 가을에 날아가네요

하늘을 지키는 공군이 되어

통일의 그날을 위해 평화를 위해

한마리의 비둘기처럼

날아가고 싶구나

용감하고 늠름한
대한의 딸
여자 비행사가
평화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시를 다 쓴 다음 선생님께 갖다 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내 시를 읽어보시더니 반아이들을 모두 조용히 시킨 다음 시를 낭송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좀 숙쓰러웠지만 천천히 낭송하였습니다. 낭송이 끝나자 아이들은 손뼉을 쳤습니다.

나는 그날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지금도 내가 쓴 시는 교실 뒷벽에 걸려 있습니다.

나는 하늘을 날으는 공군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공군 부대를 둘러 보고 또 공군 아저씨들의 용감한 활동상의 영화를 지켜 보면서 나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올해부터 공군사관학교에서는 여생도도 모집한다는 이야기는 나에게 더욱 부푼 꿈을 안겨줍니다. 여자 전투 조종사가 되어서 멋진 전투기로 푸른 하늘을 날으며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장한 대한의 딸이 되고 싶습니다. **중문**

예산의 이해

— 국방예산을 중심으로 —



김 태 욱

소령/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1. 예산의 의의

국가의 재정활동은 『값싼정부』(Cheap Government)를 이상으로 하던 과거에는 주로 국방, 외교, 치안과 같은 국가존립의 기초유지를 위한 1차적인 기능에서 그 의의를 찾았으나, 현대국가에 있어서 국가기능이 복잡다양해지고 국가에 대한 공공의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국민경제의 성장발전과 사회복지 증진하는 기능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예산은 국가의 정책이념과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일련의 계획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예산을 통한 재정활동은 그 규모의 방대성과 기능의 다양성으로 말미암아 국민경제 전체에 대하여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재정활동 영역의 확대는 더욱 더 증가되는데 반하여, 정부가 사회로부

터 자원을 동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의 재정정책이 능률적이며 효율적으로 100% 성과를 나타내는 데는 더욱 더 일정한 한계가 따르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사회변화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때로는 사회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일정한 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를 경제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자금을 동원하고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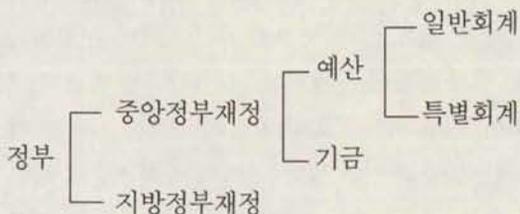
즉, 일정한 기간 동안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 하에 국가의 주요정책이 구체화되고 실제 행동에 실행되는 일련의 과정 전체의 계획이 바로 예산으로 대변될 수 있다. 이러한 예산은 통상 한정된 범위 내에서 사회전반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항상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조정을 통하여 예산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와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국제안보환경의 새로운 틀 속에서의 복잡다기능한 변화 등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특정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므로, 미래 지향적인 21C 국가변영이라는 소임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국방비에 대한 이해의 재 접근은 그 어느때 보다 실로 중요하며, 각계각층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예산이라는 분배의 몫을 국방비의 단위로 구분지어 나누는데 대한 사건(?)은 더더욱 지혜로운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논리근거를 제공해 주어야만 하는 힘겨운 의무를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예산의 이해와 고찰은, 국방비에 대한 합리적인 배분노력이라는 대 명제 이전에 어떻게 합목적인 국방예산 운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귀결이며, 이것은 곧 공세적인 예산획득 논리개발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우선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예산의 범위와 체계

가. 예산의 범위



〈그림 1 : 예산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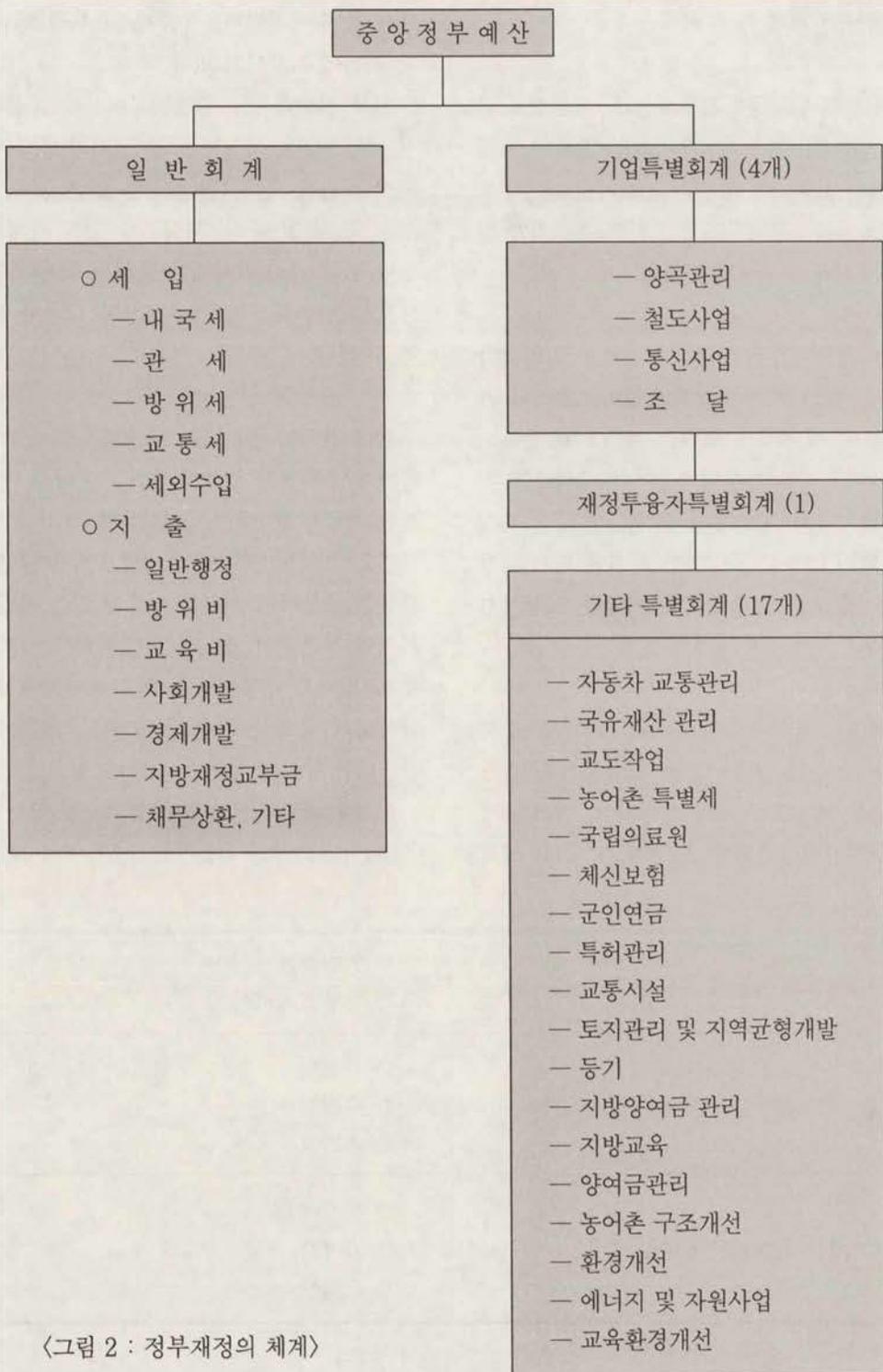
〈그림 1〉에서 보면, 국가의 경제활동은 크게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공 부문은 다시 공공기관과 정부활동으로 구분되며, 정부활동은 중앙정부재정과 지방정부재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정부재정은 통상 실제 업무수행 측면에서 볼 때 주로 중앙정부재정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앙정부재정활동은 다시 예산과 기금으로 구분되는데, 우리가 업무상 중앙정부예산이라고 할 때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을 의미하게 되며 기금은 중앙정부 재정활동으로는 파악되나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중 일반회계는 중앙정부예산의 중심회계로서 중앙정부의 전(全) 조세수입이 집결되고 기본적인 국가고유활동과 주요 재정사업이 모두 이 회계를 통하여 계리(計理)되므로 통상 예산이라고 할 때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만을 두고 일컫는 경우가 많다.

예산회계법 제18조에서는 세입세출의 정의 및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한다. ②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및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차관물자대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예산의 세입세출의 명확한 정의를 통한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에 대한 통상적인 고유활동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그림 2 : 정부재정의 체계〉

나. 예산의 체계

중앙정부재정은 중앙정부예산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97년도 정부예산은 <그림 2>에서 처럼 일반회계와 4개 기업 특별회계 그리고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를 비롯한 18개의 기타 특별회계 등 22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기금은 중앙정부의 재정활동으로는 파악되나 그 운용은 예산 외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이 비록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예산 외로 운용된다 하더라도 기금의 사업내용이나 재원조달 및 운용과정은 통화, 재정수지 등 정부의 주요 재정활동과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정부의 재정활동은 정부예산과 기금을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반회계는 중앙정부의 내국세, 관세 등 조세 수입과 차관수입, 재화 및 용역의 판매수입 등 세외수입을 세입으로 하여 편성되며, 이러한 세입은 정부의 일반행정비, 방위비, 교육비, 사회

개발비, 경제개발비, 지방재정교부금 및 채무상환·기타에 지출되고 있다.

결국 일반회계는 중앙정부예산의 중심회계로서 치안, 사법, 국토방위 등 국가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기능은 물론 교육, 주택, 수송, 전력 및 동력, 과학기술 등의 경제개발사업이 모두 이 일반회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일반회계는 정부재정의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 예산회계법 제9조는 ① 국가에서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운영할 때 ② 특별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③ 기타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 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예로써 군인연금사업의 운용을 위한 군인연금 특별회계법의 군인연금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군인연금 현황을 살펴보면 '97 예산은 '96대비 365억원이 증가한 9,573억의 세출규모

세입의 성질에 따른 종류	○ 일반회계예산 ○ 특별회계예산
예산 절차상의 특징에 따른 종류	○ 본예산 ○ 수정예산 ○ 추가경정예산
예산 집행절차에 따른 종류	○ 잠정예산 ○ 가예산 ○ 준예산

<그림 3 : 예산의 종류>

로 편성되었으며, 재원전달방식에 있어서는 자체수입 1,347억원과 부족액 8,226억원을 일반회계지원의 형식으로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다.

군인연금사업의 운용을 위한 군인연금 특별회계법의 군인연금 등이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군인연금현황을 살펴보면 '97 예산은 '96 대비 365억원이 증가한 9,573억의 세출규모로 편성되어 있으며, 재원조달방식에 있어서는 자체수입 1,347억원과 부족액 8,226억원을 일반회계지원의 형식으로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다.

다. 예산의 종류

예산의 종류를 어떻게 보느냐는 사실 정부예산의 운영주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문제와 결부되나 여기서는 ① 세입의 성질 ② 예산절차상의 특징 ③ 예산운영 기술상의 특징에 따라 분류하고자 한다.

〈그림 3〉에서 요약된 바와 같이 정부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예산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할 때에 정부의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공공성이 매우 높는데, 이중 보다 기초적이고 항구적인 것이 일반회계이고, 일시적이고 사업적 성격이 큰 것이 특별회계인데 일반회계의 세입은 주로 조세이며 특별회계의 세입은 자체수입,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이다.

예산절차상의 특징에 따라서 예산을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으로 구분할 때에 통상

적인 예산편성절차에 의거하여 당초에 국회의 의결에 의한 확정, 성립된 예산을 본예산이라고 하며,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을 수정예산이라고 한다.

또한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며, 수정예산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 심의·확정 전에 내용을 수정하는 예산인데 반해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예산금액을 추가 또는 변경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산집행절차상의 특징에 따라서 예산을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으로 구분할 때에 잠정예산은 미국, 영국, 등에서 자주 이용되는 예산으로써 예산심의 기간이 길고 복잡하거나, 예산편성내용이 예산심의과정에서 크게 바뀌지 않고 사업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예산이며 잠정예산과 유사하나 그 사용기간이 1개월인 경우의 예산을 가예산이라고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제1공화국 때 사용한 경험이 있다.

또한 헌법 제55조, 제3항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 확정될 때까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과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그리고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준예산이라고 하며 지출할 수 있는 경비에 제한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도 예산회계법 제19조에 의하면 예산은 그 형식적 내용을 중심으로 한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그리고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분하고 있는데, 예산총칙에서는 예산전반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국채 또는 장기차입금의 한도액,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기타 회계연도중의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세입세출예산은 예산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으로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의 예정액이 표시되며, 국가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계획 및 경비소요 내역 등이 모두 이 세입세출예산을 통하여 계리되고 운용된다.

또한,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그 지출을 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는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산회계법에서는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총액의 범위내의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는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고채부담행위이다.

예를 들면 '97년도에 어떤 공공의 시설공사에 속하는 ○○사업 10동을 시행함에 있어서 총 1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면 50억원(5동 신축분)은 '97년도에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하고 나머지 50억원(잔여 5동분)은 공사만 시행하고(즉 외상공사를 시행) 공사대금은 다음 '98년도 세출예산에 계상(國庫債 상환액)하여 상환하는 경우, ○○공사 5동에 해당하는 50억원이 국고채무부담 행위액이 된다.

이때 국고채무해당액 50억원을 '97년도의 세입세출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고(국회에 제출하는 정부예산의 의미에는 포함) 그 상환액이 '98년도 세출예산에 포함된다.

계속비란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 경비를 말한다.

수년에 걸친 경비총액을 일괄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으면 당해 회계연도를 포함한 5년 이내에서는 허용된 경비총액 범위내에서 계속 지출할 수 있으며, 연부액 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것은 5년이내의 계속비 사업완성연도까지는 순차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계속비 총액이나 연부액이 변동이 있을 때는 다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예산의 세입 세출 구조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편성 운용된다.

정부의 모든 수입과 경비지출은 이와 같이 예산의 세입세출 형태를 통하여 계획화되고 집행된다. 따라서 우리는 세입세출예산의 구성내역과 그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예산이 내포하고 있는 정책적 의미와 숫자를 통하여 흐르고 있는 사업계획의 방향 및 경비의 소요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예산의 세입세출 구조의 중요성은 지금처럼 경기가 불투명한 상황 하에서의 세입·세출

210 (장)	—	211 (관)	—	1500 (항)	—	1501~1504 (세항)	—	211~219 (세세항)
○ 방위비		○ 방위력 유지		○ 항공방위		○ 공본직할		○ 인력운영
						○ 작전사		○ 부대활동 지원
						○ 군수사		○ 교육훈련
						○ 교육사		○ 장비유지 및 운영
								○ 물자획득
								○ 시설운영 및 건설
								○ 예비전력관리
								○ 주둔군 지원
								○ 정비지원
								○ 경상경비

〈그림 4 : 방위비 과목구조〉

형태를 근거로 한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세입세출 예산의 변동 자체가 정부의 한 회계연도의 중점적인 정책에 대한 변동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또한 정부의 역할과 자원배분 정책의 중점을 어느 곳에 할당하는가의 광의적인 뜻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입예산의 내역으로는 내국세, 관세, 방위세, 교통세, 그리고 세외수입 등으로 구분되고 세출예산의 내역으로는 방위비, 교육비, 사회개발, 경제개발, 일반행정, 지방재정 제지출금 및 기타, 그리고 예비비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세입의 과목구조는 “관—항—목”으로 되어 있지만 이에 따르는 “관—항—목” 별 세입의 내용에 따라 지출의 용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다. 즉 세입과목구조에 의한 세출경비가 같은 과목해소

로 일치하지 않다는 내용이며 세입과 세출경비가 대응되어 어떠한 세입으로는 어떠한 세출로만 충당하도록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통상 조세수입을 근간으로 하는 예산규모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경기나 물가 등 전반적인 국내의 경기전망과 관련된 조세수입의 추계방법을 어떻게 하며 전체세입의 규모를 얼마나 정확히 추정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러한 전체세입을 근간으로 한 세출예산의 편성을 중앙관서의 조직을 중심으로 한 구분으로 예산회계법 제20조에서 조직별로 구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재의 중앙관서는 부, 처, 청을 중심으로 2원 14부 5처 2청으로 분류되고,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 기타 정부기관과 국회,

100 인건비	202 - 03	외빈초청여비
101 기본급	203 - 00	특수업무비
101 - 01 봉급	204 - 01	일반업무 추진비
101 - 02 상여금	204 - 02	특정업무비
102 수당	204 - 03	직급보조비
102 - 01 초과근무수당	204 - 04	정원가산금
102 - 02 정액수당	205 - 00	복리후생비
102 - 03 기타수당	206 - 00	기술용역학술
103 비정규직보수		
103 - 01 기타직보수	300 경상이전	
103 - 02 일용잡급	301 - 01	보상금
	301 - 02	포상금
200 물건비	302 - 00	배상금
201 - 01 수용비	304 - 04	연금지급금
201 - 02 공공요금 및 제세	307 - 02	국채부담금
201 - 03 피복비		
201 - 04 급양비	400 자본지출경비	
201 - 05 특근매식비	401 - 00	기본조사
201 - 06 운영수당	402 - 00	실시설계비
201 - 07 임차료	403 - 00	토지매입비
201 - 08 연료비	404 - 00	시설비
201 - 09 시설장비 유지비	405 - 00	감리비
201 - 10 차량, 선박비	406 - 00	시설부대비
201 - 11 재료비	407 - 00	자선취득비
201 - 12 기타 운영비	412	자치단체 자본이전
202 - 01 국내여비	412 - 01	자치단체 자본보조
202 - 02 국외여비	412 - 02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그림 5 : 세목별구조 해소〉

—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류 —

장 210 : 방위비	
관 211 : 방위력 유지	기능별 분류
항 1500 : 항공방위	
세항 1501 : 공본 및 직할	
세세항 212 : 부대활동지원	
사업 112 : 작전활동 및 군사연구	비용별 분류
세사업 02 : 항공전력강화	
목 301-03 : 항공전력강화 포상금	성질별 분류

〈그림 6 : 항공전력 강화비 과목구조 해소〉

대법원 등 총 48개 소관으로 구분되어 있다.

현재 정부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하며 집행함에 있어서 보통 소관별 분류가 가장 큰 단위의 분류로 쓰이며, 대부분의 예산사업은 소관별 구분에 의하여 분류된 후, 회계구분과 기능을 중심으로 한 “장—관—항—세항” 분류와 경비성질을 중심으로 한 목별 분류로 시행되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방위비 중에서 부대활동지원사업까지에 해당하는 기능중심분류의 체계에 따르면 “장”에 해당되는 방위비, “관”에 해당되는 방위력 유지, “항”에 해당하는 항공방위, “세항”에 해당하는 공본직할 등까지의 기능중심 분류에서 다시 11개 분류(인력운영, 부대활동지원, 교육훈련, 장비유지 및 운영, 장비획득, 물자획득, 시설운영 및 건설, 예비전력관리, 주둔군지원, 장비지원, 경상경비)중에 하나 사업인 부대활동지원 사업까지의 비용별 분류중심으로 나타내질 수 있으며,

다시 경비성질별 세출예산의 분류방법에 따라 목별 경비 내역으로 살펴보면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경비, 융자금 및 출자금, 보전지출로 분류되고, 세목별 과목으로 구분 편성된다.

세세항을 주요사업별로 세분화하면 인력운영은 급여, 급식, 피복으로써 각종수당을 포함하여 증·특식비 그리고 피복개선 개인용품 등으로, 부대활동지원은 일선 지휘참모들에 대한 지휘보장소요를 위한 각급 부대운영비를 포함하여 기획, 인사, 부관, 헌병, 법무, 감사, 공보, 시설, 작전, 통신, 정보, 전산, 군수군무지원 등의 참모활동소요 사업비 등을 말하며, 교육훈련은 교육시행계획에 의거한 과정별 부대훈련 전반에 관한 교육재료비, 훈련재료비, 부대훈련 및 평가통제비, 등록금 및 장학금, 교수연구구성비, 공통교보재 제작비, 사격용 표적지 제작비 등의 사업비를 말한다.

장비유지 및 운영은 연료, 탄약, 장비운영물자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비를 포함하며, 장비획득은 연도별 장비보유 현황을 근거로 한 인가 대 보유 장비구입 사업비를 나타내고 있다.

물자획득은 군수물자 조달계획서 및 지원내역서에 의한 각종 물자품목에 대한 사업비를 나타내고 있다. 시설운영 및 건설은 시설공사비, 대규모보수비, 건물유지비, 편의시설운영비, 시설관리용역비, 작전 및 편의시설 유지비 등의 사업비를 포함한다. 예비전력관리는 국가동원 제도 발전, 상근예비역운영, 공공봉사제 운영, 지휘관리, 장비 및 시설관리, 등의 사업을 말한다.

이처럼 예산의 단위사업은 주로 세항 내지 세세항 단위로 표시되며 세항을 중심으로한 단위사업은 경비성질별 세출예산의 분류방법에 따라 목별 경비내역으로 구성되는데 <그림 5>에서 처럼 목별 분류는 예산사업의 경비성질을 밝혀주는 최하 기본단위의 과목이며, 성질별로 100분류인 인건비는 국가활동 수행을 위하여 고용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보수 및 이들이 기본적인 활동에 수반되는 인건비적 지출을 말한다.

200분류인 물건비는 그 성질에 따라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분되고 300분류인 경상이전경비는 보상금, 배상금 및 민간경상보조, 출연금으로 구분되고 400계열인 자본지출경비는 자산취득비, 시설비, 토지매입비 등과 같이 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고정자본 형성적 경비로 표시되는 등 모든 경비의 성질을 손쉽게 파악되는 기본단위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공군의 주요사업명 중의 하나인 조

종사들에 대한 사기증진도모의 일환으로 지급되고 있는 항공전력강화비 사업을 위와 같은 방식에 의거 과목구조에 의한 사업코드에 의거 살펴보면 210에 해당하는 “방위비” 중에서 211의 “방위력 유지” 예산에 속하는 1500의 항공방위 예산으로써, 1501의 공본직할에 속하는 212의 부대활동지원 “세세항” 사업으로써 112의 작전활동 및 군사연구사업에 속하는 301-02 목 형태의 포상금임을 <그림 6>에서는 나타내고 있다.

3. 결 언

정부재정 대비 방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97 예산에서 21%를 넘고 있으며, 이 중 공군예산은 국방비대비 17.4%인 2조 3,934억원 규모를 점유하였으며, '98예산(안)에서는 방위비가 정부재정 대비 21.7%인 15조 2,400억원으로써, 공군예산(안)은 국방비 대비 17.8%인 2조 6,071억원 규모를 점유하는 현 실정에서의 국방예산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 공군예산의 중요성이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단지 예산의 이해를 통한 세출예산의 분류 등은 이러한 합리적인 예산획득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지라도 총체적인 예산에 대한 신뢰도와 객관성 측면에 있어서는 실로 엄청난 논리와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형식과 구조를 잘 이해함으로써, 공군사업계획을 구체화 시켜가는 예산순기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보다 총체적인 예산의 흐름의 길을 명쾌하게 직시, 합목적인 공군목표 달성을 이룩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중단**

스키 한번 타봅시다



김도석

중사/교육사령부 기술학교

흔히 사람들은 스키하면 무엇을 떠올릴까? 제일 먼저 하얀 눈이 쌓인 설원을 생각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즐기는 사치쯤으로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로 우리에게 다가왔고, 많은 사람들이 스키를 즐기고 있으며, 또한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당신도 한번쯤은 스키를 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스키를 타면서 느끼는 쾌감은 바로 속도감이다. 젊은 시절 한번쯤은 타본 오토바이의 매력이 바로 스피드인 것처럼 바람을 가르고, 눈을 짝으며 내려오는 속도감이야말로 스키의 매력이라 할 수 있다. 이 기분 때문에 스키를 즐기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된다.

흔히 TV에서 스키장의 풍경이 나올 때가 있다. 산꼭대기에서 바람을 가르며 내려오는 모습들이 제법 한가롭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운동의 효과는 상당하다. 특히 하체근육 발달과 심폐

기능 증진에는 스키보다 좋은 운동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스키는 결코 한철만 타는 운동이 아닌 것이다.

도시생활에 찌든 사람들이 스키장에 모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스키장에만 들어가도 마음이 평온해진다. 옛날 동화책에나 나오는 하얀 눈 내리는 마을이 스키장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비록 인공적으로 꾸며지기는 했지만, 온통 하얀 세상은 보기만 해도 가슴이 벅찰 것이다.

이제 스키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보통 스키장의 코스는 3~5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고, 한 코스의 길이는 약 200m 내외이다. 이 코스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리프트를 이용하며, 보통 한 대에 4명 정도 탑승하고 약 5분 정도면 코스 정상에 도착한다. 처음 스키에 입문하는 사람은 이 리프트를 타면서 각각의 코스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스키를 타려면 스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요즘 스키를 배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조건 최상급의 장비만을 찾는다고 한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운전을 못하면 성능 발휘가 제대로 안되는 것처럼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실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고철이 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장비 구입시에는 스키 전문점에서 전문가와 상담후 구입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해서 꼭 장비를 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요즘에는 스키라는 운동이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스키장뿐만 아니라 백화점에도 스키 렌탈(대여) 코너가 생겼다. 그러므로 누구나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스키를 즐길 수 있다.

장비는 플레이트라고 하는 2개의 긴판과 그 위에 부츠(신발), 이를 고정하는 바인딩, 몸의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폴대로 구성된다. 장비 구입시 요령은 초보자인 경우 첫번째로 플레이트

는 자신의 키보다 약 1~2인치 더 긴 것을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신장이 170cm이면 플레이트 길이는 175cm정도로 하면 된다. 물론 플레이트가 길면 길수록 스피드는 증가하겠지만 충분한 회전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초보자는 무리하게 긴 플레이트를 구입하지 말고 자신에게 알맞는 플레이트를 권하고 싶다.(그림 1-1). 참고로 전문가 수준에 이르면 자신의 키보다 10인치 이상인 플레이트를 사용한다.(그림 1-2).

두번째 장비로는 폴이다. 폴의 역할은 단순해 보이지만 스키를 타는데 없어서는 안될 장비이다. 이것은 질주하면서 방향 전환시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폴의 길이는 폴을 손으로 잡은 자세에서 팔목에서 팔꿈치까지가 지면과 평행이 될때가 가장 적당하다.(그림 2-1,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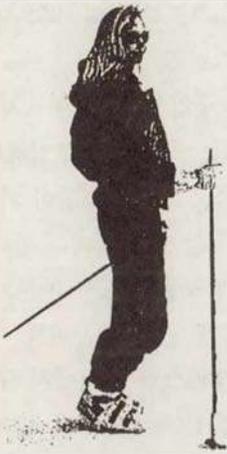
상급자의 경우에는 겨드랑이까지 오는 긴 폴

(그림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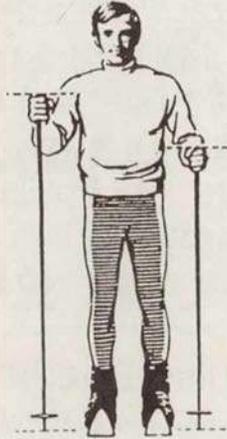


(그림 1-2)





(그림 2-1)



(그림 2-2)

을 애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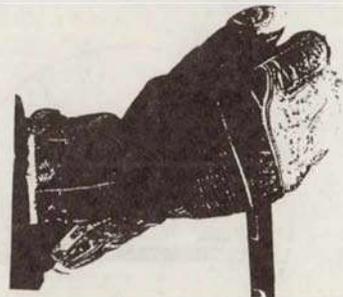
그리고 폴을 잡는 방법은 그림 3-1과 같이 먼저 손을 아래로 집어넣어 손등을 이용해 손잡이 끈 바깥쪽으로 낸다. 다음은 그림 3-2와 같이 끈 위로 손잡이를 잡은 뒤 끈을 조정해서 끈이 손등 위에 편안히 놓이게 한다.

세번째 장비는 부츠이다. 부츠를 선택할 때에는 특히 신중해야 한다. 만약 부츠가 자신의 발에 맞지 않는다면 실력 발휘는 물론 부상을 입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다른 장비보다 특히 부츠를 잘 골라야 한다. 우선 부츠는 자신의 발에 잘 맞아야 한

(그림 3-1)

(그림 3-2)



다. 발이 아프거나 시리게 하는 것은 금물이다. 부츠를 신을 때 먼저 그림 4와 같이 양말을 위쪽으로 바짝 당겨 신어서 양말이 늘어지지 않도록 하고 발등 바로 위쪽에 있는 부츠의 짐고리를 잠근 상태에서 무릎을 굽혀 발뒤꿈치가 제자리를 잡은 다음 짐고리를 밑에서 부터 죄고 다시 발등 위의 짐고리를 조이도록 한다.

좋은 스키부츠는 편안할 뿐 아니라 컨트롤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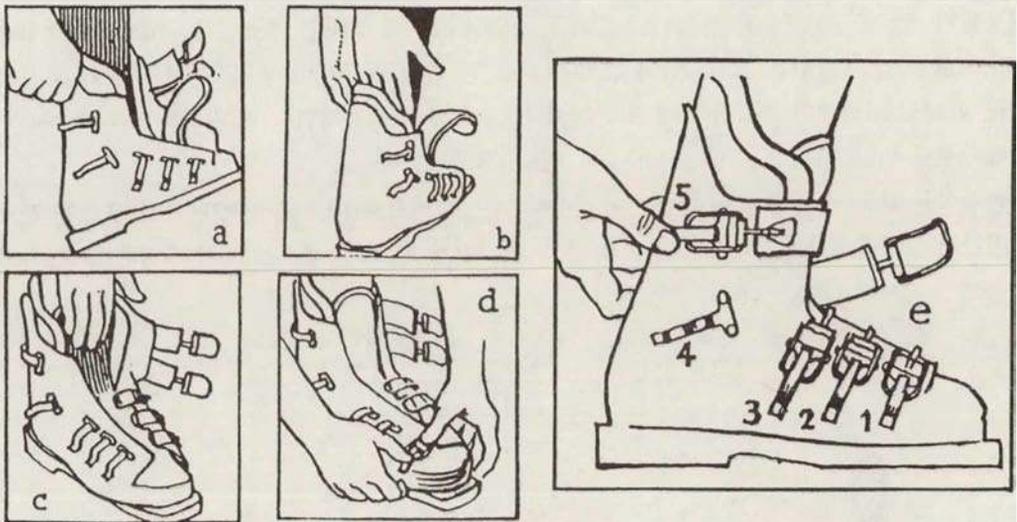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바인딩이다. 바인딩의 역할은 스키를 타다 컨트롤을 하지 못해 넘어질 경우 스키 플레이트와 부츠를 분리해 준다. 초보자인 경우

바인딩의 강도를 조절하여 쉽게 분리되도록 하여 부상을 방지하도록 한다. 바인딩 하는 위치는 그림과 같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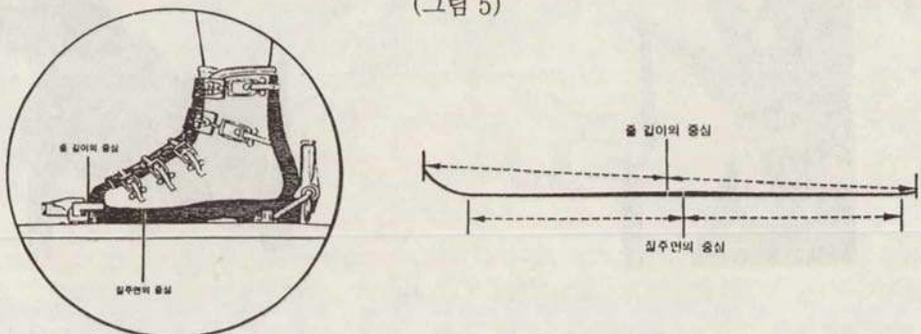
스키장비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스키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에게 구입해야 한다. 요즘 스키가 대중 스포츠로 자리잡아 가고 있어 시중에 저급 스키가 많이 판을치고 있다.

이 점에 유의하여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입하는 것이 좋다. 스키장비를 저렴하게 구입하려면 백화점의 스키 코너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고 특히, 여름철에 구입하면 40%정도의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조언을

(그림 4)



(그림 5)



구해야 한다. 초보자의 경우에는 무턱대고 장비를 구입하지 말고 어느 정도 기초 수준까지는 장비 대여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통 스키장에서 대여해 주는 요금은 25,000원 정도이며 각 스키장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다. 이런 대여 장비도 웬만한 상급자의 스키장비보다 좋은 것들이 구비되어 있다. 장비 이외에 필요한 것은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스키복과 장갑, 선글라스이다. 스키복은 점퍼와 바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수성과 보온성을 겸비해야 한다. 먼저 복장을 갖추려면 발에는 얇은 면 또는 모양말을 신은 다음 두꺼운 양말을 신는 것이 좋고, 바지 안에는 긴 속옷을 입는 것이 좋다. 넘어질 경우 충격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점퍼 안에는 목이 있는 티셔츠를 입고 그안에 속옷을 입는 것이 좋다. 스키장에 가보면 패션쇼를 연상할 만큼 형형색색의 옷들이 눈에 띈다. 문제는 대부분의 옷들이 외국의 유명 메이커들이다. 더구나 외국 사람들도 엄두도 내지 못하는 값비싼 옷들을 잘도 입고 다닌다. 그렇다고 해서 국산 메이커보다 성능이 우수한 것도 아니니 가격을 잘 비교하여 국산 스키복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선글라스인데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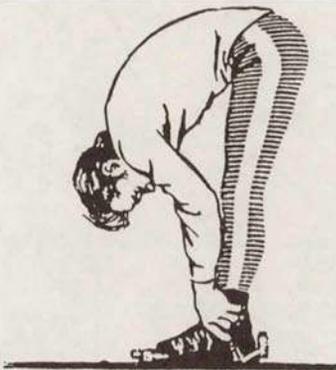
렬한 자외선을 막아주는 UVB광선(가장 위험함)을 100% 차단시켜 주는 선글라스만 써야 한다. 눈에 반사된 태양 광선은 눈에 아주 해롭다. 멋으로 쓰는 보통 선글라스의 검정색조는 눈의 홍채를 열게 만들고 차단되지 못한 UVB광선이 스며들어 눈에 심각한 해를 준다.

이제 장비는 모두 준비했으니 스키를 타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 흔히 사람들은 스키를 타는 것을 쉽게 생각할수도 있지만 사고가 나면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충돌 사고이다. 멀쩡하게 서 있다가도 뒤에서 충돌해 버린다. 하지만 스키장에서의 사고는 안전 수칙을 위반하여 생긴다. 안전 수칙만 이행하면 이런 사고는 피할 수 있다. 스키를 가장 쉽게 익힐 수 있는 몇가지 요령을 보자.

첫째 과감하게 넘어져라! 이 말은 스키를 타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과속이 붙어 다리에 힘이 빠진다. 이때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면 자신의 몸을 컨트롤 하지 못해 다른 사람과 충돌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도 컨트롤 할 수 없는 속력이 나오면 과감하게 옆으로 넘어져라.

둘째, 시야를 넓게 하라. 스키는 속도감을 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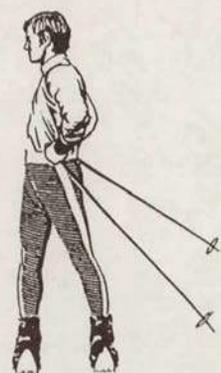
(그림 6-1)



(그림 6-2)



(그림 6-3)



끼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시야를 좁게 했다간 언제 어디서 사고를 일으킬지 모른다.

셋째, 마지막 한번이 제일 위험하다.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로 본전 생각에 체력이 소모된 상태에서 마지막 한번 더 탔다가 제어하지 못해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참고적으로 스키장에서 폐장 10분 전후로 사고가 발생할 때가 제일 많다고 한다.

스키를 타기 전에는 먼저 준비운동을 필히 하여야만 부상을 피할 수 있다.

준비운동은 그림 6-1과 같이 손으로 스키를 잡거나 발목을 잡고 다리를 뻗어 다리 뒷근육과 등, 목을 펴는 운동과 그림 6-2와 같이 웅크리고 발뒤꿈치 쪽에 몸의 중심을 두고 빠르게 위 아래로 움직여 다리 근육을 풀어 주고 그림 6-3은 신체로 몸을 좌우로 돌리면서 몸 근육을 펴주는 운동이다.

스키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은 넘어지는 방법과 제동이다. 넘어지지 않고 스키를 타는 사람은 드물다. 중요한 것은 다치지 않도록 요령있게 넘어지는 것이다. 그림 7과 같이 넘어질 때에는 사선 방향으로 앉는 자세를 취한다. 즉 엉덩이가 지면과 먼저 닿아야 한다. 하지만 그대로 스키 위에 주저 앉는다면 썰매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이때 손은 들어 올리고 폴의 끝은 뒤쪽으로 향해야 한다. 폴의 끝이 앞으로 향하게 되면 눈속에 꽂혀 손과 폴이 뒤로 쫓겨 지면서 머리를 다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찌를 수도 있다. 초보자는 특히 넘어지는 연습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넘어진 후 일어서는 방법은 우선 스키를 최대한 몸쪽으로 당긴 후 폴대를 그림 8과 같이 사선으로 짚어 일어서는다. 처음에는 일으키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충분히 연습만 한다면 쉽게 일어설

(그림 7)



수 있다.

제동방법은 몸의 중심을 양쪽 스키에 균등하게 주어서 양쪽 스키에 균등히 몸무게를 지탱하도록 한다. 다음에는 양쪽 스키를 동시에 모아 플레이트의 앞쪽을 중심으로 V자가 되도록 힘을 준다. 한마디로 눈을 각으며 제동을 건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이다(그림 9).

이 세가지만 완벽히 구사한다면 어느정도 스키를 즐기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스키는 운동 효과와 더불어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다. 하지만 실력 향상에는 소홀히 하기 쉽다. 주말의 스키장이 만원이 되는 것을 흔히들 볼 수 있지만 제대로 스키를 타는 스키어는 드물다. 잘 타지 못하는 것을 탓할 이유는 없겠지만 스키를 잘 타는 법을 알아야만 더 많은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보통 스키를 배우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장 힘든 방법으로 자기보다 나은 스키어의 움직임과 자세를 모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격을 갖춘 유능한 스키 지도자의 레슨을 받는 방법이다. 물론 적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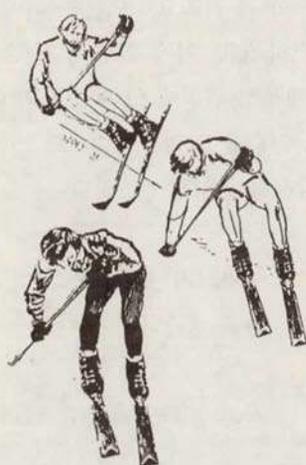
3,4회 정도 레슨을 받아야 하겠지만, 단 한번의 레슨으로도 본인의 노력만 있으면 충분할 것이다. 한 두번 타보고 자세가 안나온다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연습한다면 기량을 높여 갈 수 있을 것이다.

코스는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통 상급자 코스(RED)는 그 경사도가 승용차가 1단 기어를 넣고 출발해도 힘이 들 정도이니 대충 짐작이 갈 것이다. 초급자가 약 2년 정도 꾸준히 익히면 충분히 탈 수 있는 코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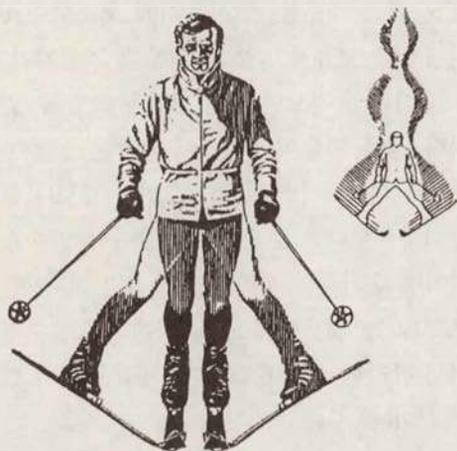
취미의 종류는 매우 많이 있다. 그중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꼭 스키를 타 볼것을 권한다. 이런 스포츠 활동은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활력소로 작용하기도 하며 인생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올 겨울에는 눈 덮힌 설원을 목표로 하자. 아니 지금부터 기초 체력을 다져놓자. 축구도 좋고 조깅도 좋다. 땀을 흘린 만큼 체력은 향상될 것이다. 이 체력을 바탕으로 설원을 달려 보자. **◆◆◆**

(그림 8)



(그림 9)





컴퓨터로 그림을 그려봅시다.

김 석 한

병장/제8990부대 인사행정처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군 제8990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병장 김석한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취미는 PC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뭐, 컴퓨터 그래픽이니 하는 거창한 것은 아니고 자기가 그리고 싶은 간단한 그림을 그려서 PC안에 저장해 두거나 프린터로 출력하는 정도입니다. 무더운 여름, 이런 취미생활에 집중하다보면 더위를 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군 같은 경우는 각 사무실에 최소한 386이상의 PC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만 짬을 내면 1주일 정도면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미술이나 만화에 조금은 소질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리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PC앞에 앉아서 마우스를 움직이며 손가락만 까딱하며 그리면 되니까, 실제로 그리는 것보다 도구도 적게 들고, 수정도 쉬워서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색상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컴맹도 쉽게 그릴 수 있는 가장 보편화된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386이상의 PC라면 WINDOWS프로그램이 어디든지 있을 겁니다.

그 안에 보조프로그램 중 파レット에 몇 가지 물감이 찍혀 있고 PBRUSH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더블클릭(마우스 왼편 스위치를 두번 누르는 것)해보세요. 도화지 한 장과 왼편에는 사용도구, 아래쪽은 여러가지 물감들이 있습니다. 근데 화면이 좀 작지요? 오른쪽 위에 있는 ▲ 표시를 클릭하세요. 이제 화면에 꼭 차게 나올 겁니다. 이제부터 왼편에 있는 도구와 아래에 있는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봅시다. 그 전에 도구사용법과 물감사용법을 알아보시다.



붓마크가 보이지요? 이것은 연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직선마크는 자대고 그리기, 직선이

그려줍니다.



사각형 그리기, 직사각형, 정사각형



원그리기, 타원도 가능



지우개(왼편에 있는 것은 특정 색만 지우고 오른쪽은 모든 색을 다 지웁니다.)



로올러 마크는 특정 영역내의 여백을 선택한 색상으로 채웁니다.



글자 사용시에 쓰이는 마크입니다.(영문도 가능)

예를 들어서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을 선택하고 로올러를 선택한 후에 도화지에 클릭하면 빨간 도화지가 됩니다. 이 로올러 사용은 주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검정색을 선택하고 직선을 이용하여 삼각형을 그려봅시다. 그리고 로올러와 빨간색을 이용하여 삼각형 내부에 붙이고, 클릭하면 빨간 삼각형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삼각형을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빨간색 물감을 그릇에 붙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릇에 구멍(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 나있다고 한다면, 그릇 안에 있던 물감이 밖으로 새어 나가게 될 겁니다. 전체화면이 다 붉게 나오지요. 그러나 수정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윗쪽을 보면 편집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안에 '실행 취소'를 선택하면 바로 전 실행한 것이 지워집니다. 또는 붉은 색을 선택한 후 왼편 지우개를

선택한 후 붉은색 부분을 누르면 그 색만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림 어디에 구멍이 나있나 찾아봅시다. 잘 안보인다고요? 그러면 왼편에 있는 표시 형식 항목을 눌러 보세요. '확대'라는 것을 선택하면 작은 상자가 왔다갔다 할 겁니다. 그것을 선이 연결되는 부분에 덮어놓고 클릭하면 그 부분만 확대가 됩니다. 이제 어디에 구멍이 났는지 확실히 보입니까? 그러면 끊어진 부분을 검정색으로 칠하면 됩니다. 항상 로올러를 사용할 때에는 선이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이 되도록 잘 그림시다.

그러면 그림 주제는 무엇으로 할까요? 사무실이나 내무실 등을 돌아다니다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군화보, 월간항공 등을 보면 군용기나 전투기, 헬기 등 멋진 사진들이 많습니다. 사진과 똑같이 그릴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저도 아직 실력이 떨어져서 무리가 많습니다.

보고 그릴 사진을 선택했나요? 그럼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서 직접 해봅시다.

먼저 화면을 4등분 합니다. 붉은 선으로 십자가를 그리면 네 등분이 됩니다. 이제 이 선을 기준으로 하여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AH-64 아파치 헬기를 그려 봅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와 비슷하게 비율을 잡아서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그려야 합니다.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밑그림입니다. 먼저 몸통, 캐노피, 옆날개, 로터, 엔진, 바퀴, 미사일 등을 정확히 그리고 어느 색선 하나 선이 끊어진 곳이 없도록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선 그리기도 힘들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크기가 너무 작아서 어려울 겁니다. 이럴 땐 확대시킨 후 그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밑그림

만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정작 더 어려운 것은 물감 입히기! 군용기들이 많기 때문에 무채색인 흰색, 옅은 회색, 짙은 회색, 검정색 등이 많이 쓰일 겁니다. 이 색들을 잘 이용하여 물체의 명암을 표시하면 그림이 더욱 멋있어질 겁니다. 빛을 직접 받는 부분은 흰색으로 얇게, 그 주변은 옅은 회색, 그림자가 생기는 곳은 짙은 회색, 그림자가 겹치는 부분은 검정색으로 하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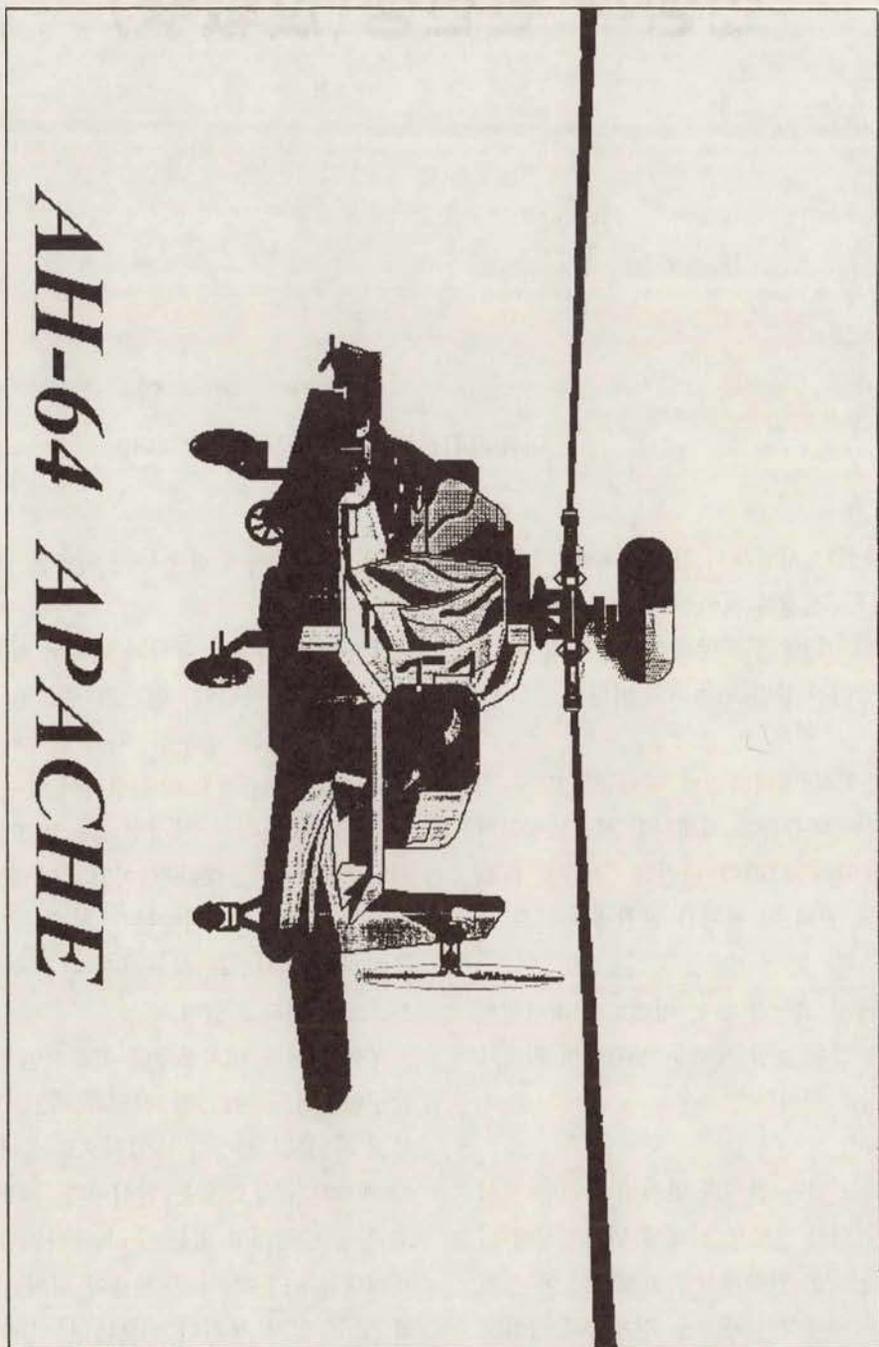
옅은 회색 부분 중간에 흰색 줄을 그으면 빛이 받는 면으로 반짝이는 효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물체 각 부분에 옅은 회색, 짙은 회색, 검은색, 흰색 순으로 색상을 집어넣고, 확대 기능을 이용하여 지저분한 곳을 수정합니다. 말은 쉽게 했지만 조금 어려운 작업들입니다. 그러면, 배경을 한번 집어넣도록 합시다. 이때 주의할 것은 지금 현재 화면이 도화지 크기가 아니라, 도화지 아래와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이동시켜 보면 배경은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윗쪽은 푸른 하늘 아래쪽은 우거진 숲을 그린다면 무난할 겁니다.

모양을 선택해서 산을 그려봅시다. 높은 산, 낮은 산, 봉우리 등등을, 그리고 녹색 로울러를 이용하여 산 전체를 클릭하면 푸른 산이 됩니

다. 그리고 하늘 부분은 하늘색 로울러로 클릭하면 나머지 도화지가 하늘색으로 됩니다. 근데 뭔가 허전하지 않습니까? 구름을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가장 두꺼운 흰색 붓으로 구름모양처럼 둥글 둥글하게 그린 다음 구름 안쪽을 흰색 로울러로 칠합니다. 이제는 모든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전체적인 화면이 보고싶으시면, 위쪽에 있는 표시형식중 '전체 화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축소 화면'을 선택하십시오. 전체화면은 약간 찢리기 때문에 그림 전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잘 그려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지워지지 않도록 저장을 합시다. 그림그리기 끝.

그러나 직접 출력해서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WINDOWS를 끝내고 이제는 한글워드 로 들어갑시다. 위쪽에 보면 틀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림을 선택하고 그림화일 이름을 입력시키면 어떤 네모가 화면에 뜹니다. 이것은 그림이 지워진 것이 아니고, 나타내기 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화면 인쇄를 해보면 그림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크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정을 하세요. 이제 프린트만 하면 끝. 약간 오래 걸릴 겁니다. 휴~ 오래걸렸지요? 지면으로만 소개하기엔 너무 답답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한번 취미를 가져보세요. 처음엔 어렵겠지만 차차 익숙해져서 조금만 있어도 금세 멋진 그림들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일과시간 중에는 하지 마시고, 그림 그릴 때에는 수시로 저장을 하면서 그리도록 합시다. 군생활하는 동안 많은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좋은 취미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돼겠지요. 다음 그림들은 제가 틈틈히 그린 것입니다. 그다지 잘 그리지는 못했지만.



전쟁과 반전쟁(反戰爭)

김 영 일

대위/제11전투비행단 151전투비행대대

우연히 들렀던 서점에서 참으로 좋은 책을 만났다. 그 책은 “전쟁과 反戰爭”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이미 “제3물결” “미래쇼크” “권력 이동” 등으로 잘 알려진 엘빈 토플러의 전쟁에 관한 책이다.

엘빈 토플러의 여태까지의 저서들은 모두 경제혁명에 관한 내용들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들이다. 그러나 이번의 “전쟁과 反戰爭”은 앞으로 있게 될 전쟁과 반전쟁을 다룬 책이다.

이 책은 우리 모두가 낯선 미래로 달려가면서 만들어 내는 깜짝 놀랄 새로운 상황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다룬 책이다.

오늘날 갖고 있는 전쟁과 반전쟁에 관한 지식은 대부분 위험할 정도로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었다. 종전과 같은 원자재와 육체노동이 아닌 지식에 기초한 혁명적인 새로운 경제가 등장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주목할 만한 이런 변화는 전쟁

의 성격에도 이에 상응하는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전쟁이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인간의 본능인 경쟁의 본능, 투쟁의 본능, 질투심, 자기 보존의 본능은 모두 전쟁과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다.

제1물결 시대의 전쟁형태는 백병전(白兵戰)이나 근접전쟁(近接戰爭)이었고 제2물결시대의 전쟁은 대량과포, 대량살육 전쟁이었으며, 제3물결시대의 전쟁은 걸프전쟁 같은 하이테크 전쟁으로 상징되고 있다.

우리의 남북 대치상황은 평화적인 민족통일을 갈구하면서도 제1물결 전쟁과 제2물결 전쟁 그리고 제3물결 전쟁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전쟁을 염려하고 항상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조차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전쟁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 1945년 이후 한국전쟁(1950~53), 베트남 전쟁(1957~75), 아랍~이

스라엘 전쟁(1967~73, 82), 걸프전쟁(1990~91)을 포함하여 전쟁과 내전을 모두 계산하면 150~160회에 달한다. 1945~1990년의 전체 2340주 중에서 지구상에 전쟁이 전혀 없었던 기간은 불과 3주 뿐이다.

이렇게 많은 전쟁과 내전을 통해 전쟁의 양상은 차츰 발전해 나갔다. 초기 원시부족들의 싸움에서부터 근래의 걸프전쟁까지 많은 전쟁이 양상 즉, 백병전이나 근접전쟁으로 표하는 되는 제1물결 전쟁부터 대량파괴, 대량살육전쟁이 제2물결 전쟁에서 하이테크 전쟁인 제3물결 전쟁까지 많은 발전이 있어왔다. 현재 남북대치 상황은 제1, 제2, 제3물결 전쟁의 모든 상황을 띠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제1, 제2, 제3, 물결 전쟁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자.

가. 제1물결 전쟁

농업혁명은 인류역사상 최초로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불러 일으키면서 점차 전근대사회를 형성하게 되었다. 농업은 두가지 이유로 전쟁의 모태가 되었다. 우선 농업은 공통체들이 전쟁의 대상이 될만한 경제적 잉여물을 생산, 저축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또 그것은 국가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이 두가지가 합쳐져서 우리가 지금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의 전제 조건이 마련되었다.

제1물결 군대들은 그 규모, 역량, 사기, 지도력 및 훈련면에서 매우 다양했다.

용병이나 심지어 모반심을 품은 지휘관들이 이끄는 경우도 많았다.

경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신수단은 원시적이었고 대부분의 명령은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

전달되었다. 농업의 육체노동은 백병전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투석기, 쇠뇌, 노포, 초기의 대포 등 장거리 무기들이 제한적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기본적인 전쟁방식은 수천년 동안 일대일(1 vs 1)의 살상이었고 군인들은 인간의 완력에 의존하여 접근전을 하도록 고안된 무기— 창, 칼, 도끼, 장창 등—로 무장했다.

제1물결 전쟁은 그 기술 면에서 뿐만 아니라 조직, 통신, 병참, 관리, 보상구조, 지도력 형태 및 문화적 가설 등의 면에서도 제1물결 농업 경제의 명백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나. 제2물결 전쟁

산업혁명은 역사 변화의 제2물결을 일으켰다. 대량생산이 산업시대 경제의 핵심원리인 것처럼 대량파괴가 산업시대 전쟁의 핵심원리가 되었다. 전쟁을 가장 극적으로 변화 시킨 것은 대량생산방법으로 만들어진 표준화된 무기들이었다. 이 핵심적 산업화 원리—표준화—는 무기체계 자체 뿐 아니라 곧 이어 군사훈련, 조직 및 군사독트린에도 적용되었다. 제2물결이 사회 전체에 밀려 들면서 제1물결 제도들은 서서히 허물어져 쪼개져 나갔다. 대량 생산, 대중 교육, 대량 통신, 대량 소비 등을 더 한층 대량 파괴 무기와 연결시키는 사회제도가 등장했다.

이때 등장한 것이 총력전이다.

총력전은 정치, 경제, 문화 및 선전활동에 걸쳐 싸우는 것으로서 전체사회가 단일 「전쟁기구」로 전환된다. 그것은 산업사회병 합리화를 최대한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총력전과 대량파괴의 개념은 산업혁명 후에 광범하게 채택되었는데 그것은 이 개념이 대중사회—제2물결 문명—의 풍조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총력전은 군사목표와 민간목표들 간의 구분을 흐리게 만들거나 완전히 없애 버렸다. 모든 것 — 무기고, 근로자 숙소, 탄약고, 인쇄소 등 — 이 정당한 목표가 되었다.

사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체 냉전기간을 통해 2대 초강대국의 관계를 지배한 것은 궁극적인 대량 파괴력, 즉 핵무기였다.

다. 제3물결 전쟁

제2물결인 산업혁명의 시대를 지나 제3물결이 시작되면서 탈 대량화(de-mass-ification)가 탄생되었다. 생산의 탈 대량화와 함께 파괴의 탈대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 날 F-117기 한 대가 단 1회 출격하여 폭탄 한 개를 투하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중 B-17 폭격기가 4500회 출격하여 폭탄 9000개 또는 베트남전 기간 중 95회 출격하여 폭탄 190개를 투하했을 때와 동일한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화력의 양 대신 정보에 바탕을 둔 무기체계이다. 이러한 스마트(smart) 무기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smart)한 군인이 필요하다. 교육 받지 못한 군인들은 제1물결 전쟁 특유의 육박전에서는 용감하게 싸울 수 있고 제2물결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군인들은 제3물결 산업의 무교육 노동자처럼 제3물결 군대에서는 처질 수밖에 없다.

걸프 전에 파견된 다국적군 병력은 지금껏 전투에 투입된 병력 중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고 기술적으로 전문적인 군대였다. 걸프 전쟁에서는 두가지 군사적 방식, 즉 제2물결 방식과 제3물결 방식이 사용되었다. 이라크군은 특히 자신

을 레이더 및 감시기능이 완전히 제거된 후에는 제레식 군사기계(military machine)에 불과했다. 기계는 제2물결 시대의 완력기술에 속하는 것으로서 강력하기는 하지만 우둔하다. 이에 반해 다국적군은 기계가 아니라 뛰어난 하나의 시스템이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미래가 요구하게 되는 전쟁을 준비할 것이다. 낡은 살육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인명과 환경 그리고 심지어 국가 예산면에서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는 과도기로 넘어가는 대전환이 걸프전이었다.

라. 미래전의 양상

미래전의 양상은 참으로 다양하다. 인공위성을 이용한 우주전쟁과 인간을 대신해서 전쟁을 치르게 될 로봇의 발명으로 시작될 로봇전쟁, 정보를 무기로 하는 정보전쟁, 무인 항공기의 발달로 인한 조종사의 생존성 극대화를 피하고 전쟁에서의 경제성의 원리를 제공한 무인항공기의 등장, 직접적인 충돌을 차츰 줄이고 전자전의 양적, 질적 증대로 인한 전자전의 발달, 생화학 무기의 발달로 인한 화학방전, 적의 컴퓨터 망에 침입하여 적의 컴퓨터를 오동작 또는 가동치 못하게 하여 적의 지위체계를 혼란에 처하게 하는 등 여러가지의 전쟁 양상이 있다.

이 책의 서두에는 이런 말이 있다.

당신은 전쟁에 관심이 없을 지도 모르지만 전쟁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 — 트로츠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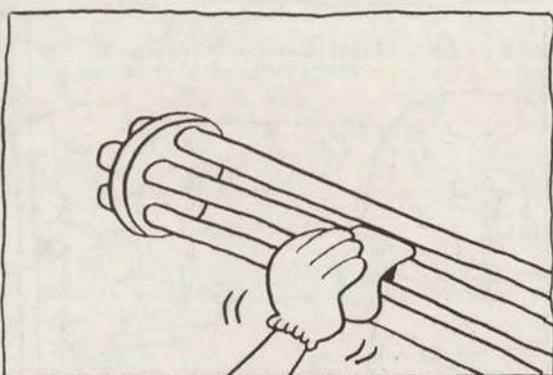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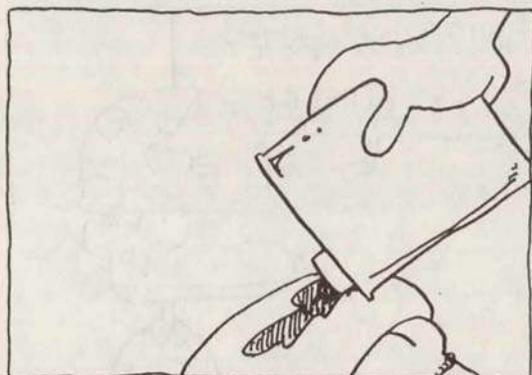
전쟁을 염려하고 준비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기억해야 할 이야기이며 한 번은 읽어봐야 할 좋은 책이라 생각한다. **등문**

꿈만은 아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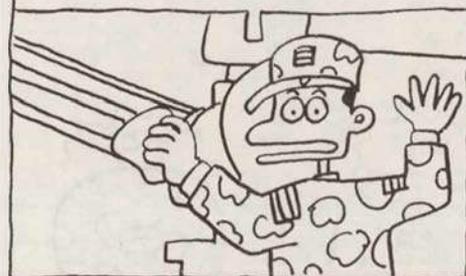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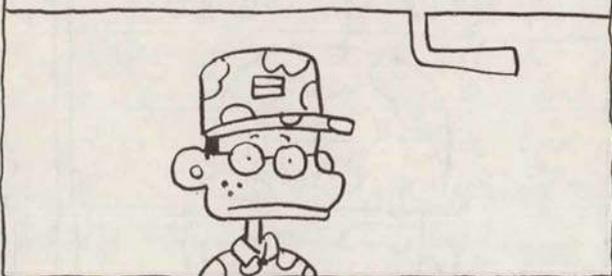
고 석현



내일부터 바뀔거야



훈련중엔 항상 장비정비에 신경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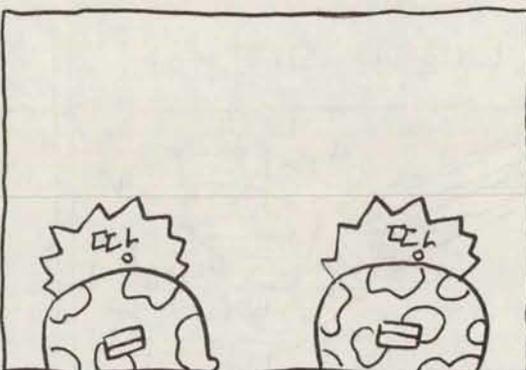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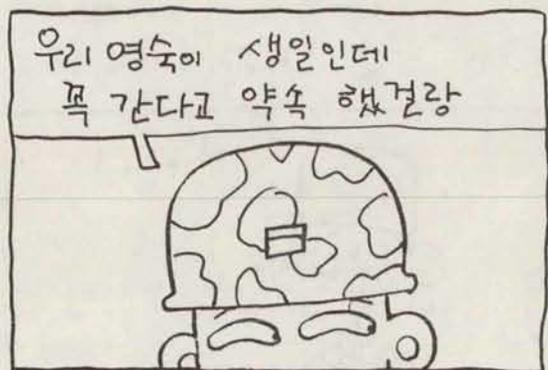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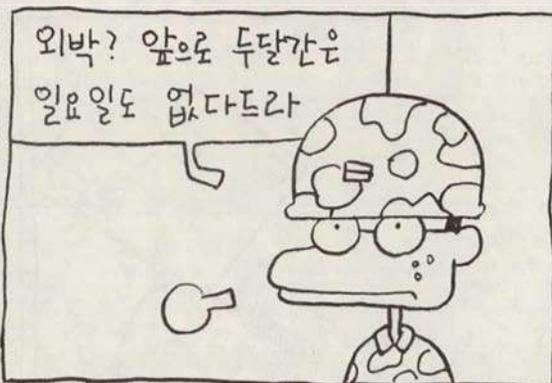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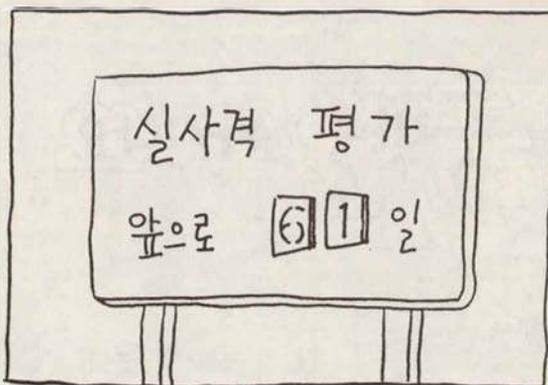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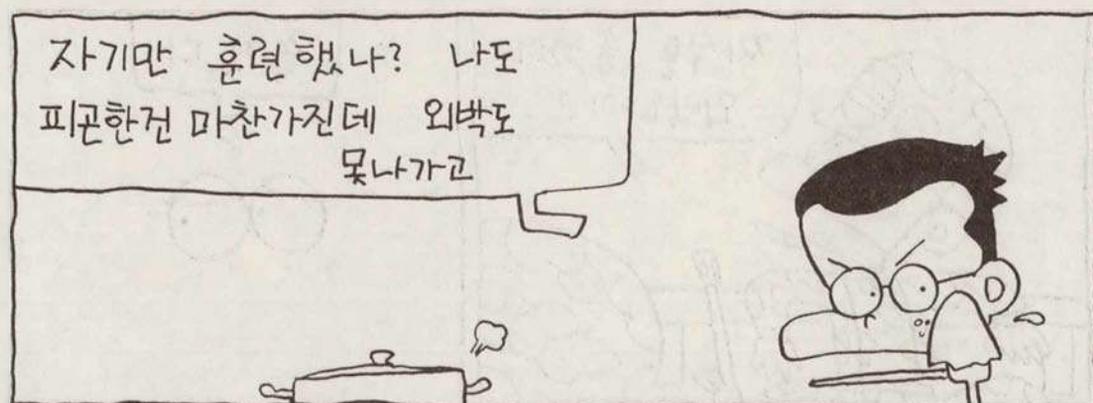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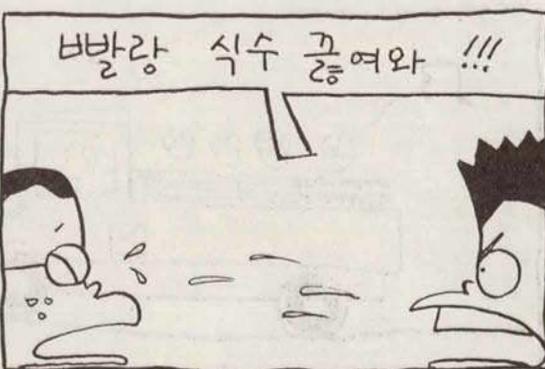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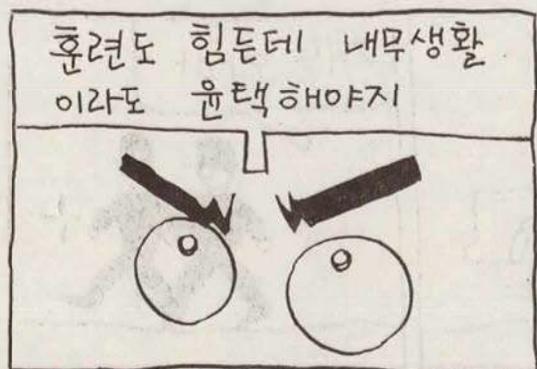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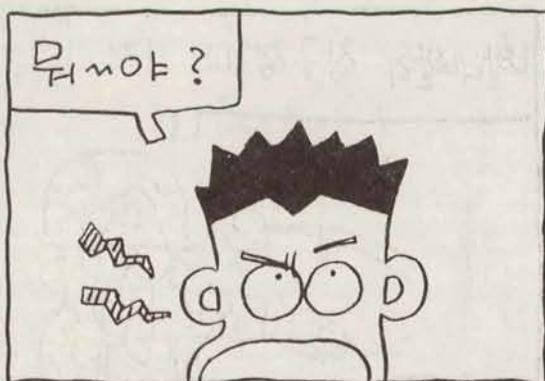
훈련 끝날때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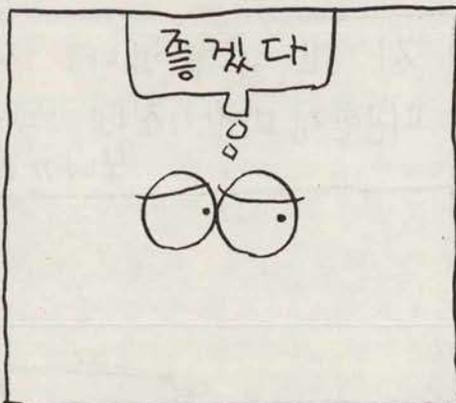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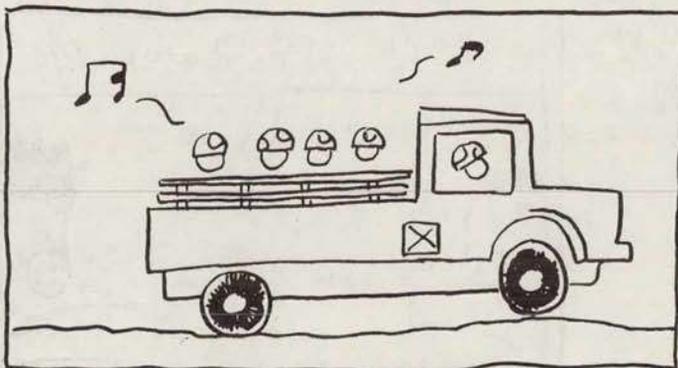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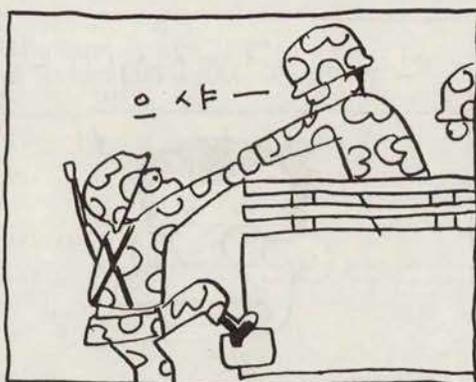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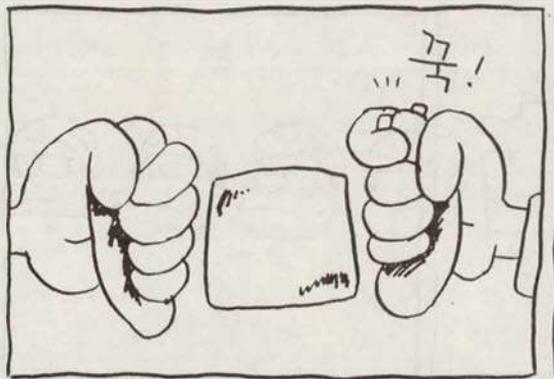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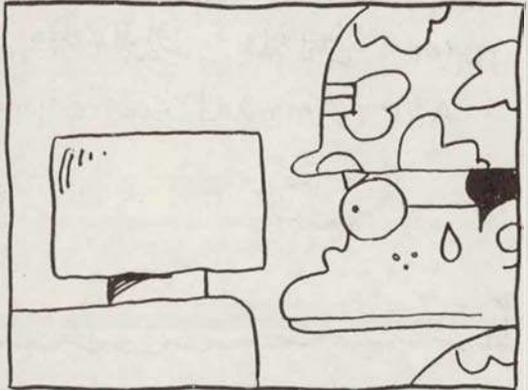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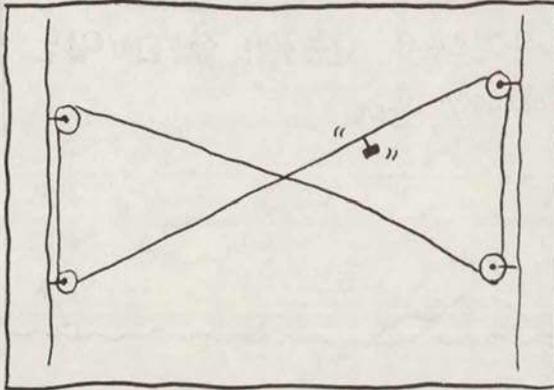
긴장 풀지 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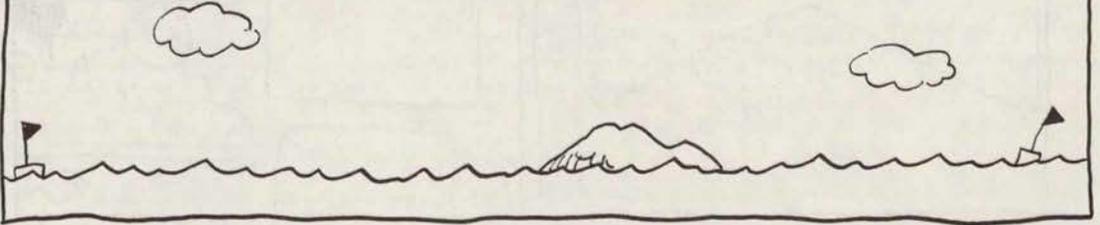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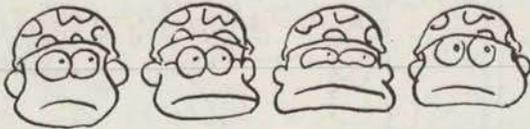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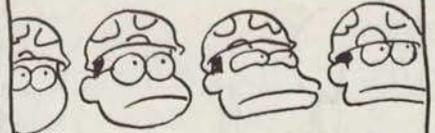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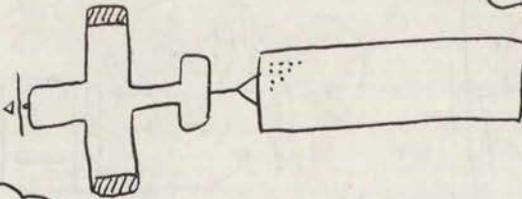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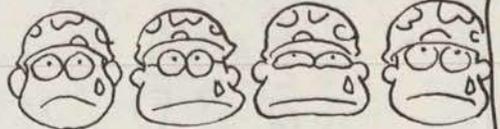
1년에 한번있는 항공포병의 훈련으로서 모든것이 잡혀되어있는 ASP (Annual Service practice) 훈련.



마침내 D-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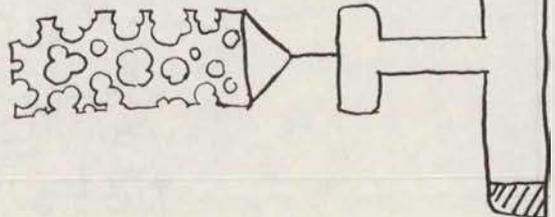
바바 바바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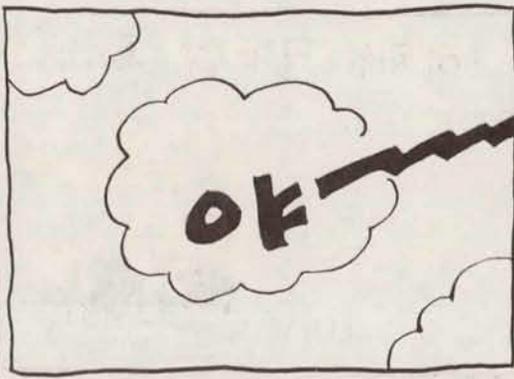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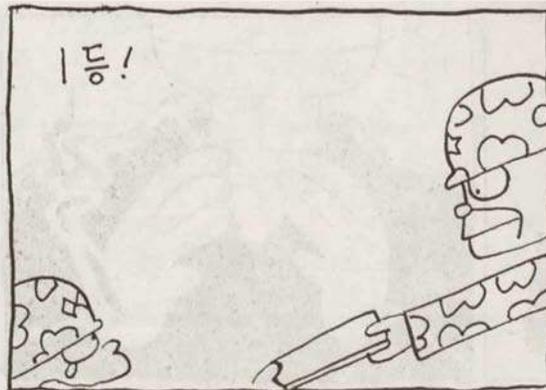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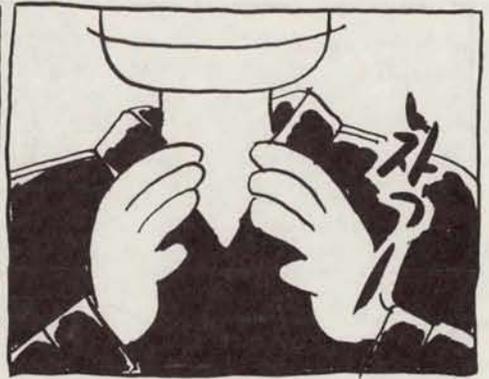
우리 정말 유감없는
실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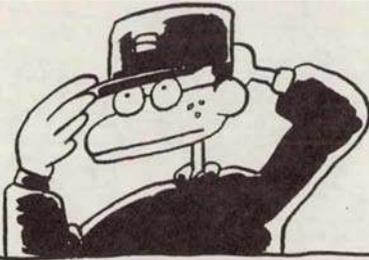
표적을 마구마구 뚫어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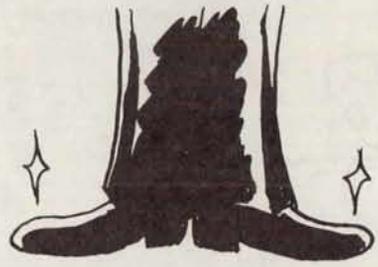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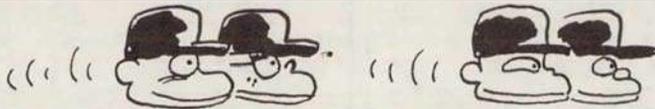
임무를 완벽하게 완수하고



자랑스럽게 떠나는 휴가



이처럼 꿀맛같은 휴가가 또 있으랴



어? 재들 휴가 가나봐



좋겠다



참된 시란 무엇인가

— 일 포스티노를 보고 —

김 기 홍

일병/제8989부대 근무지원중대



조금은 나른하기도 한 일요일 오후였다. 군 입대가 얼마남지 않았던 때, 무작정 시내에 나갔다가 우연히 이 영화를 보게 되었다.

요즘은 영화보기가 참 힘이 드는데...

유명배우가 나온 액션물이나 흥행에 성공한 영화라면 예매를 해야 하고 들어 가거나 나올 때에도 북적대는 사람들 속에 정신이 하나없다. 보았던 영화도 모두 잊어버린다.

그런데 내 눈에 편 이 영화는 상영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들어가는 사람하나 없고 개봉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음 주에는 다른 영화의 상영이 잡혀있었다. 난 신문이나 방송에는 무심하지만 꽤 예고도 많이 되고 예술성, 작품성에 있어서도 별이 5개나 되는 영화인데 흥행이 안되는가에 궁금해 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섰다.

나도 영화를 가려서 보는 편은 아니지만 이런 예술성(?) 짙은 영화를 다 이해한다는 것은 무리일지도 모른다.

또 몇개월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이렇게 그런 영화의 영화평이라는 거창한 내용을 쓴다는 것이.....

그렇지만 '일 포스티노'는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 같다. 내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것만 보아도 그러할테고.....

'일 포스티노'는 우편 배달부라는 뜻이다. 이 영화는 간단히 말해 무지하지만 순박한 우편배달부가 20세기 최고의 로맨틱 시인과 만나면서 자신의 예술적 감성과 사랑을 발견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칠레의 시인 네루다가 본국에서 쫓겨난 후 이태리 정부가 나폴리 근처의 작고 아름다운 섬에 거처를 마련해 준 실화에 근거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태리의 작은 섬에 어느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인 네루다가 찾아온다. 그 뒤 전 세계에서 네루다에게로 날아오는 수많은 편지들로 고민하던 우체국장은 어부의 아들 마리오를 단 한사람

의 수취인을 위한 우체부로 고용한다. 그 당시 마리오는 시적 감수성은 전혀 없는 겨우 글만 깨우치고 있는 정도였다. 그 눈에 비친 시인 네루다의 삶은 생계를 위해 사는 자신의 삶에 비해 단순한 삶이었다. 그러한 그의 단순한 모습 속에는 깨끗함이 느껴질 정도이다. 하지만 그가 시인 네루다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단지 하나 — 수많은 여자들이 그에게 편지를 보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순히 우편배달부와 수취인의 관계로 시작한 마리오와 네루다는 마리오가 마을의 한 여인을 사랑하면서부터 변하기 시작한다. 사랑에 빠진 마리오를 도와주기 위해 네루다는 우편배달부의 친구가 되어 사교적 교감을 갖는다.

— 저도 시인이 되고싶어요.

— 우편배달부가 훨씬 좋아. 늘 걸어다니니 살도 안찌고 시인들은 다 뚱뚱해

— 그래도 시인들은 여자들이 반하잖아요. 어떻게하면 시인이 되나요?

— 해변을 천천히 거닐어보게

— 그럼 ‘메타포’가 나타나나요?

— 그렇고말구

(영화를 보면서 끝내 메타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지만 시적 언어나 감성인것 같다.)

그는 나름대로 배운 시의 ‘메타포’를 쓰기 시작한다. 비로소 마리오는 그 마을의 한 여인의 사랑을 얻게 되고 삶에 대해서도 아름답게 여긴다. 그러나 네루다는 결국 고국 칠레로 돌아가고…….

네루다가 떠나자 마리오는 아름다움도 함께 떠나간 줄 알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그 아

름다운 섬의 소리들을 녹음하여 네루다에게 전하려고 한다.

결국 네루다가 그의 부인과 그곳에 다시 찾아왔을때 마리오는 그 태요만 남기고 죽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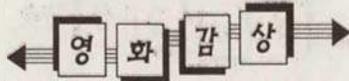
이 영화의 배경과 상황은 어둡다.

그렇지만 결코 어둡게만 그려지지 않는다. 그런면에서 이 영화의 감독 ‘마이클 랫풋’은 사회성 있는 주제를 잘 살려내면서도 인생에 대한 섬세한 면면을 절대로 놓치지 않은 장기를 가진 감독이라는 평도 있다.

이 영화를 감동적으로 보고 며칠 후 나는 신문을 보고 엄청난 사실에 놀랐다. 이 영화에서 ‘포스티노’의 역할을 맡았던 주연배우,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에 대한 기사였다. 늘 조연이었던 그의 삶. 영화속에서의 그의 삶과 죽음처럼 영화밖에서도 그는 그의 생애 마지막 영화를 맡았고 고통에 시달리면서 연기를 끝마치고 죽은 그야말로 정말 한편의 지어낸 이야기와 같은, 시와 같은 기사였다. 그는 그의 삶의 마지막 혼신의 연기를 펼쳤던 것이었다. 나는 그후 영화속에서의 그의 표정과 모습들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고 지금은 가물가물해졌지만 이번 특박에 꼭 다시 보고 싶은 영화 아니 비디오가 되어버렸다.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된 것 같다.

거창하게 들렸겠지만 시가 무엇인지 나도 잘 모른다. 하지만 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영화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영화를 보고 나올 때쯤되면 ‘한편의 시’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걸 말이다. 그 당시 시대적 배경과 지역적 배경은 어지럽고 혼란스러웠지만 지중해의 아름다운 자연의 영상과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인간들의 모습이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다. 게다가 네루



다의 주옥같은 시들과 음악까지…….

이 영화에 나오는 음악을 듣는 사람은 영화음악을 누가 맡았는지 궁금해 할 것이다. 나 역시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웃 오브 아프리카' '시네마천국'의 영화음악을 맡았던 작곡가라면 웬만한 영화팬과 음악팬이라면 알았다며 맞장구를 치게 될 것이다. 그의 그런 영화에서의 감동이 이곳에서도 어김없이 밀려든다.

마리오는 당시 사회상에 대해 무지하고 힘없는 민중으로 살다간 소리없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시의 기교가 무엇인지는 지금까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메타포를 몰랐다. 그냥 삶, 즉 생존과 사랑을 위해 사는 한 인간일 뿐이었다.

그러나 시를 통해 인생과 사랑에 대해 알아버린 그는 네루다처럼 남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시인이 아니었지만 그에 못지않은 진정된 시인이 아니었나 싶다. **등관**

“옛 먹어라”고 하는 아이들로부터 옛 먹는 영화

— “나쁜 영화”를 보고 —

배 형 우

상병/제1전투비행단 기지지원전대



글쎄, 외출을 나갔고 여러가지 이유에서 늦게 이룬 잠을 이른 시간에 쫓아내고 극장을 찾았다. 여러가지 이유는 이 영화가 왜? 상영불가가 됐으며 왜? 평가극상과 평가절하의 양극단에서 있어야 하는지 내가 보아야 하겠기에 그 하나도 안 바쁜, 언제나 안 바쁜 일요일 조조할인 — 겨우 300원밖에 안 깎아주는데 — 으로 영화를 보았다. 영화제목은 97영화관의 중반기 뜨거운 감자 ‘나쁜영화’ 였고 영화가 끝난 뒤의 느낌은 ‘나쁘다’ 였다.

어떤 의미에서의 나쁘다인지 이제부터 얘기하고자 한다. 비록 변죽을 울리는 얘기지만 시내의 ‘나쁜영화’가 상영되는 극장은 작은 관객석과 스크린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내가 본 썩 괜찮은 영화들의 상영관이었고 더욱이 괜찮은 한국영화가 자주 상영된다는 점에서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좋은 이미지의 영화관이었다. 지금은 어떠냐구? 주니치 드래곤즈에서 구원투수로 활약하

고 있는 선동령의 방어율에 비유하자면 선동령의 방어율이 세이브포인트 연속 기록 행진에서 첫 패를 기록했을 때 0.60인가에서 0.99로 됐는데 일요일 오후 1시 그 극장의 방어율이 0.99가 됐다면 이해가 되실는지.

변죽은 그만 울리고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보자. 적어도 시작은 음! 그렇구나 였다. 얼마간의 — 솔직히 말하면 많이 — 색다름과 쇼킹함이 시작을 붙잡고 있다. 화면 가득 펼쳐지는 자막의 종적 진행은 영화가 초반의 의도에서 많이 일탈할 것임을 예견하고 있었다. 내가 기대했던 것은 현상들에 대한 의미있는, 그리고 심도 깊은 고찰이 었지만 영화는 답을 쌓아가듯 너무 많은 주제를 쌓아가고 있었고 처음에 제시한 자막처럼 무정부주의적 발언들 — 아무렇게나 또는 아무것도 아닌 — 속에서 영화의 내러티브는 사상누각(砂上樓閣)이 되고, 그리고 관중들의 깊은 한숨 속에 쓰러져 버린다.

비행 청소년들을 붙잡아 또는 꼬드겨 만들어 낸 영화가 얼마나 진지할까도 의심이 되었지만 이걸 도대체 어디에 시선을 맞추어야 하는지 당황되었다. 들성들성 관중석을 메운 남자 관객들— 거의 대부분이— 의 깔깔거림은 내 스스로의 부끄러움과 함께 시간의 퀘종 소리가 되어 ‘텅그렁 텅그렁’ 심장의 박동에 부담을 주었다.

말초신경을 자극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그들의 실태에 대해 고발하기 위해 만들어졌는지 의심스러운 초, 중반기의 필름은 ‘나쁘다’라는 선입관적 느낌에 또 하나의 나쁨을 더하고 있었고, 이게 뭐야? PD수첩, 추적 60분, 카메라 출동, 이런 것들과 도대체 뭐가 달라 하는 생각 속에 빠져들게 했다. 동어반복적인 일련의 방송프로와는 달리 단지 더욱 더한(?) 현장감과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가 주는 당혹스러움으로 인한 현실과의 괴리감, 그런 것이었던가 싶기도 한데.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장면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한다. 성공적인 도로 통제와 조금 빠르게 오토바이를 타고픈 욕망을 지난, 레이서가 되지 못한(될 수 없는) 짜장면 배달로부터 익혀진 오토바이 숨씨의 젊은 열라들을 대동하고 찍어낸 폭주장면과 “오빠 태워줘”를 외치는 10대 소녀들의 열광이 주는 정신 산란함이 폭주족과 ‘뽕카’에 열광하는 소녀들의 단지 그냥 좋다는 무소속적 아웃사이드의 일변을 보여주고 있다.

비추어지는 많은 문제들은 얘기하자면 끝이 없다. 집단 패싸움, 본드흡입, 가출, 자살, 부모의 폭력, 흡연, 앵벌이, 생일빵과 탈선의 리얼리즘, 그속에서 정말 웃기는 얘기 하나는 ‘표절’이었다.

표절이 자막으로 떴을 때 요즘 표절문제와 그 심각성이 이 생각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애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 싶었는데 정작 얘기가 진행될 때는 너무 웃겨서 이 영화를 보며 처음으로 웃었다. 지하철 타면 전단 돌리고 껌이나 초콜렛 파는 애들 있는 그 애들 모여서 하는 얘기는 자기들 전단의 배끼기 여부에 대한 논란이었다. 어느 정도 현실을 비꼬고 꼬집는 내용도 있어서 재밌었고 괜찮게 보았지만 역시나 그 웃음이 씁쓸하다는 것에 우울했다.

자괴심처럼 이 영화 속 어느 것 하나 경험해보지 못한 나에게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주제가 주는 미화의 과정을 통한 동화작용도 선행치 못한 경험의 부재로 인해 날 괴롭게 하는 요소가 되었고 아이들뿐만 아닌 거리의 부랑아—다 자란 어른들—들이 화면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이제 이 영화는 아이들의 일탈에 대한 나쁨만이 아니라 포용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아우르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고자 하는 장난기가 배제된 영화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영화가 종으로 치닫기 시작할 무렵에 문제의 장면이 나왔다. 물론 알고봐서 알지 가위질을 통해 잘린 부분이 관중들을 어리둥절하게 하지 않았는지 걱정이 되었다. 문제의 장면은 속칭 ‘돌림빵’ 장면이었는데 거의 완전하게 잘려나갔고 영화가 표방한 아이들의 실경험의 화면화는 여기서 철저히 배신을 당한다.

그 씬을 찍은 여자 아이는 실제로 그런 경험이 없고 또한 아이들조차도 해보지도 않은 이런 파행적(나쁜) 장면을 찍어야만 하는지 의문을 강

하게 지냈다고 하는데 이 장면의 삽입은 상영이 됐든 되지 않았든 두가지 실패를 '나쁜영화'에 안겨주는데, 그 첫째는 상영이 됐다면 가식적 흥미 요소의 삽입을 통한 흥행호조를 노린 정말 나쁜 기획의도로써의 실패가 됐을 것이며, 둘째는 상영이 전면적으로 될 수 없는 상황에 봉착되어 자체적 가위질을 하게끔 만든 것이 그 두번째 실수라 하겠다.

애기를 돌려 전작 '꽃잎' 으로부터 이어지는 애니메이션의 끼워넣기에 대해 생각해 본다. 초반부 아이들이 모여 자는 버스 안에서의 상상의 애니메이션 삽입은 전작 '꽃잎' 에서와 같은 거친 삽화의 셀애니메이션이며 표현하기는 조금 이상하지만 —영화를 보면 내 마음 이해할거다— 이 영화의 비유나 은유 또는 암시의 간접화법으로써의 유일한 작가주의적 양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녀본다.

그리고 아이들이 회사금고를 터는 장면의 이차원적 애니메이션에서 3D로 넘어가며 상상력의 비유나 암시가 현실이 됨을 이중적으로 암시하는 것 또한 인상적인 장면이었다.

영화속에서 다양하게 시도하는 애니메이션의 세계는 어쩌면 장선우 감독의 차기작이 ALL 애니메이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상상마저도 가능하게 한다.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때 적어도 영화란 내 개인적인 견해 안에서 동경의 세계이며, 실험의 세계이며, 은유의 세계라 정의할 때 '나쁜영화' 는 아주 나쁜 영화만은 아닌 것도 같다. 단지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극 영화도 아닌 세미 하드코어적 요소와 블랙코미디적 요소의 배열은 순행이 아닌 역행으로 이 영화에 미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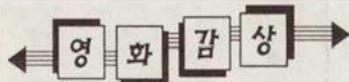
점을 주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잠시 내용에서 빠져나와 영화의 기술적인 문제로 넘어가보자. 몇 만자의 필름이 버려졌느니 어찌느니 하는 말이 아주 무색하게 편집은 정말 거칠다. 아마도 의도적 나뭇을 이끌어내기 위함이었으리라. 35mm보다 더 많이 16mm가 사용되고 —무슨 독립영화 찍나?— 8mm비디오는 더 많다. (순전히 내 개인적인 느낌이다.)

그로 인한 핸드헬드촬영은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든다. 혼탁함이란 이미지의 표출보다는 진실의 왜곡이라는 측면에서 나쁘다. 아니 나쁜것처럼 생각된다. 당연히 조명은 탁하고 광원으로부터의 번짐도 많고 색채는 모호해져 버린다. 일부러인지 상당 부분의 필름이 배경이 까맣게 상영되고 있었고 시선을 집중시키려는 의도였는지 배급된 필름상의 문제였는지는 잘 모르겠다.

녹음 부분을 보면 이 역시 이 영화가 평범하지 않기에 빚어진 문제인지 모르지만 대화는 거의 알아듣기 힘들다. 이 부분만큼은 정말로 한국영화의 고질적인 병폐다. 듣자하니 후반작업은 외국에 나가서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도 기술이 별로 인가? 그럼 뭐하러 비싼 돈주고 외국 나가? 안 그래? 자막처리된 내용으로 파악되는 영화 진행이 날 정말 답답하게 한다. 같은 나라 말을 알아먹기 힘든 영화상영이 화가 나는 만큼 기술적인 차원에서 이 영화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정말 '나쁜영화' 다.

이 영화를 본 이유는 평가에 대한 내 입장이 필요해서였지만 정말로 보고 난 뒤의 느낌은 혼



돈이었고 모르겠다 였다.

정말로 해야 할 말들이 차용해야 할 양식은 이
런게 아니라는 생각의 두터움뿐이었다. 악서가
없는 것처럼 이 영화에서는 분명 취해야 할 점이
있고 버려야 할 점이 있다. 회피의 말처럼 들릴
는지 모르지만 중도적 입장에서 모르겠다라는
말을 던지게 만든다. 정말 나쁜가? 아닌가?
N·E·X·T의 노래 가사처럼 할말은 길어진 그림
자 사이에 두어야 함은 아닐는지.

시사회장에서 아이들의 건들거림과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유동성에 대해서는 대개 자
유분방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로

진지해야 할 시점에서조차도 일상처럼 움직이
는 그 모습이 현실감과 동떨어진 애들의 모습
을 담은 이야기로 인해 답답하고 정말로 그런 모
습이 보편이 아닌 특수이기만을 바랄 뿐이다.

영화는 여러 가지 면에서 나쁘고 정말 의도대
도 나쁨을 유도했다면 이 영화는 성공했지만, 나
쁘다 라는 개념의 공통분모를 찾아내지 못하게
끔 한 것으로 이 영화는 최후의 역전승을 거두지
는 못한 것 같다. 하지만 역시 느낌은 각자의 몫
이다. 직접 보고 나쁘다 라는 개념에 대한 나같
은 중도적 모호함보다는 극단적 판단을 가져보
는 것도 좋으리라. **평론**

공·군·문·단

시

전우여 ●

철매가 날아오를 때 ●

소설

또래의 사랑 ●

공·군·문·단

수필

- 와무지탄
- 백마를 탄 단종
- 예비 사위의 선물
- 뼈뼩이 남긴 말
- 십원의 가치

전우여

이 진 욱

병장/제15 전투비행단 35경비대



짧은 머리카락 사이로 흐르는 땀방울이
태양에 검게 그을린 얼굴 위에 맺힌다.
무엇에 대한 땀방울인가.
누구를 위해 얼굴을 그을렸나.

타들어가는 담뱃불에
모든 사랑과 그리움을 태워버리고
내뿜는 하얀 연기에
모진 각오들을 날려 보낸다.

이 넓은 세상을 어깨에 짊어지고서
굽힐 줄 모르는 의지 하나로 살아가는
전우여!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겠다
약속한 우리
큰 다짐 푸른 하늘을 새기며
그 이름 불러본다.
전우여!

철매가 날아오를 때

황 해 동

상병/제3171부대 작전통제처



이글거리는 태양의 힘을 받아 날아오르는 철매
잠들었던 하늘을 깨우며 영공의 방패가 날아오른다.
한치의 빈틈도 용납할 수 없다는 각오의 눈빛이
어둠이 내려 앉은 대지를 평온히 잠재운다.

아무런 소리없이 찾아드는 불청객의 잘못을
꾸짖기라도 하듯 터질듯한 광음을 내지르며
철매가 날아오르면 꿈무늬가 빠질세라
오늘도 영공 방패를 자부하며 철매는 날아오른다.

철매가 검붉은 피를 토하며 저 하늘로 날아 오를때
지하에서 분노하며 눈 감지 못하신 단군의 소원처럼
두동강이로 잘려진 허리에 철조망은 사라지고
철천만 한 겨레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 되리라.



또 래의 사랑

김 정 근

상병/제17전투비행단 기지지원전대



이희정을 만난 것은 지난 봄의 일이다. 입김이 하얗게 공기를 가르고, 여전히 코트를 입어야 했던, “아쿠, 이제 수능도 채 2년이 남질 않았군” 하던 시기.

그런 봄날에 나는 그녀를 만났다. 투명한 햇살의 하늘 사이로 혹 저승사자가 내려와 “대신 나는 네 생애 중 3년을 잘라가겠다.”하고 말해도 “기꺼이.”라고 할 만큼 그녀와의 조우는 내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희정, 그녀는 신명여고의 스타였고, 나아가 지역의 학생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인기 소녀였다. 그녀가 기획했던 교내지 “또래의 사랑”과 방송제는 언제나 탄성과 환호성으로 가득했었다. 특히 2학년 봄에 공연됐던 연극과 방송이 혼합된 <영화가 10대를 생각하는 것들>은 얼마나 대단했던가.

그러니까 난 그 이희정을 만났다. 그건 지난 봄의 일. —그래, 확실히 말하자. 그건 지난 늦겨울의 이야기이다. 말하자면 이 얘기, 늦겨울에

펼쳐진 내 연애담이다. 이희정, 난 그녀에게 꼬박 5개월 간 러브레터를 보냈고, 답장을 받은 것이 바로 예의 그 늦겨울. 연결은 그렇게 되었던 것이다. — 그래, 더 분명히 하면 이 소설, 희정이와 사귀려 시도했던 내 연애담일지도 모른다. 모든 것은 러브레터로부터 시작되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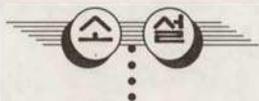
첫째, 절대성에 관한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믿지말 것.

둘째, 진지함은 재미있게, 가벼운 것을 진지하게. 즉 집착하지 말 것

셋째, 내가 가고 있는 길..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 것.

넷째, 함부로 진심을 털어놓지 말 것. 당신이 싫어요 같은 말

1학년 겨울방학이 시작될 무렵 내겐 독특한



버릇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생각을 도식화시켜야 한다는 것, 즉 번호를 매기며 사물을 순서화하고, 형식화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겨난 것이다. 가령, 수학 정석도 한 달에 32페이지만을 봐야 했고, 영화 관련도 1년 스케줄을 잡아놔야 직성이 풀렸다. 24편을 보기로 했던 그 해에도 난 정말 24편의 영화만을 보고야 말았다.

12월 18일이 그 마지막 날이었는데, 만약 이를 후에 <블레이드 러너>가 첫 개봉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정말이지 결벽증을 정복하려 칼날 선 계단을 오르는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잘된 일이었다. 그 기분 탓에 희정이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이름을 처음 알게된 건 “또래의 사랑” 여름호 덕택이었다. 그것을 읽은 건 1학년 2학기 중간 고사가 시작될 무렵. 주로 여학생들의 시시콜콜한 사랑, 학교생활 이야기와 수필, 시, 그리고 모범생들의 글로 여겨지는 그야말로 모범답안 같은 산문으로 구성된 다이제스트형의 60페이지짜리 계간지인 “또래의 사랑”에서 그녀를 처음 만난 것이다.

얘기가 길어졌다. 간략하게 말해서, “또래의 사랑”은 달라져 있었다. 전무후무한 편집에 굉장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의 편집부장 자리에 ‘이희정’이란 이름이 써진 것을 보고 난 그녀를 알고싶어졌다. 몹시나. — 그 교지내의 여름호 오프닝썸은 이렇게 시작된다. 왼쪽 면엔 고다르의 <네 멋대로 해라> 필름이 붙여져 있고, 그 밑으로 “위대한 비평은 이렇게 시작되었다.”라는 문구가 역상 형태로 써져있다. 오른쪽 페이지의 서문은 이렇다.

“새해가 되면 언제나 새로운 다짐을 해왔습니

다. 그리고 변화하고자 마음먹기도 했죠. 그렇게 우리도 몇번인가의 각오를 다졌고,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름을 저희는 새해로 삼았습니다. 비단 그것은 시간만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여기, 숨차게 달려가는 청춘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들리지 않습니까? 믿지 못하신다면 펼치십시오. 넘기십시오. 또 다른 세계입니다.”

나는 다음날, 그녀에게 편지를 썼다. 답장이 없더라도 좋다. 써야만 한다. 그것도 딱 일주일에 한통. 5개월을 써기로 마음 먹었다. 하지만 주소를 알길이 없어 신명여고 방송문화부 이희정, 라고 받는 이에 써서 직접 학교의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다.

하지만 기대대로 답장은 3개월이 다 되도록 오지 않았고, 나는 그렇게 1학년 겨울방학을 맞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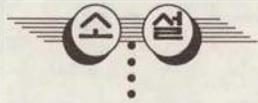
1학년 천호가 말했다.

「뭔가 독특한 방법으로 하는건 어떨까.」

역시 1학년인 규현이가 「예를 들면?」하고 물었다.

「틀 속에서 부대끼면서 그 안의 약한 곳을 계속 두드려대는거지. 그게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방편으로 2학년 선배에게 상의해 보는건 어떨까.」

「아냐, 그건 더 어렵다고 생각해. 교복만 봐도, 그건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구. 그 중첩되고 반복되고, 계승되는 이미지 속에서 돌파구를 찾는다는 건... 또 2학년과 3학년은 이미 현



실에서 살고 있다구. 너, 내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겠지?」

천호와 규현인 중 3때부터 친구였는데, 또 고등학교도 같은 곳으로 배정받았다. 겨울 방학이 시작되던 날, 우리는 천호의 집에서 학교의 얘기를 하며 우리만의 무언가를 찾고자 노력했다. — “10대답게 독특하고, 신선한 것. 학생다운 것.” 이 담임 선생님이 내준 방학과제였다. 그래서 우리는 삼인 일조가 되어 여러가지 궁리를 하고 있었다.

「이건 어때, “또래의 사랑”의 반대로 가보는 거. 즉 규현이의 방향으로.」라고 난 말했고, 내 한표로 다수결이 된 규현의 뜻대로 우린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고자 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인터뷰 테잎을 만들기로 했다. 졸업한 선배들과 또래의 학생들을 상대로 인터뷰 테잎을 만들기로 작정한 것이었다.

숙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방송반인 천호를 통해 2학년의 첫 점심 빵빠레가 올릴 때 방송하기로 약속했다. — 더 크게는 라디오 방송국에 보내자고도 생각했다.

★

회정이는 계속해서 차별화된 교내지를 만들어 갔고, 그것은 또래들에게 회자되며 교양지가 되어갔다. 나는 나대로 친구들과 테잎의 내용을 차곡차곡 쌓아나갔다. 역시 러브레터는 4개월째 계속되가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답장은 도착되지 않았다. 어쩌면 편지 역시 어떤 식으로든 차단되고 있는지도 몰랐다. (한번은 학교로 온 내 우편물이 소각장에서 불타고 있기도 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방학은 끝나갔고, 학교는 개

학을 하였다.

★

졸업반은 즐거워들 보였지만 어쩐지 또 의기소침해 보였고, 2학년은 수능을 치뤄야 하는 최전방에 위치해 있는 탓으로 입술을 앙다물었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후방을 든든히 받쳐줘야 해서 어깨를 꼳꼳히 세워야 했다. 그리고 그것은 더 큰 행복을 위해! 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드디어 행복을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세계로 돌입한 것이다.

테잎은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과제 제출과 복사본을 각 학교 방송반으로 보내는 일이었다. 여기, 엄청나게 멋지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과시하고 싶기도 했고, 그들과 연대하고 싶기도 했고, 모든 걸 떠나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했던 우리의 작은 바람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에 나는 벅차게 심장이 뛰어 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소서, 점심 때 잠깐 보자.」

담임 선생님은 수업을 마치고 복도를 나가며 그렇게 말씀하셨다. 특별히 ‘튀는’ 학생이 아니었던 나는 언제나 선생님과의 독대를 두려워했다. 하지만 불안해할 이유따윈 없었다. 난 점심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나자 곧 교무실로 달려갔다.

「요새 헤이해져 있는 것 같애.」라고 담임은 대뜸 말했다. 교무실은 담배 연기로 짙 차있어서 제대로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내 공기는 연기에 질식당했다.



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네, 네, 하고 대답만 할 뿐이었다.

「다른 데 신경쓰는 건 아냐, 여자친구가 생겼나?」

「그건 아닙니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럼 다른 건 있다는 말이군.」라고 그는 볼펜을 책상에 두드리며 미소지었다.

빠르다, 역시 베테랑이다. 하며 나는 감탄했다. 단어 하나로, 태도 하나로 금세 눈치채 버린다. 이들은 확실히 이들에게 우리는 역부족이다. 마치 정검다리를 건너듯 우리는 3년을 지내지만 이들은 우리를 타고 시간을 갱신해나가고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린 너무나 젊어요!」라고 하마터면 난 말할뻔 했다. 생각이 그대로 입 밖으로 튀어나올뻔 했던 것이다.

곧 선생님은 주위에 한눈 팔지 마라, 지금도 어디서 네 적이 너를 노리고 있을거야. 하고 말 씀하시고 나를 돌려 보냈다. 그리고 난 교실로 돌아와 점심을 먹고 곧 이은 자율 학습 시간에 희정에게 편지를 썼다.

“생각해 봤지만 지금도 여건은 어렵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 또한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당신이 방송제를 열고, 교내지를 만들어 무언가를 발산하듯 나와 내 친구들 또한 여러가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감히 말하건대, 그건 저희의 애정 표현이며, 또 숨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확히 일주일 후에 그것은 도착될 것이며, 그 때 우리가 만나 뜨겁게 이야기 꽃을 피운다면 정말 멋진 일일겁니다. ‘Cool하게’ 보낼 수 있는 청춘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전에도 한 번 쓴 적이 있지만 정말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럼 그때

를 상상하며...”

언제, 어디서 만나자라는 등의 내용을 난 항상 적지 않고 있었다. ‘만약 나오지 않는다면’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그건 또 어쩐지 너무 딱딱해 보여서 싫었기 때문이다. 때가 되리라, 때가 되리라. 항상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 ‘때’는 내게 너무나 일찍 찾아왔다. 그 서늘했던 2월 18일, 봄방학을 이틀 앞둔 그 날에 드디어 그녀를 만나고야 만 것이다. 약속은 있지도 않았으며 그렇다고 그녀를 만나러 걱정 한것도 아니었다. 정말 그건 뜻밖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 날 아침에 난 지각을 결심하고 늦잠을 잤다. 전 날에 한 숨도 자지 않고 테이프를 포장했기 때문이었다. 천호와 규현이는 일찍 돌아갔지만, 난 당장에 각 학교 방송국에 보내고 싶어 포장을 하고 라벨을 붙였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개는 일부러 포장을 하지 않고 놔둬버렸다. 특별히 희정에게, 라고 라벨을 붙인 그 테이프를 예쁜 포장지로 싸서 희정에게 주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난 11시 10분 경에 시내의 학생 백화점에 들었다. 그리고 수백 종의 포장지 속에 파묻혀 눈동자를 분주히 이동시켰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것은 없었고, 배를 채우려 패스트 푸드점에 들어갔다. 간단히 치즈버거를 시켜, 2층으로 가 창밖의 거리를 보며 우적우적 연작운동을 시작했다. 창 밖에 맞은 편엔 꽃 가게와 오락실, 레코드점이 있었고, 그 옆으로 스포츠 용품점이 있었다. 사람들은 별로 보이질 않았다. 그리고 그 10미터 위로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극장이 있었는데, 상영되는 영화는 멋지게도 <화니와 알렉산더>였



다. 볼까, 말까, 하고 망설였지만 그럴 수도 없어서 난 곧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그 때였다. 나와 동시에 극장에서도 한 여자가 나왔다. 그녀는 교복을 입고 있었다. 오른 손에 화구박스를 들고 등 뒤에 가방을 멘 채, 여고생이었다. 그것도 자주색 투피스의 신명여고생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여기까진 별다를 게 없다. 미술을 하는 평범한 여고생일 따름이다. 그러나 평일 아침에 <화니와 알렉산더>를 보는 여고생은 무언가 특별해 보였다. 또 하늘은 얼마나 맑았던가, 일주일치의 햇살을 함박 머금은 투명하늘, 그리고 선명한 자주색 교복의 소녀.

그래서 난 그녀에게 다가갔다. 뭔가 보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은채 주머니에 있던 '포장되지 않은' 그 테잎을 쥐버렸다. 그녀는 가우똥, 큰 눈을 멀똥거리며 잠시 날 바라봤지만 곧 테잎을 받아 들었고, 난 그 즉시 획 등을 돌려 도로로 나가 버스정류장 앞에 섰다. 잠시 후, 그녀도 내 옆으로 와 버스를 기다렸고, 우리는 같은 버스에 올라섰다. — 신명여고와 우리 학교는 같은 노선상에 위치해 있었다.

그녀는 가끔 만지작 만지작, 테잎을 쥐곤 무표정하게 테잎과 나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예의 큰 눈을 깜빡이며, 그리고 잠시 후 버스에서 내렸다. 또각 또각... 흐트러짐 없이 무게있는 발걸음. 곧게 뻗은 다리와 큰 눈이 매력적인, 일주일치의 햇살을 마음껏 머금은 듯한 그녀는 그렇게 걸어 나갔다.

★

그리고 사흘 후 빠른 우편으로 내게 편지가 왔다. '보내는 이'란 에는 놀랍게도 이희정이란 글

자가 작게 써져 있었다. 굉장해! 4개월 20일만에 드디어 답장이 도착한 것이었다.

"누군가 나를 바라본다는 것은 일견 기분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날은 정말 당혹스러웠어요. 지금도 어떤 기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본 결과 한 번은 꼭 만나야 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것을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 그것의 다양한 면을 말입니다. 그리고 저도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가지, 정말 소녀로서,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 여러가지 생각했던 것들. 참, 그런데 당신 몇학년인가요?"

그리고 추신에 시간과 날짜, 장소가 적혀져 있었다. 나는 그 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봄 방학이 끝나고 내가 2학년이 되는 날. 시간아, 힘차게 달려라, 뛰어!

★

그러나 다소 우울한 기분. 2학년의 첫 날 점심에 우리는 테잎을 틀지 못했다. 천호와 규현이와 했던 2개월 전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어휴, 어리석게도 오전 수업만으로 학교가 끝났던 것이다. 이런!

그러나 그녀를 만난다. 라는 생각에 나는 다소 들떠 있었다. 하긴 생각해본 결과, 그녀는 나를 만났고, 나 또한 그렇다. 우연히 스쳤지만, 또 변변한 대화 나뉘보지도 못했지만 우리는(나는) 기분 좋게 서로를 스쳐 지나갔었다.

확실히 인간에게 표적이 있다. 카인은 동료를 못 만났을 뿐이고 따라서 홀대받았을 뿐이다. 싱클레어는 어떻게 테미안을 만날 수 있었던 말인



가. 흑스는 또 어떻게 해서 고다르에게 발견될 수 있었던 말인가. 지나쳐도 좋다. 그건 또 그 나름대로 아름답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의 난 정말 들떠 있었다. 점프를 하면 한 시간 후에나 다시 땅에 닿을 수 있을 만큼 공기는 가벼웠다.

지금엔 버스를 타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오늘을 상상할 것이다. 꿈꾸는 듯한 미소, 화창한 오후. 모든 것은 모두 정지해 버려, 그 자리에 멈춰서 버려라!

버스가 사거리에서 멈춰 섰고, 곧 우회전을 하며 다가온다. 이미 도원동을 넘어서 배다리를 지나고 벌써 동인천이다. 그녀는 교복을 입은 채로 달려온다. 너무나 깔끔하다. 선명한 자주색과 파란 하늘의 대비. 그 모든 이미지는 파괴된 채 하늘을 떠돌아 땅으로 추락한다. 난 일어서서 주위를 빙그르 돌아본다. 산만하던 공기가 다시 깨끗해진다. 숨쉬기 좋다. 어쩌면 호흡은 정지해 버렸는지도 모른다. 너무나 깨끗해 걸러낼 불순물은 하나도 없다. 아, 투명한 하늘.

버스가 정류장에 섰고, 그녀가 내린다. 사람들이 그녀를 피하며 길을 내준다. 그 곳과 이 곳이 하나의 빛으로 이어져 그녀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녀는 곧 맥도널드를 돌아 눈 앞에 나타날 것이

다. 환하게 웃을 것이다. 큰 눈을 가우똥 하며 안녕! 하고 말해 올 것이다.

난 이런 상상을 한껏하며 어서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시계를 봤다. 만약 지금 100년간 시간이 멈춰버린다면 난 100년 동안 기다림의 즐거움에 질식사해버릴지도 모를 지경이었다.

그리고 곧 그녀가 코너를 돌아 내게 모습을 보였다. 화구박스는 없었고, 가방 또한 없었다. 교복을 입은 다소 큰 귀와 눈을 가진 소녀만이 걸어오고 있었다.

「안녕, 오랜만이야」

「반가워」

「우리 한 번 만난 적 있지? ... 이젠 자주 만나게 될거야. 언제라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주위로 환한 빛이 새어 나왔다. 여전히 바람은 싸늘하게 불었지만 우리는 외투따위 입지 않았다. 바람 앞에 당당한 채 거리를 걸었다. 봄은 이제 흙씨를 날리며 찾아올 준비를 했고, 그녀는 깜빡 큰 눈을 찡긋하며 위대한 계절의 서막을 알러왔다.

그녀는 말했다.

「이젠 자주 만나게 될거야. 언제라도.」 **종간**

와무지탄(蛙無之嘆)

김 용 욱

3급/제7180부대 비행교관실



후세 학자들이 조선조 성종시대를 '태평성대의 시대였다.' 라고 평가하는데 인색하지 않을 만큼 당시 백성들의 생활은 풍족했다. 임금은 수시로 민초들의 생활상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평상복으로 변복하고서 야행을 했다.

그날도 수행원 한사람만 데리고 야행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아직도 성까지는 멀기만한데 날이 저물고, 캄캄한 밤이 되었다. 지금의 경기도 광주 부근을 지나는데, 마침 초여름이라 여기 저기 텃논에서 울어대는 개구리 소리도 요란했다.

백성들은 하루종일 논일, 밭일에 시달려 초저녁부터 일찍이 잠자리에 들었는지 불빛 하나 보이지 않았다. 한동안을 돌이켜 걸어오는데, 멀리 희미한 불빛이 어렴풋하게 눈에 띄었다.

임금은 웬 불빛일까, 궁금하여 발길을 그쪽으로 돌렸다. 어둠 속에 드문드문 꼬막껍질 얹어놓은 듯한 초가집 서너채가 다정하게 자리한 조용한 농촌마을이었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은 마

을 입구의 길가에 자리한 삼칸 오두막이었다. 가까이 다가가 봉창에 침을 대고 안을 들여다 보니, 남루한 차림의 선비가 상투는 새끼로 묶어 천정에 고정하고 무릎 앞에서 쥘단을 쌓아놓고 새끼를 꼬면서 글을 읽는 것이었다.

'기특도 한 선비로다. 주경야독은 이를 두고 한 말이 아니던가' 여기고 방안을 둘러보니, 맞은 편 벽에 도무지 뜻을 알 수 없는 「와무지탄」이라는 글이 붙어 있었다. '개구리가 없음을 한탄한다.' 라는 뜻이지만 그 글과 이 선비와는 무슨 사연이 있을까? 궁금해진 임금은 문을 두드려 안으로 들어갔다. '지나는 과객인데 늦은 시각이라 잠시 들렀노라'고 운을 뗀 뒤, 사정이 딱하니 하룻밤 유하길 정중하게 청했다.

선비는 하던 일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낮선 과객을 맞이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누추한 곳이지만 하룻밤 묵어도 괜찮다' 는 대답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임금은 '와무지탄'이 무슨 뜻인가 물었다. 선비는 굳이 아실 필요

가 없는 글이라며 답을 피했지만 마지못해 다음과 같은 우화(寓話)를 털어 놓았다.

『어느 날 피꼬리와 두루미가 노래시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노래 심판은 개고마리가 하기로 했지요. 그 날부터 피꼬리는 열심히 노래연습을 했지만, 두루미는 큰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두루미는 피꼬리를 당해 낼 수 없었습니다. 논두렁에서나 냇가에서나 두루미는 어떻게 하면 피꼬리를 이길 수 있을까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가지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개고마리는 개구리를 가장 좋아한다. 그러나 부리가 크고 몸통도 크니, 개구리를 쉽게 잡을 수 없다. 그러니 개구리를 잡아다가 개고마리에게 갖다주면 개고마리가 내편을 들어 주겠지.’

그날부터 두루미는 매일 매일 열심히 개구리를 물어다가 개고마리 둥지에 갖다 주었습니다. 개고마리는 속으로 두루미가 왜 그러는지 알면서

“이러면 안된다. 그렇다고 내가 어느 한쪽을 편드는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매일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편안하게 둥지에 앉아 먹게 되니 개고마리로서는 여간 좋은게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노래시합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먼저 피꼬리가 낭랑하고 예쁜 목소리로 멋진가락을 뽑았습니다.

이어서 두루미도 자신은 없었지만 목청을 가다듬어 나름대로 열심히 노래를 불었습니다. 양쪽의 노래를 듣고 난 개고마리는

“피꼬리야 노래는 열심히 불렀지만, 네 노래는 너무 가볍고, 방정 맞아서 듣는 내가 큰 취흥을 느낄 수가 없구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루미를 향해서는

“두루미야, 네 목청이 썩 곱지는 않으나 무게가 있고 듣는 나의 심금을 울리는 애절함이 있구나.”라고 한 다음

“오늘 노래시합은 두루미가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피꼬리가 돌아서면서

“아 나에게도 개구리만 있었으면 내가 이길 수 있었을텐데…”했던 것입니다. 이 피꼬리의 한탄이 바로 와무지탄이지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임금은 그 이야기와 선비와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지 더욱 궁금해졌다.

“그 이야기와 선비와는 무슨 사연이라도 있습니까?”

물으니 선비가 대답하길

“사실 저는 지난 10년동안 열심히 공부하여 과거시험을 보았으나 번번히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공부가 알아서 그러려니 여겼으나 나중에 알고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높은 관직에 아는 사람이 있거나, 재산이 많아 재물을 갖다주고 과거에 합격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같은 시골의 백면생이 무슨 능력이 있어 그렇게 하겠습니까. 마치 개구리 없는 피꼬리인게지요.”

그제서야 임금은 그 선비와 벽에 붙어있는 글의 사연을 이해하고, 밤이 늦었으니 그만 쉬어야겠다고 하고는 눈을 붙였다.

다음 날 없는 살림에도 정성들여 차린 조반상을 물리면서

“길을 오다 보니 들리는 말에 대궐에 경사가 있어 한달 뒤에 별시가 있다고 하던데, 선비께서도 응시를 해 봄이 어떠할는지요.”하고 선비의 의중을 물으니 그 선비는

“또 뻥한 것을, 이제 더는 과거시험을 보지 않

을 겁니다.” 한다.

임금은 아쉬운 마음에

“그래도 그동안 열심히 해온 공부가 아까운데, 한 번 더 속는 셈치고 응시를 함이 옳은 듯 하외다.”라는 말을 남기고 발길을 돌려 대궐에 오자마자 별시를 준비토록 하명했다. 곳곳에는 방이 붙었다. 아무날 아무시에 대궐에 경사가 있어 별시를 치른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한날이 지났다. 과장에는 전국각지에서 구름처럼 많은 선비들이 모여 들었다. 드디어 시험관이 과제를 들고 나타났다. 소란하던 과장은 ‘오늘의 과제는 무엇일까?’ 하는 긴장 속에 쥐죽은 듯한 정적에 싸였다. 시험관은 운집한 선비들을 둘러보고 나서 두루말이로 된 과제를 쭈욱 펼쳐 내렸다.

『외무지탄에 대하여 논하라』

너무나 뜻밖의 과제에 많은 선비들은 어리둥절 해졌고, 과장은 금방 소란스러워졌다. 도대체 과제가 지닌 뜻은 무엇이란 말인가? 많은 선비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오늘의 별시는 포기하고 다음 기회를 보자는 것이었다. 극히 일부의 선비들만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기도 하고, 여기저기 둘러 보는가 하면, 그래도 뭔가를 써 내려가는 사람도 있었다.

그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나누어 준 종이에 빼곡히 답을 쓰고 있었다. 오늘의 과제는 너무 쉬운 과제라고 여기면서 멀리서 아까부터 흐뭇한 미소와 함께 이 선비의 모습을 바라보는 금관자의 선비가 있었다.

평복으로 변장한 성종 임금이었다.

등려

백마를 탄 단종

최 중 호

한국수필가협회 이사



태백산에는 단종(端宗)의 비가 있다. 망경사(望鏡寺)에서 정상 천제단(天祭壇)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朝鮮國 太白山 端宗大王 之碑'라 새겨진 비가 세워져 있는 것이다. 정상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천제단(天祭壇)이 있어 세우지 못하고, 그 아래에 세웠다고 한다.

단종의 비라면 그와 연관이 있는 영월이나 서울에 세울 것이지, 왜 태백산에 세웠는지 알 수가 없다.

영월의 영모전(永慕殿)에는 단종의 영정(影幀)이 모셔져 있다. 곤룡포에 익선관(翼蟬冠)으로 정정한 단종은 백마를 탔고, 그 밑에 한노인이 고개를 숙이며 과일바구니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옛사람들은 백마를 승천하는 연혼의 안내자로 믿어왔다. 유럽이나 인도, 고구려시대 무덤과 경주의 천마총에도 백마가 그려져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영정에 나타난 백마는 단종의 영혼을 싣고 가는 그림일 것이다. 단종의 영혼은 백마를 타고 어디로 가며, 그 밑에 있는 노인은 누

구란 말인가?

슬픔에 젖은 소나무가, 한양의 궁궐쪽으로 더 긴 가지를 뻗히고 있다는 영월을 찾은 것은, 어느 여름날 저녁이었다. 낮설고 물설은 곳을 달려와 지쳤는지, 잠자리가 바뀌었는데도 쉽게 잠이 들었다. 새벽녘 빗소리가 단잠을 깨다. 밖에 내리는 비는 멀리 찾아온 나그네를 반겨 흐르는 단종의 눈물인가, 그치길 기다려도 그칠 줄 모른다.

이른 아침, 비를 맞으며 단종의 능(陵)이 있다는 장릉(壯陵)으로 갔으나 문이 닫혀 있다. 내친 걸음에 청령포로 향했다. 그곳은 단종이 처음 유배되어 두 달 정도 머물던 곳이다.

휘어 감긴 안개자락 사이로 육육봉(六六峯)은 이따금 모습을 드러 내건만, 앞에 흐르는 강은 말이 없다. 서강(西江)은 흘러 남한강이 되고, 다시 북한강과 합류하여 한강으로 흘러가건만, 단종의 애닦은 사연을 서울에 있던 왕비 송씨에게도 전해 줬을까?

강가에는 사공없는 빈 배만 매여져 있다. 때문에 금표비와 비각은 보지 못하고, 강변에 있는 소나무 숲으로 갔다.

그곳엔 회색빛 바위로 된 비(碑) 하나가 빗물로 얼룩져 있다. 한데, 비가 잘못 세워져 있는 게 아닌가. 대부분의 비가 사람의 눈길이 쉽게 닿는 쪽을 정면으로 하여 서 있게 마련인데 이 비는 돌아서 있는 것이었다. 길에서 볼 수 있는 쪽은 뒷면이요, 정면은 강물이 흐르는 낭떠러지 쪽으로 가서 봐야만 했다.

‘어째서 비를 세웠을까?’ 하고 비 세운 사람들을 탓하며 낭떠러지쪽으로 조심스레 발을 옮겼다.

자연적으로된 큰바위에는 「왕방연 시조비」라 새겨 있고, 사각으로 된 중간석에 그의 시조가 새겨져 있었다.

‘천만리 머나먼 길의 / 고은 님 여희웁고 / 내므음 돌디업서 / 닛가의 안자시니 / 더물도 내안웃도다 / 울어밤길 예눗다.’

시조를 음미해 본다.

왕방연(王邦衍)은 금부도사로서 대세의 흐름을 거역하지 못하고, 수양대군의 명을 받아 수행은 했지만, 진정으로 단종의 승하를 슬퍼했던 것 같다.

비가 향하고 있는 쪽을 바라보니, 단종이 유배되었던 청령포다.

해바라기가 해를 향해 고개를 돌리듯, 시조비는 단종이 계셨던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 생각하니, 청령포로 넘어오는 고갯마루에 있던 생육신 조여(趙旅)의 비도 청령포쪽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제야 비를 세운 사람들의 깊은 뜻을 비로소 알 수가 있었다.

여기는 왕방연이 단종을 여의고, 설은 마음에 단종이 유배되었던 청령포를 바라보며 눈물 짓던 자리일 것이다. 이곳에 왕방연은 가고 없고 시조비만이 그를 대신하여 눈물짓고 있었다.

사공이 나오려면 아직도 멀었나 보다. 강을 건너 애뜻한 단종의 심사를 느껴보고 싶었으나 그리하지 못하고 강변을 따라 계속 걸었다.

비는 내려 땅을 적시고, 안개는 쉴 곳을 찾아 그윽한 산자락을 휘감고 있는데, 어디선가 빠꾸기 한 마리가 구슬피 울고 있다.

축(축)나라 망제(망제)가, 신하에게 왕좌를 빼앗기고 쫓겨나 그 원혼(冤魂)이 자규(子規)가 되었다는데, 그 자규(子規)는 어디 가고 빠꾸기만 울고 있다.

영월지방의 전설에 의하면 ‘단종이 승하한 후 그 혼령이 경치 좋은 어라연(於羅淵)을 돌아볼 때, 갑자기 고기떼가 나타나 말하기를

“전하께서는 한나라의 임금이었었는데 액운으로 화를 입었사오니, 영계(靈界)에서라도 태백산 신령이 되어 태백산맥이 미치는 모든 곳을 다 스려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늘의 땅이오니 지체 마시고 곧 태백산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단종은 용마굴에서 나타난 백마를 타고 동쪽의 태백산으로 간다. 이때 산머루를 따서 단종께 진상하려고 내려오던 한노인이 단종을 만나,

“전하, 어인 행차 이옵니까?” 하고 물으니, 단종은

“태백산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한 후, 모습을 감추었다 한다.

노인은 황급히 단종의 거소로 달려 갔으나 단종은 이미 승하한 후 였다. 그리하여 그도 단종을 따라 자결하여 신령이 되었다고 전한다.

영모전에 모셔진 단종의 영정은, 백마를 타고 태백산으로 가는 단종의 모습이다. 그 아래 고개를 숙이고 산머루 바구니를 받쳐 든 노인은, 한성 부윤을 지냈던 추익한(秋益漢)으로 단종이 영월로 유배 되었을 때, 자주 찾아 뵈고 진상을 했다는 분이시다.

단종은 자규시(子規詩)에 애달은 심정만 남겨 두고, 정말 태백산으로 떠나신 것일까.

울적한 마음으로 앞을 바라보았다. 앞엔 서강이 흐르고, 그 뒤로는 육육봉(六六峯)의 험준한 절벽이 있어, 설령 단종이 그곳을 벗어나려 해도 그리할 수 없는 천연요새의 유배지다.

머리 위로 모여드는 구름조각들을 보며, 단종이 청령포에서 꾸었다던 꿈 생각을 해 본다.

“육육봉에 구름이 머물거나 청령포의 여울소리가 흐느껴 울 때면, 신(臣)들이 문안드리고 간 줄 아시라” 했다면 사육신의 모습이 곧 보일 것만 같다.

단종도 자규도 없는 청령포의 하늘엔, 먹구름 조각들이 머물다 동쪽으로 간다. 사육신이 모여 태백산으로 단종께 문안 드리러 가는 가보다. 뻐꾸기가 다시 운다. 그 울음소리는 점점 더 처량하게 들린다.

뻐꾸기는 스스로 둥지를 틀지 않는다고 한다. 개개비나 때까치가 튼 둥지에 몰래 와서 알을 낳고는 개개비나 때까치의 알보다 며칠 먼저 부화하여, 둥지에 있던 다른 새의 알들을 모두 둥지

밖으로 떨어 뜨린다는 것이다.

수양대군도 어린 단종의 보위를 넘겨보다 자신이 차지했고, 그 보위를 자신의 후손으로 유지케 하였다.

세월이 흐르면 지난 날을 잘못을 뉘우치듯, 수양대군도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뻐꾸기는 누구를 찾아와 그리 슬피우는가.

이미 단종은 맏헌 한을 망향탑(望鄉塔)에 묻어두고, 백마를 타고 태백산으로 가셨는데, 그의 한이라도 달래고자 망향탑 주위를 맴돌고 있는 것 같다.

먹구름이 거처자 비도 그쳤고, 이제 육육봉도 서서히 안개를 걷고 얼굴을 내민다.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걸 보면, 뻐꾸기도 태백산으로 날아간 모양이다. **종근**

-
- 1) 천제단(天祭壇) : 태백산 정상에 있는 제단, 우리나라 건국신화와 관련된 환웅천황(桓雄天皇)이 태백산 신단수(神檀樹) 아래로 내려와 신시(神市)를 열고 우리 민족의 터전을 잡았다하여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그래서 단종의 비를, 그곳에 세워주지 못하고 그 아래쪽에다 세웠다고 한다.
- 2) 망향탑(望鄉塔) : 단종이 청령포에 유배되었을 때 서울의 궁궐을 그리워하며 산기슭에 흩어진 돌을 주워서 쌓았다는 탑.

예비사위의 선물



김 종 권

대위/작전사령부 전역항공통제부

낚시 인생 이야기라고 하면 너무나도 거창한 이야기 같지만 그래도 낚시를 시작한 지 20년이 된 나에게 생활의 일부와도 같은 나의 낚시는 내 인생에서 좋은 스승과 벗이 되어주곤 하였다. 그중에서 내가 반려자를 만나게 된 하나의 뒷 얘기를 이 글에 적고자 한다.

1996년 9월의 어느 토요일.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 전국적으로 가뭄이란 뉴스가 연이어 방송되고, 지칠줄 모르는 햇살의 따가움은 출조를 기다리는 낚시꾼들의 기다림마냥 저수지 바닥을 달구었다.

사관 학교를 졸업하고 비행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이 지방 저 지방을 전속과 파견으로 거의 안가본 곳이 없다고 할만큼 자부하는 나이지만, 이곳 충남 대천만큼은 태어나서 처음 오는 낚설은 곳이다. 하지만 낚선 땅에 발을 디디게 되었다는 긴장감과 사뭇 다르게 충청도 사람들의 점잖

음과 친절은 애초에 가졌던 나의 어색함을 이내 사라지게 하였다. 마치 오래된 내 고향에 찾아온 것 같은 친숙함마저 느껴졌다.

오늘 낚설은 이곳 대천을 찾아오게 된 것은 지난 3년간 반려자가 되기 위해 기다려준 나의 사랑스런 애인과의 결혼을 장인·장모님께 승낙받기 위해서다. 수원에서 승용차로 4시간을 달리자 이제 장래의 처갓집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대천의 자연과 따스한 정보다 먼저 편안함을 주었던 것은 수를 헤아리기도 힘들 정도로 산재해 있는 많은 저수지들이었다(장인·장모님이 아시면 화내실텐데……).

마음 같아서는 처갓집에는 내일 가고 먼저 낚시터로 향하고 싶었지만, 트렁크속에서 울고 있는 낚시대를 어렵게 달래우고는 다시 처갓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처갓집에서도 계속 낚시터를 향한 나

의 본능이 계속 엉덩이를 들썩이게 했다. 하지만 일단은 이성을 앞세워 그 본능을 잠재워놓기로 했다.

잠시는 그렇게 견뎠으나 밤이 되니 낚시터가 그리워 잠이 오질 않는다. 이렇게 물 좋고 경치 좋고 붕어까지 우글대는 곳이 지척인데 조용히 아무것도 않고 잠자리에 들어야 하다나…….

하지만 낚시광 애인을 만났다는 죄로 주말에 변변히 데이트도 못하는 애인의 집에까지 와서 차마 낚시하겠다는 말을 꺼낼 수는 없었다. 장인 어른과 장모님께서 사위될 놈이 구혼을 하겠다고 와서는 낚시하러 나가겠다고 해보라.

“이보게 김서방. 낚시하고 살지 그러냐” 하실 게 뻔하지 않은가.

이런 저런 생각 속에서 처갓집에서의 첫날은 아깝게도 그냥 지나가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나의 사랑스런 애인이 처남에게 나를 ‘낚시의 대부’라고 추켜세웠고, 몇 번 낚시 책에도 나왔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속으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래 조금만 더해라 더해. 처남을 부추겨서라도 잠시라도 손맛을 봐야 한다. 이제 가면 내년이나 올 수 있을텐데…….’

내 주문이 통했는지 드디어 처남이,

“형, 낚시 한번 가실래요?” 하는 것이 아닌가.

아아! 귀여운 나의 처남. 사랑스런 나의 처남. 나는 못이기는 척하고 처남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 주었고 처남의 글라스루트 두칸반대를 능숙

하게 수리해 주었다. 더불어 바늘 묶는 법, 고기 모으는 법, 좋은 자리 잡는 법, 어종별 포인트 선정법, 소품 손질법, 낚시대 배치법, 미끼 선택법, 월척 잡는 법, 낚시 예의 등, 나만이 가지고 있는 필승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 주었다.

아울러 자기 손바닥보다 작은 물고기는 어종을 막론하고 방생해야 된다는 조사의 예의를 먼저 잊지 않도록 하였다.

그럭저럭 점심을 먹고 일요일 낮 2시, 집 앞에서 10분 정도 소요되는 구슬뭇이라는 작은 저수지에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이게 웬 복인가! 나에게 처갓집의 대접과 아울러 또다시 붕어들의 융숭한 대접이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글라스루트 두칸반대의 2봉에 떡밥을 달고 찌를 맞춰볼까 하는데 어떤 일인지 60cm 정도밖에 올리지 않은 찌가 당최 서질 않는다. 뭇 때문일까 하여 그저 들여보니 생각지도 않았던 5치급 붕어 2마리가 낚시줄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는듯 휘둥그런 눈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때부터 나와 처남의 붕어 타작은 시작됐다. 낚시대를 드리우니 이제는 앞을 다투어 붕어가 수면을 박차고 올라왔다가 미끼를 향해 다이빙을 해댄다. 찌가 붕어 파동 때문에 제대로 서있질 못한다.

‘그래! 이 기분!’

‘그래! 이 맛이야!’

2시간을 타작하고 보니 5~6치로 1백여 마리. 실로 엄청난 양의 붕어사태가 났다. 평상시 같으



면 붕어는 철수할 때 다 방생하는 것이 나의 스타일이었지만 불현듯 머리에 스치는 기발한 생각.

나는 예쁜 붕어들을 살려서 장인어른댁까지 모시고 왔고, 불쌍하지만 예쁜 붕어들을 꼼꼼히 손질하여 장모님께서 드렸다. 아울러 붕어죽 만드는 요령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다.

결국 나는 오늘의 낚시로 처남에게는 낚시의 대부로, 장모님과 장인어른께는 듬직한 사위의 모습으로, 나의 애인에게는 처갓집에 효도하는 남자로서의 이미지를 남길 수 있었다.

어느덧 늦은 오후

붕어는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즉석에서 효과를 발휘했고 결혼 승낙은 물론 OK. 돌아오는 길에 나는 대천 붕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다.

‘붕어들아! 고맙다. 너희들 덕분에 장가 쉽게 가는구나.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자.’

가볍게 차 문을 열고 수원으로 향하는 운전대를 잡는다. 조심해서 가라며 장모님은 간식까지 챙겨 주신다.

매번 낚시 때문에 애인으로부터 잦은 불평을 듣는 나였지만 그 날의 일을 기회로 이제는 애인도 잉어나 가물치 한마리 살려서 가자고 꼬시니 처갓집에 갈 때는 부담없이 낚시를 갈 수 있는 대의명분이 생겼다. 이렇게 좋은 낚시 평생 사랑하며 살아가리라.

세상에 있는 수 많은 낚시광 남편들이여! 낚시를 사랑하자! 그리고 자연을 사랑하자! 그리고 가정을 더 사랑하자! **등근**

빠빠용이 남긴 말

김미애

6급/공군본부 정훈공보실



빠빠용이 그랬다.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기 마련”이라고. 이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과 동시에 전시회 준비로 근무 시간과 근무외 시간에도 차안에서, 침대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전시 관련 업무로 긴장을 해야 했다. 전시기획, 작품공모, 접수, 심사, 예산처리, 시상준비, 각종 인쇄물 제작, 초청자 섭외, 전시장 디스플레이, 오프닝 준비 등을 위해.

공군 진중창작전은 장병들의 정서함양과 창의성 개발을 통한 건전한 공군문화를 창달하고 공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증진을 위해 한국화, 서양화, 서예, 사진, 시각디자인 부문을 각 부대별로 공모한다. 공본에서 대외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하여 대외 갤러리에서 입상 작품, 초대작품, 찬조작품, 대형항공사진, 모형비행기, 종이비행기, 홍보용컴퓨터 그래픽 등 작품 200여점과 홍보용 멀티비전을 설치하여 참모총장님을 비롯한 참모들과 대전시장 등 지역기

관장들이 참석, 오프닝 행사를 갖고 5일 동안 전시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군의 참모습과 문화활동상을 홍보하는 행사이다.

공군진중창작 작품 전시회는 올해 들어 12회째를 맞이하는데 행사는 해를 거듭할수록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화, 서양화, 서예등 3개 부문에서 사진부문이 95년부터 추가가 됐고, 96년부터 대형 항공사진과 모형비행기, 종이비행기 전시를 하였고 97년 시각디자인 부문이 추가되었다.

열번째 이 행사를 준비하며 공군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70년대에 ○○기지에서 함께 근무한 대대장님을 만나고 싶는데 좀 찾을 방법이 없느냐?”고 묻는 중년의 신사, 조종사가 되고 싶은 꿈나무들, 여자 조종사를 꿈꾸는 여고생, 우리나라 최고의 화가 김기창씨 등과 처음엔 “군인도 그림을 그려요?”라고 의아해 하며 전시장에 들어와 놀라는 수많은 시민들을 만날

수 있었다.

매년 반복되는 행사라 어려운 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러 문제가 돌출되었다. 참모총장 상장을 받기 위해 자신의 그림이 아닌 남의 작품으로 출품을 하였다가 낙선된 경우도 있고, 부대내 사진촬영 금지로 병영내 사진 출품자가 없어서 사진작품이 들어오지 않아 애를 태우기도 했다. 전시장 대관료가 지불된 상태에서 전시장을 교체하기 위해서 난리를 피우기도 하면서 난, 큐레이터, 기획자, 실무자, 편집디자인이 되어 문서 작성부터 작품 운송준비까지 모든 것을 파악하고 처리해야 했다.

어떤 날은 서울에서 하루에 다섯 건의 업무를 처리하느라 시간이 부족해 갓길에 차를 잠시 세워둔 후 일을 마치고 15분만에 나와보니 빨간색 주차위반 스틱카가 부착되어 있었다. 화가 났지만 견인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란 생각으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였다.

시간 약속을 하고 간 다음 장소에서 난 30분을 차 마시러 간 사람을 기다려야 했다. 그리고 우리의 결제방법과 복잡한 서류작성에 이해를 하지 못해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물건을 줄 수 없다는 사람을 이해시키는데 1시간을 보냈다. 겨우 교통지옥이라는 서울을 빠져 나왔지만 사고로 인한 정체로 고속도로에서 1시간을 보냈고 대학원 수업을 위해 조치원에 도착했을 때는 수업시간 2시간이 경과된 후 였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업무 때문에…”라고 말하자 무정하게도 “누가 직장에 다니라고 했나?”라고 말씀하신다. 수업을 마친 후, 10시가 되어

저녁식사를 간단히 해결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1시간 가량 차를 몰고 대전으로 향한다. 대전까지의 1번 국도는 공사구간으로 야간운전을 하면서 몇번의 줄음 운전과 트럭들의 난폭운전에 위험을 느낀 난 생명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10년만에 다시 찾은 캠퍼스 생활은 나를 낭만속으로만 빠질 수 있게 두지 않았다. 막연히 10년전, 기억 속에 대학원생들은 그저 가끔 학교에 나타나면 적당히 졸업할 수 있는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의 예상과 실제 상황과는 거리가 매우 멀었다.

나는 10년동안 전시장을 찾는 일 이외에 전공과 관련된 작업은 거의 하지 않은 아마추어였고, 다른 학생들은 모두 개인작업장까지 갖추고 있는 프로중에 프로들이었는데 10년만에 새롭게 시작하는 아이디어 스케치, 원형제작, 석고작업, 초벌, 시유, 재벌, 그리고 슬라이드 작품촬영과 함께, 자기가 만든 작품을 지각 심리학 측면에서 분석하여 발표하는 것까지 어느 것 하나 내게 쉬운 일은 없었다.

일주일 중에 3일은 수업을 위해, 그리고 나머지 4일은 업무처리와 함께 과제 준비를 위한 공방으로 자료를 찾기 위한 도서관으로, 레포트 준비와 새롭게 시작한 프로그램의 컴퓨터 그래픽 실습을 하다 보면 난 매일 새벽 2시정도가 되어야 잠을 청할 수가 있었다. 몸이 너무도 피곤하면 잠도 쉽게 오지않아 잠잘 때 술을 마시고 자는 버릇도 생겨났다. 친구들과의 만남, 노래방, 여행, 쇼핑은 나의 생활과는 이제 더 이상 관련 없는 단어가 되어 있었다.

그 무엇을 위해, 왜, 이런 힘든 고통의 삶을 살아야 하나. 자신을 잠시 되돌아 보지만, 그것도 잠시,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 나의 생활은 아무 것도 아니었다.

학교에 강의를 나가면서 또다시 학생이 되어 부산에서, 강릉에서, 대구에서, 조치원까지 다니는 동료 학생(?)들, 주부이면서 교수이며 개인전 준비까지 하고 계시는 분, 공학도에서 사진학과 부교수로 변신하여 사진이 좋아 새벽 4시까지 작업하시는 분, 대학원 수업을 밤 11시에 마친 후, 컵라면 먹고 다시 학교로 들어가 학부생들의 졸업작품 준비를 돕고 계시는 교수님을 보면서 내 생활이 오히려 사치스럽게 느끼게 된다. 단, 한 순간도 허비하는 시간이 없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해야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지낸다.

이런 시간들이 타의에 의해서 만들어 졌다면 그같은 생활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 되어진다. 물론 같은 시간을 어떤 사람은 고스톱(?)을 치고, 때로는 술을 마시면서 보낼 수도 있다. 그 무엇을 하든지 자신을 위한 시간을 투자하자.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것도 얻을 수가 없다. 보려고 하는 사람만이 볼 수가 있다고 하였다. 10년만에 다시 시작한 공부가 결코 쉽지는 않지만 공부를 하면서 얻는 것은 학문적인 지식보다는 나의 시간을, 생활을,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만들었고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위해 투자를 해야함을 느끼게 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지내는 시간은 업무와도 연관이 되어 업무를 하면서도 타

성에 젖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발상을 하게 만든다. 이번 공군창작전시회를 준비하면서도 많은 생각과 만남들이 의미있는 전시를 준비할 수 있게 하였고, 무엇보다도 하늘을 지키면서도 예술을 사랑하는 군인아저씨들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음에 보람을 가질 수 있었다.

진중창작전 행사를 위해 도움을 주신 군악대, 의장대, 통신대, 관리과, 사진반, 군수과, 사제근무과, 제도실, 교재창, PC통신 블랙이글팀, 종이비행기 제작자 등 협조해 주신 부대 내 관련부서의 분들과 대전전문대 영상디자인과 교수님, 대전충남 예총, 한림갤러리, 금성인쇄, 모형비행기 설치한 노선익씨, 심사를 해주신 교수님들, 무엇보다도 자신의 일처럼 함께 한 과원들이 없었다면 이번 행사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마음으로 손길로 정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 그리고 도움을 받았던 그분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을 때 나 또한 기쁜 마음으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 갈 것이다.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행복한 나의 삶을 만들어가고 싶어서.

내년에는 다른사람의 작품전시 준비가 아닌 나의 작품전시회를 구상한다면 나의 꿈이 너무도 큰 걸까? 가능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난 그 꿈을 버리고 싶지는 않다.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인간이 되고 싶다. 그리고 최후엔 나의 길을 당당히 선택하리라. **빠빠용처럼 말이다. [등문]**

십원의 가치

김 지 훈

일병/제3131부대 정비대



언제적이었나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반세기 정도 살아온 한 신사분이 요즘 들어 자주 떠오른다.

그는 6·25전쟁도 겪고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부터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룬 이 상태까지 직접 경험하고 보아온 사람이었는데 그는 땅에 떨어진 10원짜리를 주워서 물기를 닦은 후 주머니 속에 집어넣는 것이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저 지나가며 무심코 본 기억이 이 상황이 요즘 들어 자주 떠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땅에 떨어진 돈을 줍는 상황에선 10만원권 수표나 고액의 돈 뭉치 같은 고액의 경우는 주인을 찾아줄 수는 있지만, 만원권 이하의 돈들은 땅에 떨어지면 누가 주인인지 알 수 없다. 그리고 그런 돈이 땅에 떨어졌을 경우 찾아주게 되는 경우는 바로 앞에 가던 사람이 돈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먼저 집는 사람이 주인이 된다는 말처럼 먼저 자기의 수중으로 돈을 가져오게 되면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게 된다. 언젠가 TV에서 1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을 땅에 떨어뜨려 놓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그 때 사람들이 동전 떨어진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지 아니면 창피하다고 생각해서인지는 몰라도 떨어진 동전을 보고서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대다수였다.

세월이 지나면서 참 많은 것이 바뀌었다. 그중 하나를 말한다면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화폐가치의 하락을 꼽을 수 있다. 물가상승의 예로는 여러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단편적인 예로 아이스크림을 들어 보면,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아이스크림들 중에는 10원단위짜리의 아이스크림이 없는 것 같다.

예전에는 10원단위짜리의 아이스크림이 유통



되었으나 지금은 모두 100원 단위짜리로 바뀌어서 10원단위짜리의 아이스크림은 유통되지 않는다. 수많은 10원단위짜리의 물건들이 100원단위짜리의 물건들로 바뀐 것이다.

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께 덧셈과 뺄셈을 배울 때가 있었다. 그 때 1원짜리와 5원짜리 그리고 10원짜리를 가지고 덧셈, 뺄셈을 배웠던 기억이 있다. 그 시기만 해도 1원짜리와 5원짜리 동전이 통용되었다. 그렇지만 언제부터인가 1원과 5원짜리 동전의 가치가 사라지게 됐다. 그래서 지금은 한 집에 많아야 몇 개정도 가지고 있는 희귀한 동전으로 변했다.

지금은 10원짜리 동전이 그럭저럭 통용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계속 이런 추세로 간다면 얼마 후에는 10원짜리 동전도 1원짜리와 5원짜리 동전과 같은 취급을 받을 것 같기도 하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문화를 말한다면 허리띠를 줄여가며 저축하는 문화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국민소득이 10,000달러를 넘고나서 언제부터인가 돈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해야 한다는 사치성 소비문화로 바뀌게 되었다.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지만 그로 인해 요즘 우리에게 다가온 결과로 달러 환율의 폭등이 있고, 주가 하락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상태이다. 그리고 큰 기업들이 하나씩 하나

씩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고, 또 우리가 지금과 같이 행동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무엇인가를 바꾸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일지 아니면 우리의 행동일지는 불분명하지만, 무엇인가를 우리가 해야만 한다는 건 사실이다.

‘시냇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고, 티끌이 모여 태산이 된다.’라고 선조들이 말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쉽게 보이질 않아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다.

예로부터 윗 사람들이 먼저 경험했던 말들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라 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겠다.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꾸준히 했을 경우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참으로 큰 것으로 생각된다.

동전이 땅에 떨어져 있기만 한다면 그 돈은 아무 쓸모없는 금속덩이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그것을 집어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큰 가치있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래서 내 기억 속에 점잖게 웃을 차려입은 노인사분이 땅에 떨어져 있는 10원을 집어 주머니에 넣은 것은 그가 10원짜리에 궁핍해서가 아니라 10원의 가치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보게 된다. **등문**

경 권

1997년 겨울호(통권 제241호)

글을 기다립니다.

구 분	내 용	분 량
보라매칼럼	의식적 차원에서 권장할 사항	20매 내외
시사, 안보	- 군 전략 및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것 - 군과 관련된 군내외 시사문제	40매 이내
군사지식	공군 및 군대 전반에 관련된 지식 및 정보	40매 이내
공군논단	시사안보를 제외한 연구분석 발표	40매 이내
취미생활	타인에게 권할 만한 취미 소개	30~40 내외
장병문예	단편소설, 시 등 문학작품	35매 내외
병영이야기	병영생활을 소재로 한 에피소드	7~8매
기 타	- 공군정책 제안 - 부대동정 사진 - 공군의 일원으로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	

알림

본 도서는
공군장병들의
교양함양과 건전한
읽을거리 제공을 위하여
발간된 것으로
게재된 내용은 공군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기 간 : 연중

▶보낼곳 : - 각 부대 정훈참모("공군지" 제출 원고임을 반드시 명기 바람)
- (320-919) 공군지 편집실

충남 논산시 두마면 부남리 사서함 310

* 반명합판 사진 1매, 연락처 명기

▶전 화 : (효)6232 (02) 506-6232

(042) 552-6232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 지급(원고 송부시 제작번호 기입 바람)

■발행처 :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발행일 : 1997년 12월 30일

■인쇄처 : 인쇄/출판 금성산업

T. (042) 254-7434, F. 256-7434

계속 버리면
우리도 버림
받습니다.



공군본부

게시기간 : '97. 11. 1. ~ '98. 10. 31.
(공군교체량 인쇄)

